머 리 말

세계를 놀래우는 눈부신 기적과 비약으로 날과 달이 흐르고 사회주의만복을 누려가는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나날이 높아가고있는 공화국에서 천사만사중에 제일중대사는 무엇이겠는가.

인민이다.

그늘 한점 없는 인민의 웃음소리이고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인민의 리익이며 후손만대로 무궁번영할 인민의 미래이다.

오직 인민을 위하여!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자기의 정치리념을 가지고 있지만 공화국에서와 같이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일관된 나라,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나라는 찾아볼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인민을 받들어나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관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경륜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령님들을 모시는것처럼 인민을 받들

며 거룩한 인민사랑의 새 력사를 수놓아가고계신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을 더없이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용감하고 슬기롭고 정의로운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발도 헤치며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헌신의 자욱속에 얼마나 가슴울렁이는 화폭들이 이 땅에 펼쳐졌던가.

생산정상화의 동음 힘차게 울리는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과 곳곳에 일떠선 문화정서생활기지들,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요람들과 멋쟁이병원들을 보아도 경애하는 그이의 열화와 같은 인민사랑의 세계가 한가득 안겨온다.

정녕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위대한 체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장정이 있어 이 땅에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적사변들이 련이어 탄생하고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있는것이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인민의 제일락원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애민헌신의 일화들중 일부를 묶어 내놓는다.

차 례

1

◎ 고생은 일군들이, 락은 인민들이 …… (10)
◎ 증산의 동음 높이 울리는 곳에서 …… (12)
생활문제가 기본이다 …… (12)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 …… (16)
◎ 황금해력사창조의 나날에 …… (18)
포구에 울려퍼진 《바다 만풍가》 …… (18)
명예지배인이 되겠다고 하시며 …… (22)
최고사령부직속 수산사업소 …… (24)
◎ 금산포의 자랑 …… (28)
명당자리 …… (28)
볼만 한 풍경 …… (31)
◎ 라선땅에 꽃펴난 사랑의 전설 …… (34)
중요의정으로 토의된 문제 …… (34)
하늘길, 바다길, 령길을 달려오시여 …… (39)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시며 …… (43)
절대적기준 …… (45)

◎ 조선로동당의 당풍-멸사복무 …… (47)
◎ 절절한 그리움을 안으시고 …… (49)
◎ 《매봉산》신발에 깃든 사연 …… (52)
하나의 신발상표에도 …… (52)
자신의 공장이라고 하시며 …… (55)
온 나라에 소문난 공장으로 …… (57)
◎ 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장 …… (59)
◎ 김치공업화의 새 력사 …… (63)
◎ 제때에 고쳐주신 위생안전성문제 …… (67)
◎ 몸소 규정해주신 필수소비품 …… (69)
◎ 또 하나의 재부가 마련되였다고 하시며 …… (71)
◎ 버섯의 나라로 …… (74)
◎ 평양을 대표하는 인민봉사기지 …… (76)
◎ 멋쟁이백화점 …… (79)
◎ 평가의 기준 …… (82)
◎ 행복의 웃음이 차넘치는 류경원 …… (84)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 (84)
운영준비도 빈틈없이 …… (87)
◎ 문명한 생활의 갈피마다에 …… (90)
새로 설치한 감시대와 치료실 …… (90)
일군들이 받은 《특별봉사》 …… (92)
원형거울과 당반식책장 …… (94)

강조하신 문제 …… (96)
옷걸이가 달린 의자 …… (98)
꼭 있어야 할 장소 …… (100)
바람소리 …… (102)
◎ 한줄기 샘물에도 …… (104)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 (104)
수송이 근본문제이다 …… (107)
◎ 금방석과 바늘방석 …… (110)

2

◎ 어린이식료품에 깃든 사랑 …… (116)
도덕의리에 관한 문제 …… (116)
량보다 질을 더 중시한다시며 …… (120)
제품의 질에 대한 평가기준 …… (122)
◎ 미래사랑의 결정체 …… (124)
쏟아지는 폭우속에서 …… (125)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시며 …… (128)
병원속의 《미술박물관》 …… (130)
관리운영에서 사소한 애로라도 있을세라 …… (132)
◎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된 의정 …… (135)
◎ 《소나무》 책가방 …… (138)

◎ 무조건 해결해야 할 중대사 …… (142)
◎ 사연깊은 민들레학습장 …… (145)
노래가사를 읊으시며 …… (145)
생산정상화의 동음 …… (148)
◎ 자신의 심정이라고 하시며 …… (150)
◎ 기다려주신 시간 …… (153)
◎ 온 나라는 격전장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 (156)
◎ 원아들의 친부모가 되시여 …… (158)
이른새벽에 울린 전화종소리 …… (158)
물고기와 곶감에도 …… (161)
정확히 알고계신 수자 …… (163)
제일 훌륭한 집 …… (166)
행복한 설날 …… (168)
거듭 찾아보신 지능교육도서 …… (172)
◎ 아버지의 병문안 …… (176)
◎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 심정이라시며 …… (180)
◎ 먼저 찾으신 탁아소 …… (183)
◎ 글소리 랑랑한 평양초등학원에서 …… (185)
자식부자 …… (185)
늘 따져보아야 한다 …… (188)
◎ 랭기 한점 스며들세라 …… (191)
◎ 달라진 운동장 …… (194)

3

◎ 밝은 눈을 안겨주는 류경안과종합병원 …… (198)
꼭 하고싶으셨던 일 …… (199)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시며 …… (201)
◎ 녀성들을 위한 사랑의 궁전 …… (204)
자신께서도 주인이라시며 …… (204)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의학 …… (208)
사소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 (210)
◎ 오복과 류경치과병원 …… (213)
세상에 둘도 없는 병원으로 …… (213)
사랑과 정을 담아 …… (215)
참관을 위한 병원이 아니다 …… (217)
◎ 경치좋은 곳에 위치한 보건산소공장 …… (220)
들고 오신 형성안 …… (220)
작고도 큰 공장 …… (223)
◎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투쟁 …… (226)
◎ 그림처럼 안겨오는 치과위생용품공장 …… (229)
자그마한 생산흐름선이 전문공장으로 …… (230)
대단히 중시하는 공장 …… (232)
◎ 업어주고싶은 심정 …… (234)

◎ 기능장애자들의 사랑의 집…… (236)
◎ 약수목욕탕…… (239)
◎ 보석이라도 찾으신듯 …… (241)

1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정을 안으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이민위천을 한평생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으신 뜻을 정히 새겨안으시고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걷고 걸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헌신의 자욱과 더불어 이 땅우에는 새라새로운 놀라운 사변들과 감동깊은 화폭들이 련이어 펼쳐지고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제일가는 중대사로!

이런 고결한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위대한 애민헌신의 장정을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인민들의 생활은 나날이 꽃펴나고있다.

◎ 고생은 일군들이, 락은 인민들이

주체101(2012)년 2월 16일이였다.

뜻깊은 광명성절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생활향상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시다가 일군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인민들은 락원의 행군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일군들이 고생을 하여서라도 인민들을 금방석에 앉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깊은 뜻이 담겨진 그이의 말씀을 일군들은 크나큰 감동속에 받아안았다.

일군들은 고난의 행군을, 인민들은 락원의 행군을!

어버이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시는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가 아니고서는 터칠수 없는 인민사랑의 송가였다.

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이 마디마디에 넘쳐흐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쪼아박듯 새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병정신과 인민관을 따라배워야 한다. 병사들을 위하여 최고사령관이 있고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있는것이며 인민들을 위하여 일군들이 있는것이다. 일군들이 군인들과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그들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한다. 병사들을 위하여 지휘관이 있고 인민들을 위하여 일군들이 있다. 한없이 귀중한 병사들과 인민들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자. 고생은 일군들이 하고 락은 인민들이 누리게 하자. …

청바위에 정으로 새겨주듯 마디마디 인민에 대한 깊은 정과 믿음이 담긴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일군들로 하여금 많은것을 생각케 하였다.

지금껏 자신들을 인민의 심부름군으로 여기면서 인민을 위해 일하고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이의 높으신 요구에 비하면 아직 얼마나 멀고멀었는가 하는 자책감이 온몸을 휩쌌다.

고생은 일군들이, 락은 인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는 광명성절에 이처럼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장군님의 숭고한 애민헌신의 정신을 본받아 인민을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증산의 동음 높이 울리는 곳에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증산의 동음 힘차게 울려가고있는 공장에는 인민들의 입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민헌신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그 길우에 꽃펴난 하많은 사연들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

생활문제가 기본이다

주체102(2013)년 10월, 평범한 가을날의 아침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시였다.

공장에 들어서시는 그이를 뵙는 순간 공장일군들의 가슴은 절로 벅차올랐다.

자기들의 작업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우렷이 안겨왔던것이다.

당시 공장에서는 현대적인 방직설비들을 가지고 명주처럼

부드럽고 윤기가 나는 여러가지 질좋은 인견천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고있었다.

이날 마중나온 공장일군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인사를 나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제사업에 좀 지장을 받더라도 종업원들의 생활문제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종업원들의 생활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에 도착하신 첫 순간에 종업원들의 생활문제에 대한 가르치심부터 주실줄을 생각지 못했던 공장일군들은 한순간 굳어진채 서있었다.

보다 놀라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종업원들의 살림집 실태에 대하여 세대수에 이르기까지 환히 알고계시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진정에 일군들은 감격에 북받쳤다.

예로부터 먹지 않고는 열집을 지날수 있지만 입지 못하고서는 한집도 지날수 없다는 말이 전해지고있다.

그만큼 입는 문제를 중시하여 나온 말이다.

인민들의 입는 문제해결을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는 이곳 녀성방직공들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였던가.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을 그대로 안고 오시여 방직공들의 생활에 그토록 마음쓰시는것

이였다.

이날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도, 견본실에 들리시여서도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은 종업원들의 생활문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옷감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천생산에 큰 몫을 감당하고있는 종업원들의 생활문제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자신께서 책임지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훌륭한 합숙을 지어주겠다고 하시면서 공장합숙부지도 몸소 정해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사실 공장이라고 하면 뭐니뭐니해도 생산이 기본문제로 나선다.

현실적으로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의 생산업체들에서는 경쟁적으로 상품을 많이 생산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리윤을 최대한 추구하는것을 기업의 최대실리로 간주하고 있다. 로동자들의 생활조건문제는 생각밖의 문제였고 혹간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생산다음에 생각해볼 문제였다.

하지만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로동자들의 생활조건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생산보다 먼저 나서는 기본문제였다.

그날로부터 몇달이 지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파견해

주신 강력한 건설력량에 의하여 대동강반에는 너성들의 궁전, 방직공들의 합숙이 비단필마냥 황홀한 자태를 뽐내며 우뚝 솟아났다.

록음이 짙어가는 화창한 봄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일떠선 김정숙평양방직공장합숙을 찾아주시였다.

합숙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말 멋있다고, 먼지만 날리던 곳이 천지개벽되였다고, 18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로동자합숙을 정말 훌륭하게 건설하였다고, 자신께서 공장로동자들과 한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며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일군들이 끓어오르는 격정과 흥분에 겨워 공장종업원들이 합숙을 로동자들의 궁전, 로동자들의 호텔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올리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더없이 기쁘신듯 시종 만족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로동자들의 생활문제를 언제나 심중에 두시고 그 해결을 위해 심혈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끝내 오열을 터뜨리고야말았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

주체103(2014)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시였다.

공장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에서 정해준 생산과제를 기어이 수행하였으며 년말전투에서도 련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는 공장로동계급을 만나보고싶어 찾아왔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당정책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공장로동계급들을 무슨 말로 축하해주고 고무해줄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공장현판에 새길 글을 써달라고 하던 부탁이 떠올랐다고 하시면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이라는 친필을 일군들에게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모든 생산공정들이 만가동, 만부하로 돌고있는 광경앞에서 한동안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생활상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해야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릴수 있다고 하시면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전구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

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

드넓은 공장구내를 쩌렁쩌렁 울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인민생활향상에서 공장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명백히 밝혀주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이였다.

그이의 말씀을 새겨안으며 일군들은 눈시울을 적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는 문제를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보시였으면 방직공장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전구,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로 규정해주시겠는가.

인민생활향상을 단순히 경제실무적문제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차대한 사업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그이께서 새기시는 자욱자욱은 력사에 류례없는 인민사랑의 이야기들로 감동깊이 수놓아지는것이다.

일군들은 끓어오르는 격정을 안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맹세다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를 지켜선 병사답게 인민들을 위한 질좋은 옷감들을 꽝꽝 생산해내겠습니다.)

◎ 황금해력사창조의 나날에

황금해, 이는 오로지 온 나라의 바다에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차넘치게 하여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헌신이 안아온 내 조국의 자랑이다.

포구에 울려퍼진 《바다 만풍가》

사회주의포구에 《바다 만풍가》의 노래소리 흥겹게 울려퍼지고있다.

늠실늠실 출렁이는 파도를 헤치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해가는 기쁨과 선창이 넘치게 잡은 물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아가는 희열을 신바람나게 펼쳐주는 노래의 구절구절을 새겨가느라면 동해의 포구에 펼쳐졌던 감동깊은 화폭이 눈앞에 어려온다.

주체103(2014)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8호 수산사업소의 하륙장을 찾으시였을 때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진공뽐프를 타고 물보라를 흩날리며 쉬임없이 쏟아져내리는

물고기폭포,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높아만지는 물고기산…

볼수록 놀랍고 흐뭇하여 일군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기쁘시여, 너무도 기쁘시여 그이께서는 누가 만류할 사이도 없이 하륙장안으로 성큼 들어서시였다.

물고기와 함께 쏟아지는 바다물이 여기저기에서 튀여나 옷자락에 스며들고 질퍽하게 흐르는 물이 구두를 적시였지만 그이의 만면에는 기쁨의 미소가 함뿍 어려있었다.

얼마나 멋있는 풍경인가고,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리는것 같다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노래 《바다 만풍가》의 한구절을 부르시였다.

포구엔 만선의 배고동소리

병사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보내주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황금해의 새 력사를 안아온 희한한 물고기대풍이 너무도 흐뭇하시여 흥겹게 노래를 부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노래소리에 드넓은 바다가 설레이고 갈매기들도 춤을 추는것만 같았다.

이때 약속이나 한듯 일군들모두가 화답하여 노래의 다음 구절을 불렀다.

선창엔 물고기 가득 웃음도 절로 나네
…

가슴벅차게 솟구쳐오르는 희열을 금치 못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를수록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웠다.

어느해 겨울 동해에 물고기떼가 쭉 깔렸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송수화기를 드신채 《바다의 노래》를 부르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왔던것이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의 11월 물고기를 빨리 잡아 인민들에게 보내주자고 하시며 수도시민 한사람당 차례지는 수량에 이르기까지 헤아려주시고 심장의 고동이 멎기 전날 저녁에도 물고기공급과 관련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그 은정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을 꽃피워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도록 하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를 되새길수록 일군들의 눈시울은 젖어들었다.

전해 봄 8월25일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여 풍요한 가을처럼 바다에서도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라는 의미에서 고기배들의 명칭을 《단풍》호로 달아주시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군인

들에게 보내주자고, 이것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30여년만에 흐뭇한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였다는 소식을 받으신 그달음으로 또다시 그들을 찾으시여 이곳 수산사업소에 오니 웃음이 저도 모르게 나온다고, 포구엔 만선의 배고동소리 선창엔 물고기 가득이라는 노래가사가 절로 떠오른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크나큰 희열의 세계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랴.

잊지 못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쁨속에 외우시던 가사가 그대로 《바다 만풍가》의 첫 소절이 되고 흥겨운 민요선률을 낳았던것이다.

…
이 기쁨이 뉘 덕이냐 원수님의 은덕일세
사회주의대가정에 바다향기 더해가세

크나큰 감동속에 노래를 부르는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귀한 업적을 물고기대풍으로 세세년년 빛내여갈 불타는 맹세가 용솟음쳤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르신 《바다 만풍가》, 그것은 사회주의대가정에 바다향기를 더해주며 만선의 배고동소리로,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로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명예지배인이 되겠다고 하시며

주체104(2015)년 5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해의 이름난 수산기지인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이날은 하늘에 구름 한점 없는 쾌청한 날이였다.

인민군대의 수산부문을 따라배워 자기들도 동해와 원양의 어장을 타고앉아 물고기대풍을 안아올 드높은 각오와 신심에 넘쳐있는 기업소의 들끓는 모습을 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광에는 환한 미소가 어리였다.

그이께서는 마중나온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에 찾아온것은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곳 기업소가 사회수산부문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것만도 크나큰 영광인데 자기들이 전국의 수산부문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내세워주러 오셨다는 그이의 말씀까지 받아안았으니 기업소일군들과 어로공들의 가슴은 터질듯 부풀어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일찌기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자면 수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며 나라의 수산업발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신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새 조국 건설시기에 몸소 조직해주신 이곳 기업소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수산물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헌신과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다는데 대하여, 기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늘 지켜보고계신다는 자각을 안고 수령님들앞에서 자기들의 실적을 총화받는 심정에서 살며 일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동행한 일군들과 기업소일군들은 가슴이 쩌릿하였다.

언제나 그 어디서나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그 로고와 업적을 잊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심은 정녕 끝이 없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들의 상기된 얼굴들을 일별하시며 나라의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한다고, 현시기 수산부문은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의 주요전구라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의 명예지배인이 되여 이 기업소를 먼저 추켜세우려 한다고 크나큰 믿음의 말씀을 하시였다.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의 명예지배인!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환희와 격정으로 달아올랐다.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몸소 명예지배인이 되시여 련합기업소를 추켜세우려 한다고 말씀하시랴.

그이께서 명예지배인이 되여주셨다는 소식은 날개라도 돋친 듯 온 신포땅, 온 나라에 순식간에 퍼져갔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명예지배인으로 모신 커다란 긍지와 자랑을 안고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의 어로공들은 오늘도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한 물고기잡이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서 내달리고있다.

최고사령부직속 수산사업소

푸른 물 출렁이는 동해포구에 일떠선 1월8일수산사업소는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1년 365일 신선한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해주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사랑에 의하여 조직된 수산사업소이다.

주체107(2018)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월8일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다.

이날 사업소를 돌아보시면서 사업소에서 물고기잡이계획을 초과수행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월8일수산사업소를 조직할 당시에는 전국의 모든 육아원

과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원아들과 양로원의 로인들에게 매일 300g의 물고기를 정상공급할데 대하여 과업을 주었는데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이제는 하루에 400g씩 보장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일군들의 눈앞에는 1월8일 수산사업소가 태여나던 잊지 못할 나날이 어제런듯 되새겨졌다.

여러해전 동해지구에 능력이 큰 수산물랭동시설을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인민군대에 주시고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1월의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새로 건설하게 될 수산사업소의 이름까지 친히 명명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오늘 여기에 찾아온것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대한 물고기보장가능성을 토론하기 위해서이라고, 모든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부러움없이 혁명의 계승자, 혁명의 골간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시면서 이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꼭꼭 먹이려면 년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몸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신 원수님.

어디 그뿐인가.

수산사업소건설이 한창이던 때에는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값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몇달후 조업

을 앞둔 때에도 찾으시여 볼수록 희한한 로동당시대의 걸작, 조선동해포구에 솟아난 새로운 풍경이라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에 떠받들려 1월8일수산사업소는 전국의 본보기, 표본으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그러시고도 주신 사랑 부족하신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6년 11월 도루메기집중어로전투가 한창이던 때 사업소에 찾아오시여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는 당에서 제일 중시하는 사업소라고 하시면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원아들의 친부모, 양로원 로인들의 친자식이 된 심정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보내줄데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황금해력사의 첫 기슭에는 이렇게 부모잃은 원아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로인들을 위한 전문수산사업소가 특별히 조직되는 사랑의 전설이 새겨지게 되였다.

하늘같은 그 은정에 떠받들려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서 원아들과 로인들이 매일 신선한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맛보고있건만 또다시 사업소를 찾으시여 그들의 물고기급식량을 늘여주시고 품질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1월8일수산사업소는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단위인것

만큼 물고기잡이에서의 과학화수준과 운반, 가공처리에서의 자동화, 현대화수준이 다른 수산사업소들에 비하여 질적으로 높아야 하며 물고기들에 대한 품질검사사업도 강화하여 원아들과 보양생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만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에 필요한 온갖 조치들도 다 취해주시였다.

사업소를 떠나시기에 앞서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 1월8일 수산사업소는 당에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원아들과 양로원 로인들의 생활을 직접 책임지고 돌봐줄 것을 결심하고 조직한 수산사업소이며 자신께서 제일 중시하는 최고사령부직속 수산사업소라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최고사령부직속 수산사업소!

정녕 조국의 바다를 아름답게 수놓는 황금해력사의 갈피갈피는 절세위인을 높이 모신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사회주의 조국의 고마움을 만사람의 가슴에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 금산포의 자랑

예로부터 쇠돌이 많이 나는 고장에 있는 포구라 하여 그 이름도 금산포.

한적한 파도소리와 갈매기소리만이 울리던 이곳이 젓갈공업의 새 력사가 창조된 고장으로 이름나게 되였다.

인민들의 마음속에 서해포구의 보물고로 깊이 새겨진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더불어 인민들의 식락도 나날이 풍성해지고 있다.

명 당 자 리

주체104(2015)년 3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흙먼지 날리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공장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서해안의 중심어장에 위치한 능금도에 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한 수산물가공기지를 일떠세울수 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발기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은률광산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이 건설됨으로써 바다기슭으로부터 능금도, 곰섬을 방조제로 련결하여 수천만 ㎡의 새땅을 얻어냈으며 서해리방향으로 방조제를 계속 쌓아나가니 광산의 박토처리는 물론 조국의 자연을 아름답고 풍치좋게 변모시킬수 있게 되였다고, 장군님께서 수십년전에 벌써 오늘을 내다보시고 이런 명당자리를 마련해주신것만 같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명당자리!

일군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땅에 행복과 번영의 노래가 울려퍼지기 시작한것은 과연 어느때부터였던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금산포의 재부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밑천으로 된 그때부터였다.

금산포지구는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청춘기를 맞이하였고 은률광산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과 더불어 이곳에서 조국의 대지가 넓어지는 전설같은 현실도 펼쳐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변모된 금산포지구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또 한번 크게 변하는 희한한 새시대를 맞이하였다.

크나큰 격정을 안고 일군들은 젓갈가공공장과 수산사업소를 훌륭히 일떠세우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

주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렀다.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이라는 성스러운 이름이 붙어있는 인민군대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우리 인민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또 하나 하자고,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를 훌륭히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자고 열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에게 맛좋은 젓갈품들을 안겨주게 될 그날을 그려보시는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세차게 고동쳤다.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궂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끊임없는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의지로 걷고걸으신 그이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있어 공화국은 어디 가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고 사회주의만복이 꽃펴나는 인민을 위한 멋진 창조물들이 솟아나는 명당자리로 전변되는것이다.

볼만 한 풍경

주체107(2018)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을 찾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현장의 모든 공정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한 공정도 무심히 대하지 않으시였고 높은 과학적식견과 해박한 지식으로 일군들과 기술자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식료공장들에서는 제품의 위생안전성과 질보장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고 제품전시실에 전시된 시제품을 보시고는 시제품들을 생산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수요대로 생산하여 팔아주며 인민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제품의 질적발전을 위한 착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인민의 요구를 첫자리에 놓고 인민들에게 최상의것을 안겨주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뜻을 새겨안으며 일군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그이께서 제품저장고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드넓은 저장고안에는 여러가지의 젓갈가공품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었다.

저장고가 비좁을 정도로 가득차있는 젓갈제품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정말 볼만 한 멋있는 풍경이라고, 처음 건설하는 젓갈가공공장이여서 생산성이 담보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없지 않았는데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젓갈제품들을 보니 자부심이 생긴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한 서해포구의 보물고나 같다고…

서해포구의 보물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였으면 오래도록 저장고를 거니시며 이렇듯 뜻깊은 말씀을 남기시는것인가.

얼마나 우리 인민들의 식탁에 구미에 맞는 식찬 한가지라도 더 놓아주시기 위해 깊이 마음쓰시였으면 자그마한 밥반찬까지도 보물로 여기시는것인가.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였다.

예로부터 젓갈은 우리 인민들이 《밥도적》으로 부르면서 즐겨 먹어온 맛좋고 영양가높은 부식물의 하나로 일러왔다.

생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시기를 감회깊이 회고하시며 건뎅이젓 같은 젓갈품만 잘 만들어 팔아도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날의 교시를 가슴에 안으시고 공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느라니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젓갈

품을 공급해주시려고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시기 위해 그이께서 바쳐오신 충정의 세계가 눈앞에 어려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젓갈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가공공장과 그 운영에 필요한 수산사업소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경영활동에 유리하고 어장이 가까운 서해안의 금산포지구에 위치도 정해주시였다. 여러차례에 걸쳐 건설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과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였을뿐아니라 젓갈가공공장의 이름도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이라고 명명해주시였다.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은 이렇게 솟아났다.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자욱속에 솟아난 서해포구의 보물고이다.

일찌기 없었던 폭열로 하여 삼복의 무더위가 최절정에 올랐던 이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에서 더없는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는 공장일군들의 심장마다에는 서해포구의 보물고를 인민이 사랑하는 보물고로 더 잘 꾸려나갈 충정의 맹세가 불타올랐다.

◎ 라선땅에 꽃펴난 사랑의 전설

가물끝은 있어도 장마끝은 없다는 속담처럼 큰물과 같은 자연재해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불행을 가져다준다.

세상에는 자연의 횡포한 광란이 몰아오는 태풍과 큰물피해로 인해 생활과 미래가 파괴된 사람들이 겪은 불행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대홍수에 의한 재난은 입었어도 리재민이 없고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만복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전설같은 현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공화국에서 펼쳐져 세인을 놀래우고있다.

중요의정으로 토의된 문제

주체104(2015)년 8월이였다.

이즈음 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례년에 드문 폭우가 때없이 쏟아져내렸다.

그러던 어느날 하늘이 무너졌다는 표현그대로 북부의 라선지역에서는 짧은 시간에 쏟아져내린 폭우로 큰물이 나면서 공공건물이 무너져내리고 살림집들이 떠내려갔으며 아름드리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고 도로와 논밭이 물에 잠기였다.

엄청나게 쏟아붓는 비줄기속에 천하가 다 물에 잠긴듯 사라져버렸다.

홍수, 그것도 대홍수가 터진것이였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그밤에 큰물을 피해 사람들이 올라선 산등성이우와 물이 차오르는 단층살림집지붕우, 아빠트옥상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갔다.

《평양에도 이렇게 비가 올가?》

《평양은 물에 잠기면 안될텐데…》

《하늘아, 평양에 갈 비구름이 있거든 차라리 여기에다 쏟으라.》

이 나라 백성들의 심장의 고백이였다.

천길깊이에서 샘솟는 민심의 웨침이였다.

라선에서 평양은 연연 2천여리의 거리에 있어도 난생처음 겪는 물란리속에서, 태여나 처음 보는 살풍경앞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과 가산이 아니라 평양을 걱정하고있었다.

그곳엔 인민의 어버이께서 계시고 자손만대 안겨살 미래가 있어서가 아니였던가.

그 고백과 민심에 대한 검증이런듯 날이 밝을무렵에 사람들은 서로의 모습앞에 목이 메였다.

너나없이 아닌밤중에 자리를 차고 나와 맨발에 속옷바람이건만 누구나 가슴에 안은건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였다.

한편 그무렵 조선반도에는 반공화국적대세력들에 의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기일발의 초긴장이 떠돌고있었다.

전쟁이냐 평화냐.

준엄한 이 시각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의 운명과 행복을 수호하시려, 이 땅의 영원한 평화를 지키시려 비상한 정력으로 끝없는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고계시였다.

그이의 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에 의하여 무전무혈의 대승이라는 력사의 새 기록이 또 한번 새겨져가고있던 어느 날이였다.

날이 밝을무렵인 새벽녘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건의 보고를 받으시였다.

그것은 멀고먼 라선땅에서 날아온 대홍수피해에 대한 자료보고였다.

그이께서는 주의깊게 문건을 보시였다.

읽다가는 멈추시고 멈췄다간 다시 읽으시며 몇번이나 보고 또 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은 쓰리시였다.

파묻혀버린 집들과 무너져내린 아빠트들, 흙사태와 나무뿌리에 뒤엉킨 마을들, 레루장만 앙상한채 끊어져나간 철길이며 돌사태, 흙사태에 형체없는 도로들…

자료보고는 인민을 위해 그리도 애쓰시는분, 인민의 아픔엔 그리도 한없이 여린 그이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였다.

흐려지는 그이의 눈앞에 생사를 다투는 위기의 순간에도,

천행을 뻗쳐온 구원의 손길앞에서도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먼저 생각하고 광란하는 물속을 헤쳐간 사람들이 떠올랐다.

누구도 그들더러 그렇게 하라고 한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리도 소박하고 수수했던 이 나라 인민, 라선의 사람들은 최후의 순간에도 그처럼 고결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건에서 눈을 떼시며 억장이 무너져내리는 슬픔에 흐려진 눈을 닦으시려 손수건을 꺼내드시였다.

아, 얼마나 훌륭한 인민인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이라고 늘 외우시던 그 참뜻이 다시금 되새겨져서인가 경애하는 그이의 심중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슴속에선 수령님들을 모시듯, 수령님들을 받들듯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시려는 그지없이 절박해지는 심장의 호소가 고패쳐올랐다.

마침내 피해지역 인민들뿐아니라 온 나라를 격동시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8월 27일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라선시큰물피해복구문제가 중요의정으로 토의되였던것이다.

나라의 중대사를 론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개 지역의 큰물피해복구대책문제를 토의한다는것은 사실상

전례없는 일이였다.

그러나 인민의 운명을 그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라선시피해복구문제는 순간도 미룰수 없는 최대의 중대사였고 인민생활향상을 자기의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운 조선로동당이 지체없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과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라선시피해복구전투지휘사령부를 친히 조직해 주시고 인민군대가 라선시큰물피해복구를 전적으로 맡아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전히 끝낼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정녕 이것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취하실수 있는 중대조치였다.

이렇게 되여 인민군대의 정예부대들이 즉시에 현지에 전개되고 그뒤를 이어 온 나라가 라선을 찾아 파도쳐 달려왔다.

천만군민의 마음이 모이는 라선, 세계가 눈여겨보는 라선으로 되였다.

하늘길, 바다길, 령길을 달려오시여

그날은 주체104(2015)년 9월 어느날이였다.

군인건설자들이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살림집건설의 백열전을 벌리는 속에 어느덧 정오가 다가오고있었다.

이무렵 한대의 수수한 뻐스가 건설현장으로 오고있었다.

수시로 피해복구지역에 드나드는 지원자들을 태운 뻐스로 생각했는지 건설자들은 누구도 여기에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이때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시였다!》

그 누군가의 웨침소리에 살림집건설장이 삽시에 환희로 설레였다. 여기저기서 감격에 목메인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처럼 머나먼 이 건설현장에까지 찾아오실줄 어느 누가 생각이나 해보았으랴.

평양에서 라선까지는 2천여리길.

피해를 입은 인민들이 살게 될 살림집건설장에 하루빨리 와보고싶으시여 그이께서는 순탄치 않은 2천여리 로정을 비행기로 하늘길을 날으시고 배로 바다길을 달리시였고 너무도 수수한 뻐스에 오르시여 먼지날리는 그 험한 길을 한달음에 달려오시였다.

병사들은 뻐스에서 내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뵙는 순간 목이 꽉 메였다.

너무도 수수한 뻐스를 타고 오신 그이께서 너무도 수수한 운동화를 신고 내리시는것이 아닌가.

병사들은, 인민들은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며 만세도 부르기 전에 울음부터 터뜨렸다.

만사를 미루시고 2천여리를 달려오시여 건설장을 찾으신 그이의 겸허한 모습에 마중나온 건설현장일군들도 격정을 금치 못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을 일별하시며 큰물피해로 살림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라선시수재민들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자신께서 직접 피해복구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것 같아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로부터 건설정형과 그동안 이룩한 전투성과를 보고받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10일동안에 1 300여세대의 살림집벽체축조를 완전히 끝냈고 현재 콩크리트층막치기와 내외부미장작업을 진행하고있으면 대단하다고 하시며 한낮의 뜨거운 해볕이 쨍쨍 내려쪼이는 나지막한 둔덕에 서시였다.

그곳에서 살림집지구며 유치원, 탁아소를 비롯한 공공건물들의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먼지이는 건설장을 돌아보시며 군인들이 이룩한 자랑찬 위훈을 거듭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콩크리트층막버팀대들이 아직 그대로 서있는 작업장에까지 들어가보시며 살림방들의 크기와 구조도 가늠해보시고 앞마당에는 주민들이 남새를 심어먹을수 있게 터밭도 조성해줄데 대해 따뜻이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살림집바깥벽에 품이 좀 들더라도 띠장식미장을 할데 대해 일깨워주시고 지붕과 벽체도 보기 좋은 색갈의 가열도장판과 외장재로 조화가 되게 시공하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큰물피해를 입은 인민들에게 이전과는 대비도 할수 없는 희한한 사회주의선경마을을 안겨주시려는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는 그이의 가르치심.

머나먼 조국의 최북단에까지 찾아오시여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또다시 뜨거운 격정을 금치 못했다.

그러는 그들을 믿음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라선시피해복구전투에 동원된 전체 지휘성원들과 군인들이 피해복구전투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림으로써 우리 당 력사에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새 전설을 새기리라고 믿는다고 확신에 넘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하늘길, 배길, 령길로 수천리를 달려

오시여 위대한 사랑과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떠나시게 되였다.

그이를 모신 뻐스가 건설장의 험한 도로를 따라 달리였다.

병사들과 인민들이 목청껏 만세의 환호를 올리며 뻐스를 따라섰다.

자신을 따라 그냥 달려올듯만싶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차창가에서 오래도록 손을 저어주시였다.

너무나도 조용히, 소문없이 오신 걸음이여서 그이께서 가신 후에도 라선인민들은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원수님 오셨다는 그 소식이 바람처럼 라선땅에 퍼져갔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계셨던 건설장둔덕으로 인민들이 물밀듯이 찾아왔다.

그이의 발자욱이 아직도 남아있는듯 한 그 자리에 눈물방울을 떨구며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원수님은 인민을 위한 곳이라면 천리나 만리가 아니라 우주의 한끝이라도 찾아가실분이시라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시며

주체104(2015)년 10월 어느날이였다.

조국의 북변 라선땅의 큰물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써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다시 머나먼 길을 달려 라선땅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소가 함뿍 어린 시선으로 큰물피해의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전설처럼 솟아오른 사회주의 선경마을을 한동안 굽어보시였다.

백학산기슭에 지대적특성과 주변환경에 어울리게 향토색이 짙으면서도 현대적인 멋을 갖춘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선 마을은 얼마전 큰물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라고는 선뜻 믿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몰라보게 변모된 백학동지구를 감개무량하신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살림집구역이 희한하다고, 사진으로 볼 때에도 멋있었지만 현지에 와서 보니 더 멋있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느 한 살림집에 들리시였다.

정갈하게 꾸려진 살림집은 보기만 해도 정이 들었다.

살림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구비된것을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종 만족하신 미소를 지으시였다.

이때 동행한 일군이 피해지역 인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하고있다는데 대하여 보고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흥그러우신 어조로 인민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정말 기쁘다고, 바로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

인민의 기쁨이 넘쳐나는 라선땅의 천지개벽을 두고 자신께서 바치신 헌신과 로고는 다 잊으신듯 그처럼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을 위한 고생을 락으로 여기시는분, 인민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고 인민들의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우는데 혁명하는 목적, 창조의 목적을 두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풍모가 뜨겁게 어려와 일군들은 눈시울을 적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면장과 부엌의 꾸림새도 주의깊게 살펴보시며 아궁에 불은 잘 드는가, 수도물은 잘 나오는가 세세히 마음쓰시였다.

그이의 모습은 정녕 온 나라 대가정을 따뜻이 보살피시는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의 모습이였다.

이렇듯 살림집의 내부를 구체적으로 다 돌아보시고 마당으로 나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시름이 다 풀리시는듯 환하게 웃으시였다.

절 대 적 기 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가시는 무한한 인민사랑의 세계속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라선땅의 살림집들마다에는 하나로 관통된 절대적기준이 있었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 물음에 대답을 주는 하나의 감동깊은 이야기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라선땅의 큰물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살게 될 사회주의선경마을을 기쁨속에 돌아보시고났을 때였다.

새 살림집들에서 살게 될 인민들의 행복넘친 생활을 그려보시듯 환한 미소속에 계시던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공공건물건설에서 내부마감공사를 질적으로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공공건물공사를 얼마나 질적으로 하였는가 하는것은 실지 그것을 리용할 주인들인 인민들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도 그 집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좋다고 하여야 진짜 건설을 잘한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누구도 생각지 못하였던 문제였다.

건설물은 그것을 리용할 주인들인 인민들이 평가하게 하여야 하며 그들이 좋다고 하여야 진짜 건설을 잘한것이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확신에 넘치신 어조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렇다.

아무리 훌륭히 건설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리용하게 될 인민들이 좋다고 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것, 우리 인민이 좋아하고 우리 인민에게 편리하게 되면 그것이 다름아닌 우리가 삼아야 할 기준이라는것이 바로 원수님의 뜻이였다.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모든것의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들의 편의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여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새겨안으며 일군들은 세찬 격정에 휩싸였다.

라선땅에 솟아난 선경마을은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는 위대한 그이의 창조세계가 낳은 고귀한 결정체이다.

◎ 조선로동당의 당풍—멸사복무

주체105(2016)년 9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함경북도 북부피해복구와 관련한 대책적문제를 두고 온밤을 꼬박 지새우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날이 밝자 몇몇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당시 조국의 북변 두만강연안에 처음 보는 돌풍이 불어치고 무더기비가 쏟아져 무서운 재난을 몰아왔다.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어조는 근엄하시였다.

장내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해, 전례없는 대승리를 눈앞에 바라보고있는 때에 그렇듯 엄청난 재난이 조국땅에 들이닥쳤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야속하기만 하였다.

그러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수많은 인민들이 한지에 나앉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그들에게 살림집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우리는 이번 큰물피해복구전투를 통하여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이 조선로동당의 당풍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보여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것이 조선로동당의 당풍이다.

마디마디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불타는 그이의 말씀을 새겨들으며 일군들모두가 결사의 의지를 가다듬는데 또다시 가슴울리는 충격이 몸에 와닿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큰물피해복구를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하신것이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움과 격정으로 가슴들먹이였다.

함경북도 북부지구에 큰물이 발생하였을 시기로 말하면 200일전투가 중간단계에 이르러 더욱 고조되고 려명거리건설을 다그쳐 끝내는것을 비롯하여 당과 국가앞에 중요한 사업들이 수많이 제기되고있을 때였다.

하지만 인민의 생명재산, 인민의 편의와 리익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0일전투를 큰물피해복구에로 방향전환하며 려명거리건설력량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력량을 피해복구에 총동원, 총집중하도록 하는 중대조치를 취하시였다.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당장 들이닥칠 엄혹한 강추위앞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시려는것이 인민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이고 결심이였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일군들은 마음속으로 불러보았다. 그리고 다시금 새겨안

았다.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더욱 확고히 세워가시는 조선로동당의 당풍이라는것을.

◎ 절절한 그리움을 안으시고

주체102(2013)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공장의 연혁을 헤아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안에는 더없는 숭엄함과 경모감이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께서 생전에 공장의 개건현대화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장군님의 마음을 안고 공장을 돌아보시겠다고 하시였다.

예로부터 된장을 한해 량식으로 여겨온 우리 인민은 장맛이 단 집에 복이 많다는 말까지 전하여오면서 장과 행복한 생활을 련관시켜왔다.

하지만 장을 비롯한 기초식품문제를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 문제로 보시고 나라사정이 그토록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 기초식품공장들을 일떠세워주시고 장생산에 필요한 원료문제까지 관심하시며 세심히

이끌어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시민들에 대한 기초식품보장문제를 틀어쥐시고 최우선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을뿐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평양기초식품공장을 개건하여 기초식품만이 아니라 갖가지 영양식품을 꽝꽝 생산해내도록 하기 위해 마음쓰시였다.

공장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헌신의 자욱을 되새길수록 공장의 개건현대화에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혈과 로고가 어려와 일군들의 눈굽은 쩌릿이 젖어들었다.

평양기초식품공장 현대화공사는 수도시민들의 식생활문제에 대하여 언제나 마음써오신 장군님께서 직접 평양시당위원회에 과업을 주신 대상이라고, 장군님의 유훈대로 최상의 수준에서 현대화하고 질좋은 기초식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수도시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나 해도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보장하는 원칙을 세워야 하며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완전무결하게 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며 현대화공사를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공장현대화의 성과적완성을 위하여 수많은 사업을 포치하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건만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돌이켜보시는 절세의 위인적풍모앞에 일군들은 머리가 숙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시간이 길어질수록 동행하는 일군들은 어찌하여 그이께서 공장에 찾아오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을 안고 공장의 곳곳을 돌아보시는지 그 웅심깊은 사연에 가슴뜨거워졌다.

로동자들의 희한한 궁전, 로동당시대의 맛이 나는 공장, 애국주의가 차넘치는 공장이라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고 그 공로를 모두 일군들과 로동계급에게 안겨주시며 치하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

그것은 진정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화된 이 공장에 찾아오시였다면 더없이 만족해하시며 베풀어주셨을 그 사랑, 그 은정이였다.

하기에 공장을 떠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생산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림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꼭 실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한집안식구들처럼 그이의 품에 안겼던 공장로동계급은 이렇게 마음속 심정을 터치였다.

(수령님, 장군님, 믿어주십시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참답게 기여하는 참된 복무자가 되겠습니다.)

◎ 《매봉산》신발에 깃든 사연

강원땅에는 이곳 사람들이 자랑하고 사랑하는 원산구두공장이 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누구나 좋아하는 《매봉산》상표를 단 신발.

하다면 이 공장의 제품들이 어떻게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그처럼 친숙해질수 있었는가.

하나의 신발상표에도

주체103(2014)년 7월 어느날이였다.

그날은 장마비로 하여 원산구두공장으로 들어오는 길에 물이 질벅하였다. 그 길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오실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그이를 맞이한 원산구두공장의 일군들은 감격에 겨워, 송구스러움에 젖어 어쩔바를 몰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들에게 원산구두공장에서 가볍고 질좋은 구두를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해줄데 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어떻게 관철하고있는지 알아보러 왔다고 말씀하실

때 모두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문제를 선차에 놓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이 뭉클 안겨와서였다.

공장의 연혁소개실에 전시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회는 깊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해 걸으신 사랑의 자욱자욱을 말하여주는 자료들…

연혁소개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아주신 구두견본품들도 전시되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군님께서 이 구두들을 보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가볍고 질좋은 구두를 만들어 신겨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고 뜨겁게 추억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연혁소개실에 있는 사적자료들만 보아도 장군님께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돌아보시는 생산현장들마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구두의 질을 높이고 무게를 가볍게 할것인가에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실 때 공장일군들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또다시 뵈옵는것만 같았고 장군님께서 공장에 찾아오시여 그동안 진행한 일들을 알아보시고 새 과업을 주시는것만 같아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군님의 유훈대로 질좋은 구두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컬레를 만들어도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신발은 가벼워야 신고 다니기 좋다고 하시며 신발의 무게를 경량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상표의 도안문제에도 깊이 관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생산하고있는 신발의 상표를 《매봉산》으로 하자고 이르시였다.

《매봉산》, 진정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름이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의 고지를 영웅적으로 사수한 인민군용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인민들의 높은 기개와 더불어 승리의 봉우리로 깊이 새겨진 매봉산.

이 말은 흘러간 력사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대를 이어 계승되는 우리의 전통,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할 우리의 승리가 이 말속에 함축되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달아주신 《매봉산》상표에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원산구두공장이 언제나 기치를 들며 우리 당의 경공업방침을 빛나게 관철해가는 길에서 선구자가 되라는 힘있는 격려가 담겨있었다.

자신의 공장이라고 하시며

주체104(2015)년 11월 원산구두공장을 찾으신 그날 사출작업반을 비롯하여 공장의 곳곳을 다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정문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이제는 떠나셔야 할 시간이였던것이다.

공장일군들에게는 분초가 새로우신 그이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자기들의 일터를 또다시 찾아주시고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것이 더없는 영광이고 행복이였다.

하건만 정작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떠나셔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언제까지라도 그이와 함께 있고싶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신듯 정문쪽으로 나오시며 공장일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원산구두공장은 자신의 공장이라고, 원산구두공장은 자신께서 현대적으로 꾸려준 공장이며 자신께서 늘 관심하는 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자신의 공장!

자신께서 늘 관심하는 공장!

그이의 말씀이 울리는 순간 일군들은 크나큰 감격에 휩싸였다.

인민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열렬하시였으면, 인민들의 신발생산에서 한몫 단단히 하는 이 공장에 얼마나 애착이 가시였으면 떠나셔야 하는 그 시각에도 그처럼 뜨겁게 자신의 진정을 터놓으시랴.

감격이 극하면 말문이 막히는 법이다.

한참만에야 공장일군이 마음을 진정하며 경애하는 원수님께 대해같은 그 믿음에 꼭 보답하겠다고 절절히 아뢰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일군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원산구두공장은 앞으로도 경공업발전에서 기치를 들고 우리 나라 신발공업발전을 추동해나가는 핵심공장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원산구두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기 바란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이를 바래워드리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속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공장에서, 그이께서 늘 관심하시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한없는 긍지와 행복감이 끝없이 흘러넘쳤다.

온 나라에 소문난 공장으로

주체107(2018)년 12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원산구두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근 《전국신발전시회》에서 원산구두공장이 1등을 하고 공장에서 출품한 《매봉산》신발에 대한 호평이 대단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뻤다고 하시면서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공장이 이룩한 성과를 두고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공장일군들의 눈앞에는 지난 10월 평양제1백화점에서 진행된 《전국신발전시회—2018》의 날들이 삼삼히 떠올랐다.

참관자들로 련일 초만원을 이룬 전시회에서 최고의 인기를 모은 곳은 원산구두공장전시대였다.

전시대에 구름처럼 몰려와 저저마다 공장에서 생산한 《매봉산》신발을 손에 들고 웃음꽃을 피우던 사람들,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느라 무던히도 진땀을 빼던 봉사원들…

생각할수록 지방의 크지 않은 공장을 온 나라에 소문난 구두공장으로, 나라의 신발공업을 주도하는 맏아들공장으로 전변시켜주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울이신 로고와 심혈이 가슴그득히 안겨왔다.

공장을 처음으로 찾으시였던 그날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자욱이 새겨진 원산구두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멋쟁이공장으로 꾸린 다음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그날 종업원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기 위해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시고 설계와 시공, 자재보장에 이르기까지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직접 풀어주시였다.

짧은 기간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우리 나라 신발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그 면모를 완전히 일신한 원산구두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 원산구두공장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이 꾸려놓고보니 위대한 장군님께 이렇게 희한하게 개건된 공장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픔이 가슴을 허빈다고, 장군님께서 이곳을 돌아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절절히 되뇌이시였다.

그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질좋고 맵시있는 신발을 안겨주시려 여러차례에 걸쳐 이 공장에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였다.

못 잊을 그 나날들이 어제런듯 생생한데 이렇게 공장을 또다시 찾아오시여 자신의 로고는 묻어두시고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니 공장일군들의 감격은

이루 헤아릴수 없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앞으로도 인민들의 엄정한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년령별, 계절별, 직종별특성에 맞게 기호를 파고들어 남녀로소모두가 좋아하고 먼저 찾는 신발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진정 온 나라에 소문이 자자한 원산구두공장은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만로고가 사무치게 안겨오는 곳이다.

◎ 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장

주체105(2016)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일떠선 룡악산비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사시절 수정처럼 맑은 물이 흘러나오고 경치가 아름다와 예로부터 평양의 금강산으로 불리워온 룡악산기슭의 풍치수려한 명당자리에 멋지게 솟아오른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결정체인 룡악산비누공장.

연건축면적이 1만 8 400여㎡에 달하고 자동화, 무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공장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존안에는 기쁨의 미소가 넘쳐흐르고있었다.

건설장을 돌아보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불과 몇달사이에 규모

가 대단히 큰 현대적인 공장이 멋들어지게 완공되였다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장이 또 하나 일떠섰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며 그이께서는 생산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샴푸, 린스, 그릇세척제, 가루비누를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들이 그득히 쌓여있다고, 볼수록 흐뭇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룡악산비누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물비누와 세척제를 받아안고 좋아할 인민들을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쌓였던 피로가 풀린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두고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인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불같으시였으면 공장이 완공된 오늘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현대적인 비누공장을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된것을 두고 그리도 기뻐하시랴.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는 공장일군들의 눈굽은 젖어들었다. 그들모두에게는 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장이라고 하시며 현대적인 비누공장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주시기 위해 바치신 그이의 로고가 뜨겁게 되새겨졌다.

2003년 8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다 물비누를 쓰는것이 추세라고 하시면서 한두방울만 손바닥에 떨구고 비벼도 거품이 잘 나고 쓰기 좋은 물비누를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못 잊을 력사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기신 유훈을

마음속깊이에 새겨두시고 그 관철을 위해 늘 마음써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룡악산기슭에 공장부지를 잡도록 하시고 공장의 명칭도 《룡악산비누공장》으로 명명해주시였다.

룡악산!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력력히 어려오고 흘러내리는 내물에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헌신과 로고가 사무치게 안겨드는 인민의 명산이다.

이민위천의 그 념원을 이 땅우에 더욱 만발하게 꽃피우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룡악산비누공장이라고 정을 담아 명명해주신것이였다.

공사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설 때인 2016년 6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그이께서는 건설현장을 찾으시였다.

만족하신 시선으로 건설장을 부감하시던 그이께서는 공장의 설계를 비준하여 내려보낸지 몇달 안되는데 벌써 건축물들의 내부마감공사를 하고있다고 조용히 뇌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현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도 공장건설이 빨리 진척되는것이 그리도 만족하신듯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일군들도 그이의 쌓이고쌓인 피로를 잠시나마 풀어드린것 같아 기쁨으로 설레였다.

그러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물비누생산과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되뇌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 공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장이라고, 우리 당이 완공을 기다리는 공장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창건기념일까지 현대적인 공장으로 훌륭히 일떠세울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일군들은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심장으로 불러보았다.

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장!

바로 여기에 인민들이 바라는것이라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을 위한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실한것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세계가 비껴있었다.

바로 여기에 이 땅우에 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창조물들을 무수히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하게 하시려는 절세위인의 웅지, 드팀없는 결심과 의지가 담겨져있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건설장의 다른 곳으로 또다시 걸음을 옮기시였다. …

완공된 공장의 요소요소를 다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공장전경을 다시 바라보시였다.

그이의 존안에 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또 하나의 공장,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한 또 하나의 창조물을 일떠세웠다는 무한한 행복감이 흐르고있었다.

◎ 김치공업화의 새 력사

김치, 그 이름만 들어도 민족의 향취가 물씬 풍겨오고 감미로운 체험과 생활의 단면을 줄줄이 떠올리게 되는 우리 인민이다.

우리 민족의 식생활에서 떼여낼수 없는 그 김치를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맛좋은 김치를 맛보게 하시려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은 여기 류경김치공장에 뜨겁게 깃들어있다.

주체105(2016)년 6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류경김치공장을 찾으시였다.

아직은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일터에 나오지 않은 이른 아침에 원수님께서 공장을 찾으실줄은 누구도 몰랐다.

인민들에게 공업적방법으로 만든 맛좋은 김치를 안겨주는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시였으면 온 나라 일을 돌보시는 그 바쁜 속에서도 이른아침시간에 공장의 주인들보다 먼저 김치공장을 찾으시였으랴.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훌륭하게 건설된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류경김치공장이 건설됨으로써 김치생산의 공업화를 위해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또 하나 관철하게

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치생산의 공업화!

인민들의 식생활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노력해오신중의 하나가 김치생산의 공업화문제일것이다.

수령님들의 유훈을 언제나 가슴에 새겨안으시고 김치에 대한 자료들도 보내주시고 김치공장건설을 빨리 끝낼데 대하여 여러차례 가르치심을 주시였을뿐만아니라 공장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풀어주시고도 멋진 김치공장이 일떠선 오늘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공정 및 설비들의 기술적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드넓은 건물안을 꽉 채운 통김치생산공정, 깍두기생산공정, 장절임생산공정은 자동화, 흐름선화되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생산공정을 이루는 현대적인 설비들이 모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것이라는데 대하여 더없이 만족해하시면서 당의 국산화방침관철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생산공정의 그 어느 하나도 무심히 대하지 않으시였고

천리혜안의 통찰력과 높으신 과학적식견, 해박하신 지식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고추의 색갈, 김치의 맛과 냄새에 이르기까지 관심하신 그이이시였다.

양념공정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치양념은 아직도 세계적으로 손으로 한다고 하시며 이 공정은 김치의 맛과 관련되므로 모든 생산공정을 흐름선화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손으로 양념을 발라야 한다고 명백히 가르쳐주시였다.

원료투입공정에서 원료운반을 완전히 자동화할데 대한 문제, 발효실ㅡ포장실ㅡ숙성실로 되여있던 생산공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바로잡을데 대한 문제, 가공한 양념을 다음 공정에 넘기는 작업마저 자동화할데 대한 문제, 생산현장의 위생안전성 보장과 통풍체계를 더욱 완비할데 대한 문제…

설계자, 시공자들도, 운영자들도 미처 느끼지도 못한 생산공정의 불합리한 개소들을 즉석에서 꿰뚫어보시고 명쾌한 해결대책을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그것은 진정 사랑이였다.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제기하실수 있는 김치공업화에 대한 높은 요구성이였다.

그로부터 몇달후.

또다시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자동화, 흐름선화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실현된

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시면서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문명수준에 맞게 김치를 맛있게 만드는것은 민족음식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민족전통음식이며 세계5대건강식품으로 유명해진 김치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식품으로 당당히 자랑할수 있게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치공업화의 새 력사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민족의 자랑인 김치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식품으로 만들어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온 나라 도처에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김치공장들이 현대적으로 일떠서고 인민들이 그 덕을 보고있다.

◎ 제때에 고쳐주신 위생안전성문제

주체103(2014)년 8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갈마식료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일 관심하신 문제들중의 하나가 식료품의 위생안전성문제였다.

공장의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며 종합조종실에 이르신 그이께서 콤퓨터현시판에 나오는 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보아주실 때였다.

한참동안 현시판을 통해 작업공정을 주시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식료가공에서는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하시며 모든 가공공들에게 1회용장갑을 끼게 하고 위생안전상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시선이 일시에 그이께서 보시는 현시판으로 쏠리였다.

물고기가공에 여념이 없는 로동자들이 모두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그것은 1회용장갑이 아니였다.

관계부문의 지도일군들은 물론 수시로 현장에 드나드는 공장일군들조차 이에 낯을 돌리지 못했다. 아니, 그것이 위생안전성에 크게 저애된다는데 대해서 알지 못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생산공정에서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종합조종실에서 나오시였다.

그이께서는 1차가공실에 들어가시여 물고기해동기 1호앞을 지나 흐름선을 따라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보시다가 물고기비늘제거기앞에서 일하고있는 한 로동자의 모습에서 눈길을 멈추시였다.

그이를 뒤따르던 일군들도 의아해하며 주춤거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보시며 물고기를 가공하는 로동자가 실내화를 신었는데 식료가공공장 로동자가 장화를 신지 않고 실내화를 신고 일하는것은 잘못되였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적의 말씀은 계속되였다.

그이께서는 가공공정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다가 위생통과실앞에 있는 랭온풍기앞에 이르시여 1차가공실에 랭온풍기가 설치되여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공기에 의하여서도 가공실안의 공기가 오염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이 문제 역시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식료가공공장들에서는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얼마나 인민들의 건강을 첫째가는 중대사로 내세우셨으면 식료품 하나하나의 위생안전성문제를 두고 거듭거듭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랴.

그이께서 떠나가신 후 위생안전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은 제때에 고쳐졌다.

그 결과로 갈마식료공장은 질좋고 위생안전성이 담보된 여러가지 맛좋은 식료품들을 생산해내는 동해의 현대적인 수산물가공기지로 당당히 자랑떨치게 되였다.

◎ 몸소 규정해주신 필수소비품

언제인가 평양양말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품견본실에 들리시였을 때의 일이다.

제품견본실에서 여러가지 양말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그이께서는 전해 양말생산계획수행정형을 알아보신 다음 양말을 피복공업에서 무엇이라고 규정해야 하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이의 물으심에 누구 하나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양말이 옷차림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딱히 규정지어놓은것은 없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잠잠해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확정적인 어조로 양말은 필수소비품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필수소비품!

그이의 말씀은 짧았으나 남긴 여운은 참으로 컸다.

필수소비품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개인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지금껏 양말은 일반적인 대중소비품으로 인식되여있었다.

그런 양말을 필수소비품으로 규정해주심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양말의 중요성을 그 한마디에 다 담아 일군들을 깨우쳐주신것이다.

인민들이 사용할 양말 하나에도 그처럼 의의를 부여하시며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로고속에 오늘 평양양말공장은 만부하의 동음 높이 울리며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 또 하나의 재부가 마련되였다고 하시며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걷고걸으신 절세위인의 사랑의 발자취는 평양메기공장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주체104(2015)년 10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평양메기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볼수록 희한한 멋쟁이공장,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재부가 마련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메기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던 공장중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시고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오신 장군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난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돌이켜보면 친히 메기공장건설을 발기하시고 명당자리에 공장터전도 잡아주시였으며 어느해 설명절에는 메기공장건설을 두고 깊이 마음쓰시며 필요한 자재보장대책까지 세워주시고 뜻깊은 탄생일에도 메기공장을 빨리 질적으로 건설하

여 인민들이 메기탕을 먹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신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공장건설이 완공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그리도 기뻐하시며 《평양메기공장》이라고 이름도 지어주시고 공장에서 생산한 메기가 고스란히 수도시민들에게 가닿도록 친히 공급안까지 짜주신분, 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생산을 더 늘이기 위한 과업과 방도도 일일이 가르쳐주신 우리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을 떠나 오늘의 멋쟁이공장을 어찌 생각할수 있으랴.

어버이장군님의 그 모습으로 메기공장을 찾으시여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크나큰 감동에 휩싸였다.

바로 한해전의 12월에도 이곳을 찾으시여 앞으로 높은 메기생산실적으로 인민들의 식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고, 우리모두 그날을 앞당겨가자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그이이시였다.

그러시고도 이렇게 또다시 공장을 찾으시여 야외못들에서 욱실거리고있는 메기들과 랭동고마다에 산같이 쌓여있는 랭동메기를 보시면서 그이께서는 커가는 인민의 행복을 그려보시는듯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어느곳을 보아도 흠잡을데가 없고 만점짜리인 평양메기공장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앞날을 락관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것도 얼마든지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요즘은 찾아가는 곳마다에서 자랑스러운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들을 보게 되니 이런 기쁜 일을 보기 위해 일하고있으며 이런 멋에 힘겨워도 혁명을 하고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씀하시였다.

오로지 인민을 위해 열렬한 사랑과 헌신의 자욱을 이어가시며 인민의 기쁨에서 더없는 보람과 락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한없이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사랑의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무한한 격정으로 설레였다.

◎ 버섯의 나라로

주체106(2017)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버섯공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료투입으로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놓은 결과 자동화, 흐름선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생산공정들을 일일이 돌아보시였다.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능력이 큰 버섯생산기지,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가 마련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시종 만족한 웃음을 짓고계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쩌릿이 젖어들었다.

세상에는 오랜 버섯재배력사를 자랑하는 나라들이 있다.

하지만 버섯재배를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시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쉬임없는 헌신과 로고의 길을 걸은 령도자가 있었던가.

감동에 젖어있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려는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맛있고 영양가높은 버섯을 인민들에게 더 많이 먹이시려고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원수님께서 바쳐오신 심혈과 로고가 가슴뜨겁게 되새겨졌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버섯연구기지를 일떠세워주시여 튼튼한 과학연구 및 보급기지를 마련해주신분도, 조국땅 방방곡곡에 크고작은 현대적인 버섯공장들을 건설하도록 해주시고 버섯생산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주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여기 버섯공장만 해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위치도 몸소 잡아주시였으며 강력한 설계 및 시공력량을 파견해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인민들의 식탁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시려는 원수님의 념원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하시였으면 알곡부산물을 적게 쓰면서도 사시절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여러가지 버섯품종을 재배할수 있게 생산공정을 꾸리며 통합생산체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구축할데 대한 문제 등 공장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깊이 마음쓰시였으랴.

진정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과 정을 지니시고 인민생활향상에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자욱이 있어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쯘히 갖춘 버섯생산기지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인민들이 그 덕을 보고있는것이다.

◎ 평양을 대표하는 인민봉사기지

수도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는 또 하나의 사회주의 선경으로 솟아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 있다.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써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다심한 은정과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또 하나의 특색있는 급양봉사기지이다.

주체107(2018)년 6월 어느날,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 은근하면서도 세련된 불장식으로 강반의 짙어가는 어둠을 황홀하게 밝히고있던 그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식당을 찾아주시였다.

식당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당 부문에서 올린 식당건설자료를 보고 설계와 시공을 잘했다고 평가하였는데 실지 와보니 정말 멋있고 특색있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며 몸소 식당이름을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라고 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식당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머지않아 모든것이 독특하고 정교하며 아름답게 꾸려진 이 훌륭한 봉사기지에서 펄펄 뛰는 물고기로 만든 료리를 맛보며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될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르시는 곳마다에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생각하면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과 같이 또 하나의 인민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설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념원대로 평양시에 물고기식당을 하나 크게 잘 꾸려놓고 수도시민들에게 사철 펄펄 뛰는 물고기로 만든 료리도 봉사해주고 산 물고기도 팔아주도록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그 진척정형도 알아보시고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 식당부지도 큼직하게 잡아주시였으며 수산물식당을 세계적수준에서 손색없이 건설하도록 군인건설자들도 보내주시고 식당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형성안들도 하나하나 지도해주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앞으로 식당을 운영하는데서 제기되는 원자재보장대책을 세우고 수준있는 료리사들을 선발하기 위한 사업도 예견성있게 진행해나갈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사철 우리 인민들이 펄펄 뛰는 물고기

로 만든 료리와 수산물가공품들을 맛보게 하시려 바쳐오신 자신의 로고는 다 묻어두시고 군인건설자들이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또 한가지 해놓은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옥류관과 같이 평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인민봉사기지가 태여났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평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인민봉사기지!

그이의 말씀을 새겨듣노라니 일군들의 뇌리에 갈마드는 생각이 있었다.

예로부터 천하의 절경으로 이름난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는 로동당시대를 대표하는 창조물들이 많다.

자연이 준 경치에 위대한 시대가 꽃피운 절경이 합쳐져 더더욱 아름다워지는 대동강과 더불어 옥류관과 함께 평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인민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정녕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대한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 멋쟁이백화점

시대의 미감에 맞게 훌륭히 개건된 대성백화점은 날마다 손님들로 흥성이고있다.

이곳을 찾은 수많은 외국인들은 감동된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였다.

정말 깜짝 놀랐다.

실로 현대적이며 멋있고 훌륭하다고밖에 달리는 말할수 없다. 오고 또 오고싶은 곳이다.

이것은 단순히 백화점의 현대미나 건축미, 상품들의 가지수와 품질만을 념두에 둔 찬탄이 아니다. 사는 곳도, 정견과 신앙도 다른 그들이 누구나 진정으로 감동되여 놀라는것은 평범한 각계층 인민들이 스스럼없이 들어서는 모습이며 진정한 향유자로 된 인민이 터치는 꾸밈없는 웃음소리이다. 그 모든것을 한 나라의 위대한 령도자께서 품들여 마련하여 주시였다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개업을 앞둔 대성백화점을 찾아주신 날은 주체108(2019)년 4월의 어느 일요일이였다.

백화점으로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안에는 시종 미소가 어려있었다.

그이께서는 우리가 만든 식료품들을 보기만 하여도 흐뭇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식료공장들에서 생산하는 식료품의 질과 포장이 세계적수준이라고, 우리 식료품이 많이 발전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화점의 어디서나 제일먼저 관심하신것은 우리의것, 우리의 제품이였다.

지은옷매대에 가시여서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지은옷들을 먼저 살펴보시였고 학용품매대에서는 민들레학습장도 있다고 기뻐하시였다. 화장품매대에서는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한 화장품의 수준이 올라갔다고 치하해주시였다. 해당 부문 일군들이 상업봉사망을 꾸릴 때 대성백화점에 설치한 진렬대들을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그이께서 강조하신것은 진렬대도 우리 식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이였다.

이르시는 곳마다에서 그이께서 항상 마음쓰신것이 있었다.

랭동고기식품매대에서 먼저 헤아리신것은 인민들의 식생활에 리용될 랭동제품의 온도가 잘 보장되는가 하는것이였다. 일용잡화매대에 이르시여 그이께서 평가해주신것도 손님들이 필요한것을 쉽게 찾을수 있게 상품을 품종별로 진렬대에 걸어놓는 식으로 진렬해놓은것이였다.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상품포장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잘 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꽃은 묶음으로 포장해주어야 한다

는데 대하여서까지 세세히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실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인민들이 좋아하겠는가, 인민들의 편의보장을 선차로 놓았는가, 인민들의 문명생활에 이바지되는가 하는것으로 일관되여있었다.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종합적인 상업봉사기지를 안겨주게 되신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성백화점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정말 멋쟁이백화점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멋쟁이백화점!

그이의 말씀을 새겨듣노라니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될 현대적인 백화점을 마련해주시려 그이께서 지새우신 무수한 낮과 밤이 뜨겁게 되새겨졌다.

진렬대 하나, 타일 하나도 무심히 대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사만사로 바쁘신 속에서도 백화점의 마크도안으로부터 불장식형성, 가구비품과 직관물의 제작 및 배치, 설비와 원자재보장으로부터 설계와 도안창작의 선행에 이르기까지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2018년이 다 저물어가던 마지막 일요일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화점의 상품보장문제로부터 지열에 의한 랭난방체계에 이르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를 속속들이 풀어주시였다.

진정 대성백화점은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영광의 그날을 격정속에 돌이켜보며 지배인은 이렇게 토로하였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우리 원수님께서 바치신 그 2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였는지 그때는 미처 다 몰랐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엔 인민만 꽉 차있다는것을 저는 말이나 글이 아니라 온몸으로 절감했습니다.》

◎ 평가의 기준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북방의 한 기업소를 찾으시였다.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 제품전시장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품평가의 기준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시기에는 이런 제품을 만들자면 많은 로력과 자재, 시간이 필요했겠는데 지금은 적은 로력을 가지고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다량생산하니 대단한 기술혁신이라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그러시다가 문득 실지 사용자들의 반영이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것과 어느 한 단위의 일군이 찾아와 제품을 보고 몹시 감동되여 돌아갔다는 사실까지 덧붙여 그이께 자랑삼아 말씀드리였다.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보기에도 좋은것 같다고 하시면서 쓸 사람들이 좋다면 그것은 좋은것이라고 다시금 평가하시였다.

쓸 사람들이 좋다면 좋은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신 쓸 사람들이란 다름아닌 인민들이였다.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제품의 평가기준은 인민들이 좋아하면 좋은 제품으로 되지만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좋은 제품으로 될수 없다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제품평가기준은 이렇듯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인민생활향상의 주요전구들을 찾으시여서 우리 인민의 지향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먼저 따져보시고 철저히 인민들의 감정과 지향에 맞는 제품들을 생산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계신다.

참으로 새기면 새길수록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첫자리

에 놓으시고 그들의 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것을 보고 평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 철저한 인민관이 가슴뿌듯이 느껴와 일군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 수 없었다.

◎ 행복의 웃음이 차넘치는 류경원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류경원은 인민들속에 너무도 친숙해진 곳이다.

인민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후생시설로 훌륭히 일떠선 이곳으로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필요에 따르는 여러가지 봉사를 받고 젊어진 모습으로 기쁨과 활기에 넘쳐 정문을 나서군 한다.

류경원이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정답게 자리잡게 된것은 과연 언제부터였던가.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해마다 7월 말경이면 우리 나라에서는 삼복중에서도 가장 무덥기로 알려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단계에 이른 류경원을 또다

시 찾아주신 주체101(2012)년 7월의 그날도 바로 대지를 찌물쿠는 삼복의 하루였다.

완공전야의 류경원은 자기의 특성을 완연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현관홀에서 만족한 시선으로 내부를 둘러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류경원건설장을 찾아와 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듣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동안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한 일군이 중앙홀을 휴식홀로 꾸리려고 한다고 말씀드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류경원은 극장이 아니므로 중앙홀에 주단을 깔기는 곤난하다고, 자신의 생각에는 이 공간에 기단을 형성하고 돌로 조각 같은것을 만들어놓은 다음 매대를 꾸려놓고 손님들에게 청량음료 같은것을 봉사해주면 좋을것이라고, 이 홀은 휴식홀인것만큼 여기에 반드시 의자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구체적인 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창조물을 훌륭히 일떠세워주시려 깊이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한증칸에도 몸소 들어가보시였다.

건식한증칸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뜨거운 열풍도 아랑곳않으시고 한증칸을 둘러막은 유리벽체도 만져보시며 열손실을 막을수 있는 방도를 세심히 일러주기도 하시고 물소

독과 려과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도 하시였다.

그뿐이 아니다.

2층에 있는 소금한증칸과 소나무한증칸, 종유석한증칸을 차례로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한증을 편안하게 앉아서 할수 있게 의자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였다.

그 무엇을 하나 보시여도 인민들의 편의와 건강을 위해 누구보다 마음쓰시며 형식보다 내용을 첫째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에 일군들의 가슴은 뭉클 젖어들었다.

더우기 그이께서 누구나 무심히 스쳐지나치던 리발실의 소독수와 가족목욕탕 접수칸벽에 게시된 목욕탕리용질서 알림판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부족점들을 일깨워주시며 해결방도를 가르쳐주실 때 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은 우리 인민모두의 꿈을 아름답게 꽃피워주는 따뜻한 해빛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류경원건설장을 떠나시기에 앞서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이렇게 당부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완공되는 날까지 일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선물인 류경원을 손색없이 꾸려 류경원이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인민의 참된 봉사기지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

인민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서의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 뜨거운 사랑과 정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을 위한 일에 만족을 모르시며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인민의 모든 꿈 이루어질 문명국의 래일은 반드시 앞당겨질것이라는 확신이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더욱 자리잡았다.

운영준비도 빈틈없이

주체101(2012)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준공을 앞둔 류경원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원하면서도 깨끗하게 꾸려진 복도를 지나 휴식홀에 들어서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은 그해 7월에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말씀을 높이 받들고 휴식홀의 넓은 공간에 인민들이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낼수 있도록 꽃장식도 아름답게 하고 원형의자도 특색있게 설치해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의자에 앉아도 보시고 바닥도 자세히

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고급목재로 바닥처리를 더 잘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에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이이시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치료체육실에 들리시여서는 여러가지 운동기재들을 보아주시였으며 당에서 마련해준 자외선침대의 설치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시고 대중탕욕조의 물온도도 가늠해보시고 덕수의 수감부가 잘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랭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목욕과 한증을 하고나면 땀구멍이 열리는데 랭욕을 해야 땀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랭실의 온도를 잘 보장해주어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류경원의 요소요소들을 다 돌아보시면서 세심하고도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일군들은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문화후생시설을 위하여 그리도 마음쓰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눈굽을 적시였다.

준공식을 하면 곧 봉사할수 있게 준비가 다되였다는 일군의 보고를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류경원에서 봉사를 시작하면 인민들이 많이 찾아올것이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아마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인민들의 호평이 더 좋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봉사조직과 운영을 짜고들어 올해 겨울철에 운영을 잘해보아야 하겠다고, 그렇게 하여 인민들이 겨울철에 류경원의 덕을 단단히 보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류경원에서 우리 인민들이 한겨울에도 문명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할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당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오늘 류경원을 돌아보니 대단히 만족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류경원운영과 봉사를 잘하여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서의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또다시 당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주신 사랑 부족하신듯 오래도록 류경원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였다.

인민들이 리용하는 모든것을 최상의 수준으로 꾸려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격정의 웨침이 울려나왔다.

(진정 류경원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뜻에 떠받들려 훌륭히 일떠선 창조물,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절세위인의 자애로운 어버이사랑의 고귀한 결정체입니다.)

며칠후 류경원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 문명한 생활의 갈피마다에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들의 문명생활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다.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마다에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언제나 최우선, 절대시하시고 인민들이 사소한 불편도 없게 모든것을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한 헌신의 자욱자욱이 뜨겁게 슴배여있다.

새로 설치한 감시대와 치료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단계에 이른 릉라물놀이장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릉라곱등어관, 릉라유희장과 함께 멋들어지게 건설된 릉라물놀이장은 바라볼수록 장관이였다.

넓고 시원하게 펼쳐진 물놀이수조들과 물미끄럼대, 조약대들, 탈의실과 그 지붕우에 꾸려진 모래터배구장, 롱구장, 배구장들, 푸른 주단을 펼친듯 한 인공잔디밭…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우에 뜬 꽃바구니처럼 아름다운 릉라도가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전변된것이 무척 기쁘신듯

환히 웃으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앞에는 릉라물놀이장을 훌륭히 꾸려주시기 위해 마음써오신 원수님의 로고와 헌신의 그 나날들이 뜨겁게 어려왔다.

아직 채 조립되지 않아 삐걱거리는 물미끄럼대의 높은 정점에까지 오르시여 물놀이장에 조약대와 수조도 더 건설하고 모래터배구장과 롱구장, 배구장도 만들어놓을데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면서 릉라물놀이장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려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원수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현장에 나오시여 날리는 흙먼지도 아랑곳않으시고 자신께서 구상하신것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주기도 하시고 물미끄럼대에 빛수감장치를 설치하여 성미가 급한 사람들이 먼저 내려간 사람과 부딪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다정히 일깨워주기도 하시였다.

물놀이장에 있는 V자형조약대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들의 기상에도 맞고 재미있게 생겼다고 하시며 몸소 선정하여 보내주신것이였다.

참으로 릉라물놀이장은 만점짜리 다기능물놀이장, 세계적 수준이라고 할만 한 야외물놀이장이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훌륭하게 일떠선 물놀이장의 여기저기를 주의깊게 둘러보시다가 일군들에게

혹시 사고라도 생기면 즉시에 발견하여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감시대와 치료실을 설치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훌륭한 멋쟁이물놀이장을 마련해주시고 사소한 사고라도 생길세라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들은 그이의 안녕을 그토록 바라건만 오히려 인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으니 일군들은 걸음걸음마다 뜨거워오르는 격정을 누를수 없었다.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속에 릉라물놀이장에는 특색있게 만들어진 감시대며 현대적인 구급치료실이 마련되였다.

일군들이 받은 《특별봉사》

문수물놀이장이 준공을 앞두고있던 어느날이였다.

문수물놀이장에 이채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일반시민들이 아니라 인민의 심부름군인 일군들이 물놀이에 여념이 없었던것이다.

놀라운 일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사랑의 선물인 문수물놀이장이 준공식도 하지 않은 때에 어떻게 되여 일군들이 인민들보다 먼저 봉사를 받게 되였는지.

여기에는 감동깊은 사연이 있다.

주체102(2013)년 10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문수물놀이장이 완공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점심무렵 일군들과 함께 그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실내물놀이장과 야외물놀이장을 돌아보니 정말 희한하다고 하시며 설계도 잘하고 군인건설자들이 시공도 참 잘하였다고 거듭 평가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후에는 일군들을 위한 봉사를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준공식도 하지 않은 때에 일군들이 봉사를 받게 되였다.

현대적인 설비들이 갖추어진 물놀이장에서 그들은 물미끄럼대에도 오르고 파도타기도 즐기면서 기쁨을 한껏 맛보았다.

그러한 때에 또다시 문수물놀이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의 물놀이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시였다.

잠시후 물미끄럼대의 이음짬을 찬찬히 살펴보시던 원수님께서는 물미끄럼대이음부위를 잘 처리해서 인민들이 절대로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둘러선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이 리용할 때 상하지 않게 이음짬들이 제대로 되였는지 잘 보라고 오늘 일군들을 먼저 태워보는것이다. …

그제서야 동행한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심깊은 뜻을 알게 되였다.

인민들이 리용할 물놀이장의 안전상태가 걱정되시여 하루에 만도 두차례나 물놀이장을 찾으시고 또 이렇게 류다른 봉사까지 조직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며칠후 문수물놀이장은 준공되였다.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솟아난 문수물놀이장에서는 인민들의 랑만에 넘친 행복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르고 울려나왔다. 하지만 그들이 어찌 알수 있었으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의 그 밝은 웃음을 위해 얼마나 다심하신 어버이의 사랑과 정을 기울이시였는지.

원형거울과 당반식책장

주체102(2013)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완공을 앞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돌아보시였다.

당시 건설자들은 비상한 속도로 짧은 기간에 방대한 건설과제를 수행하고 가구설치를 비롯한 마무리작업을 하고있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 살림집들의 구석구석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교육자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깊이 마음쓰시였다.

그이께서 살림집의 방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복도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한동안 한 벽면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

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생활에 편리하게 복도벽면에는 원형거울도 달아주자고 말씀하시였다.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한 말씀이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중요대상들에 많은 품을 들여야 하는 속에서 이처럼 훌륭한 살림집을 지어주는것만도 놀라운 일인데 가구일식과 액정TV는 물론 복도벽면의 원형거울에 이르기까지 교육자들의 생활상편리를 위해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느 한 집의 서재에도 들리시였다.

책상앞에 앉아보신 원수님께서는 뒤벽면의 큰 책장과 책상이 붙어있는 앞벽면을 번갈아 바라보시다가 앞벽면을 가리키시며 여기에 당반을 설치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교원, 연구사들이 집에 들어와서도 교수준비와 연구사업을 하다가 뒤에 있는 큰 책장에 가서 책을 가져오는것보다 늘쌍 보는 책들은 당반에 놓고 보는것이 더 편리할것이라고 하시며 당반식책장의 형성안을 그날중으로 빨리 완성하여 보고할데 대하여 일군들에게 이르시였다.

이번에 해보고 좋으면 앞으로 살림집들을 설계할 때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가슴뜨거워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사실상 앞벽면에 붙어있는 책상에서 뒤벽면의 큰 책장까지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으므로 교원, 연구사들이 필요한 책을

꺼내는데 소모되는 시간은 매우 짧았다.

하지만 집주인인 교원, 연구사들의 사색이 잠시라도 중단될가봐 념려하시며 그렇듯 다심하게 일깨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후날 당반식책장이 완성되여 설치되였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다시 책상앞에 앉으시고 책장을 만져보시며 편리성을 가늠해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이렇게 책을 꽂아놓을수 있는 당반을 설치하니 얼마나 쓰기 편리한가고 하시며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의 복도벽면 원형거울과 당반식책장, 그것은 교원, 연구사들에게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한가지라도 더 마련해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신 경애하는 그이의 친어버이사랑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강조하신 문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개점을 앞둔 미래상점을 찾아주시였을 때의 일이다.

갖가지 상품들이 매대마다 가득찬 상점을 둘러보시며 그이께서는 상점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업적에 대해 뜨겁게 되새기시였다.

먼저 가정용품매대를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일용품매대에서 《코스모스》머리빈침들도 보아주시고 걸음을 옮기시다가 문득 멈추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용잡화매대에 있는 안경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왔는데 다시 가보자고 하시며 안경진렬대앞으로 되돌아가시였다.

각종 색안경과 도수안경이 일매지게 꽂혀있는 진렬대앞에서 검은색안경을 뽑으시던 그이의 안광에 엷은 그늘이 얼핏 스치였다.

영문을 몰라하는 일군들을 바라보신 그이께서는 안경진렬대가 안경을 뽑기 불편하게 되여있다고, 안경진렬대는 빙빙 돌아가게 만들어놓아야 손님들이 안경을 고르기 더 편리할것이라고 타이르듯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색안경을 끼여보시며 어디서 거울을 볼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가까이에 있던 판매원이 기호품매대에 있는 거울을 가져다드리자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보자는것이 아니라 안경을 파는 매대에는 거울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손님들이 안경을 낀 자기의 모습을 볼수 있다고 일군들을 깨우쳐주시였다.

상점일군들은 머리를 들수 없었다.

안경매대에 거울이 있어야 한다는것쯤은 왜 생각을 못했을가.

희한하게 꾸려진 상점에 만족하여 상품을 리용하는 손님들

의 편의에 대해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한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필기도구매대에서 원주필을 써보시면서 손님들이 그것을 써볼수 있도록 종이를 놓아주도록 하시였고 화장품매대에서 향수들을 팔아줄 때 냄새를 맡아볼수 있게 작은 숟가락같이 생긴 종이를 꼭 놓아주라고 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사람들은 흔히 향수를 손에 쳐서 냄새를 가늠해보는데 한 향수를 쳐서 냄새를 맡아본 다음 다른 향수를 치면 냄새가 범벅이되기때문에 어느 향수가 좋은지 가려내기 힘들것이라고, 그러니 종이숟가락을 놓아주어 거기에 향수를 쳐서 냄새를 맡아보게 해야 한다고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인민들의 편의를 위해 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누구도 생각지 못한 그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이처럼 상점을 돌아보시며 일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봉사활동의 빈구석들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시였다.

옷걸이가 달린 의자

건설중에 있는 릉라물놀이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탈의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물놀이장에 들어가거나 나와서 옷을 갈아입을 때 리용하는 옷보관함들과 옷걸이가 달린 의자들이

규모있게 놓여있었다.

한동안 방의 내부를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옷걸이가 달린 의자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인민들이 쓸것인데 제일 좋은것으로 마련해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후더워지는 마음으로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머리속에는 며칠전에 있었던 가슴뜨거운 일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날 물놀이장의 건설정형을 료해하시기 위해 현지에 나오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때에도 이곳 탈의실에 들리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은 그만하면 탈의실이 나무랄데 없이 꾸려졌다고 만족하게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방의 이모저모를 주의깊게 살피시며 시선을 떼지 못하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여기에 옷걸이가 달린 의자를 놓아주자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수첩에 그림까지 그려가시며 이렇게 옷걸이가 달린 량면의자를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서로 등을 돌려대고 앉아 양말도 신을수 있고 옷걸이에 옷을 걸어놓을수 있기때문에 편리할뿐아니라 탈의실의 면적리용률을 높일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탈의실을 인민들이 리용하는데 보다 편리하게 꾸려주시려고 친히 그림까지 그려주시며 일일이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누구나 잠간 머무르는 탈의실이지만 옷보관함들과 함께 옷걸이가 달린 의자까지 놓아주어 이곳을 찾는 인민들의 편의를 보다 더 잘 보장해주시려는것이였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곳을 찾으시여 그 의자도 제일 좋은것으로 마련해주자고 하시며 몸소 그를 위한 조치까지 취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인민들이 사회주의문명을 향유하는 모든 곳에서 만복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울려나오도록 하시기 위해 작은 비품하나에도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시며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세찬 격정으로 설레였다.

그것은 또 한분의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를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였다.

꼭 있어야 할 장소

대동강기슭에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체력단련과 나라의 빙상체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인민야외빙상장이 있다.

경쾌한 파도모양의 지붕아래의 드넓은 공간에 무더운 삼복철에도 녹지 않는 알른알른한 얼음판이 시원하게 펼쳐지고 봉사에 필요한 모든것이 그쯘하게 갖추어진 빙상장에서 평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기쁨과 랑만에 넘쳐 은반우

를 달리고있다.

인민의 이 행복한 웃음을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얼마나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던가.

인민야외빙상장건설이 마감단계에 이르고있던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이곳을 찾아주시였다.

드넓은 빙상홀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양한 빙상체육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낼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환하게 웃으시였다.

사랑하는 우리 인민에게 만복을 누리게 해주시려 언제나 마음쓰시며 현대적인 대중스케트장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토록 완공을 기다려오시던 어버이장군님께 이곳을 보여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은반우에도 활짝 꽃피우고싶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이날 빙상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미흡한 점이 없는가, 인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될 점은 없는가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일군들에게 여기에 스케트날을 갈아주는 장소가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당황하여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인민야외빙상장에는 빙상체육활동에 필요한 모든것들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해온 그들이였다.

하기에 누구도 스케트날을 갈아주는 장소까지는 전혀 생각

을 하지 못하였다.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신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야외빙상장은 대중스케트장이기때문에 스케트를 내주는 곳도 잘 꾸리고 스케트날을 갈아주는 장소도 꼭 있어야 한다고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덕을 입고 활용할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땅에 일떠서는 모든 창조물들에서 바라시는 꼭 있어야 할 장소였다.

바람소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창전거리에 일떠선 초고층아빠트의 맨웃층인 45층살림집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몸소 집주인이 된 심정으로 살림집의 방바닥도 일일이 짚어보시고 부엌에 들어서시여서는 행복한 주부의 모습도 그려보시는듯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베란다에 나서시였다.

아름다운 평양의 전경이 한폭의 그림처럼 한눈에 안겨왔다.

눈앞에 펼쳐진 장쾌한 모습에 동행한 일군들은 한껏 심취되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러한 일군들을 정깊게 둘러보시다가 문득 가볍게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바람소리가 들린다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도 정신을 가다듬고 귀를 강구었다.

과연 창문틈으로 가느다란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일군들은 초고층에서는 바람이 센것이 응당한것이라고 여겼던지라 아무 표정도 없이 창밖으로 펼쳐진 전경만 바라보고있었다.

그러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바람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수 있다고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 호동의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며 다시금 바람 한점 스며들지 않게 창문틀에 바람막이를 잘할데 대하여 거듭거듭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 일떠선 새 거리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을 위한 일에는 작은 문제가 따로 없고 인민들이 좋아하기 전에는 만족을 모르시는 원수님이시기에 알릴가말가 한 작은 바람소리도 그이께서는 스쳐보낼수 없는 큰 문제였던것이다.

일군들은 뜨거워오르는 격정을 안고 이렇게 속삭이였다.

창전거리의 주인들이여, 바람 한점 스며들지 않는 따뜻한 보금자리에 날마다 행복이 찾아들수록 부디 잊지 마시라. **김정은**원수님의 다심한 어버이정이 그대들의 집집마다에 뜨겁게 어려있음을…

◎ 한줄기 샘물에도

먼 옛날부터 경치가 수려하고 아름다우며 특히 물이 좋아 장수자들이 많이 나는 곳으로 널리 알려진 룡악산지구, 풍치 수려한 이곳에 룡악산샘물공장이 그림처럼 자리잡고있다.

기묘한 바위봉우리와 록음짙은 숲으로 신비한 조화를 이룬 여기 룡악산의 청신한 골안에서 장수샘물로 유명한 룡악산샘물이 생산되여 인민들이 그 덕을 보고있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주체105(2016)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룡악산샘물공장을 찾으시였다.

공장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 불타는 일념을 안고 지난 시기에 비해 샘물생산능력을 2배로 늘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한동안 공장일군들을 미덥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룡악산샘물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전변시켰다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인민들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안고 생산

을 계통적으로 늘여나감으로써 질좋은 샘물을 평양시민들에게 공급해주고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의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받아안느라니 공장의 연혁사와 더불어 잊지 못할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룡악산샘물공장은 인민들에게 맛좋고 질좋은 물을 보내주시려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속에 2007년에 조업하였다.

공장이 건설되던 때로 말하면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부족한것이 더 많고 국방력강화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한푼의 자금도 세여 쓰고 얼마간의 세멘트와 철강재도 아껴야 하던 때였다.

하지만 수도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샘물을 먹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우시였으면 공장건설과 관련하여 아낌없는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으랴.

오랜 세월 덧없이 솟아나던 룡악산의 샘물, 주인없던 샘물이 명실공히 수도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인민의 재부로 된것이 얼마나 기쁘시였으면 대한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날 공장을 찾으신 장군님께서 몸소 물맛까지 보아주시였으랴.

이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마시게 될 샘물의 맛까지 친히 보아주시던 우리 장군님처럼 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간직

하고 일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생산공정을 돌아보실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종일관하게 강조하신 문제는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간직할데 대한 문제, 인민들이 마시게 될 샘물제품의 무균화를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 숭고한 인민관으로 일관된 뜻깊은 가르치심이였다.

그이께서는 제품보관실에 들리시여서는 통샘물도 들어보시며 무게를 가늠해보시고 제품견본실에 들리시여서는 공장의 일군들도 무심히 대해오던 샘물병의 물높이가 서로 다른데 대해서도 그 원인을 밝혀주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사소한 부족점도 있어서는 안된다는것, 이것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일관된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일군들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보았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전변된 룡악산샘물공장을 마련해주시고도 공장을 찾으시여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에 대하여 절절히 이르시는 그이의 말씀에는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가 실려있었다.

달아오른 마음을 안고 일군들은 이렇게 뇌이였다.

(룡악산의 샘물, 샘터는 룡악산기슭에 있어도 여기에서

솟구쳐오르는 맛좋고 질좋은 샘물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관에 시원을 둔 영원한 사랑의 젖줄기임을 사람들이여, 부디 잊지 마시라.)

수송이 근본문제이다

오늘 수도의 거리거리로는 《룡악산샘물》이라고 큼직하게 새긴 샘물운반용차들이 씽씽 달리고있다.

아마도 사람들은 사랑의 샘물차들을 보며 또 맛좋은 룡악산샘물을 마시면서도 그에 깃든 가슴뜨거운 사연을 다는 모를것이다.

룡악산샘물공장을 찾으시였던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처음 들리신 곳은 통샘물출하직장이였다.

출하장을 꽉 채운 샘물통들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샘물수송을 륙해운성에서 하라고 교시하시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이곳을 찾으시기 전에 공장과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대하여 깊이 료해하신 그이이시였다.

륙해운성에서 샘물수송을 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는 공장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지금 평양시안의 상점들에서 샘물을 얼마나 실어가는가고 물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샘물수송문제가 중요하기때문에 평양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샘물을 륙해운성에서 맡아 수송하도록 하시였다고, 그런데 질좋은 샘물을 생산해놓고도 수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인민들에게 샘물을 공급하지 못하면 안된다고, 륙해운성에서 샘물수송에 동원된 자동차들을 만가동시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의 자책은 컸다. 자기들이 일을 잘하지 못하여 장군님의 유훈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는것은 물론 공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심려만 끼쳐드렸다는 그 생각에 머리를 들수 없었다.

그이께서는 이윽하여 룡악산샘물을 수송하는 사업은 내각에서 맡아보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다음 샘물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동행한 일군이 샘물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는 높다고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샘물운반용자동차가 서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곳으로 가시는 동안에도 하루 샘물생산량이며 샘물의 구성성분에 대해 알아보시고 계절에 구애되지 않고 샘물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에 대하여 밝혀주신 그이께서는 샘물생산장옆에 세워놓은 화물자동차들이 있는 곳

에 이르시였다.

이때 경애하는 원수님께 동행한 일군이 샘물공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화물자동차들을 마련하여 상업망들에 운반해주고 있다고, 바로 그 자동차들이라고 보고드리였다.

공장의 일군들이 긍지에 넘쳐 그이를 우러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애에 넘치신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다가 샘물수송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하겠다고, 샘물공급에서는 수송이 근본문제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수송이 근본문제!

아무리 샘물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려놓고 샘물생산을 많이 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인민들에게 제때에 가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수송은 샘물공급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로 된다는 그이의 가르치심을 일군들은 심장에 새기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생산된 샘물을 상점들에 제때에 실어다주어야 인민들에게 맛좋고 질좋은 샘물을 팔아줄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금 공장에서 샘물운반용자동차를 자체로 들여다 샘물을 실어다주지 못하는 상점들에 실어다주고있다는데 자신께서 그에 대한 문건을 보았다고 하시였다.

공장일군들은 자기들의 자그마한 소행에 대해서도 그이께서 알고계신다는 사실앞에서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시금 공장에서 자체로 마련한

자동차들을 보시다가 이 공장에 샘물운반용자동차를 보내줄데 대하여 말씀하시며 인민들에 대한 샘물공급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즉석에서 풀어주시였다.

룡악산샘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경애하는 그이께서 제일 관심하신 문제의 하나는 이렇듯 생산된 샘물이 인민들에게 제때에 가닿아 그들이 실제적으로 샘물덕을 보게 하는 것이였다.

◎ 금방석과 바늘방석

주체107(2018)년 8월초 어느날 깊은 밤이였다.

례년에 없는 폭염이 계속되던 때여서 밤이라고는 하지만 바깥공기는 여전히 숨막힐듯 더웠다.

그런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의 시운전을 지도하시기 위해 현지에 나오시였다.

그날 낮에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아주시였건만 인민들이 리용하는데 자그마한 부족점이라도 있을세라 또다시 귀중한 시간을 내시였던것이다.

먼저 궤도전차의 시운전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무궤도전차가 있는 곳으로 향하시였다.

한폭의 그림같이 유정하게 안겨드는 무궤도전차를 한동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형의 무궤도전차는 낮에 보아도 멋있고 밤에 보아도 멋있다고 하시며 밝은 미소를 지으시였다. 려객운수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만든것이여서 더더욱 애착을 느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이윽하여 그이를 모신 무궤도전차는 수도의 밤거리를 누비며 기운차게 달리였다.

인민들이 앉을 평범한 좌석에 허물없이 자리를 잡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차의 기술적특성지표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몸소 가늠해보시였다.

소음과 진동은 어느 정도인가, 내부환경과 의장품들의 문화성과 질은 제대로 보장되였는가. …

그 모든것을 료해하고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형의 무궤도전차가 반년전에 만든 무궤도전차보다 질이 월등하게 개선된것은 이 공장 로동자들을 비롯한 수도려객운수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각성하고 분발하여 달라붙었기때문이라고, 우리 로동계급의 창조적지혜와 정신력을 발동시키고 높은 리상과 목표를 내세우고 완강하게 투쟁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제손으로 훌륭한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만들어 출퇴근하는 수도시민들을 금방석에 앉히고 사회주의웃음

소리를 싣고 달리게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가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뭉클 젖어들었다.

누구나 무궤도전차, 궤도전차라고 하면 려객수송을 위한 운수수단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는 얼마나 소중하고 크나큰것으로 간직되여있는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기에, 어떻게 하면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줄수 있겠는가 자나깨나 마음쓰는분이시기에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인민들이 앉게 될 금방석으로 여기시는것이다.

금방석!

그 부름을 조용히 외워보는 일군들의 뇌리에는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하신 말씀이 뜨겁게 되새겨졌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보면 볼수록 수도려객운수부문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당에 대한 열렬한 충정심과 높은 애국심이 깊이 느껴진다고 하시면서 지금처럼 무더운 삼복철이나 추운 겨울에 인민들이 뻐스정류소에 서있는것을 볼 때면 승용차를 타고 가는것이 바늘방석에 앉은것 같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심중을 터놓으시였다.

일군들은 목이 꽉 메여올랐다.

사람들이 뻐스정류소에서 전차를 기다리며 서있는 모습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슴속에 그리도 아프게 자리잡고있은줄 과연 누가 알았던가.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인민의 복리를 위한 훌륭한 재부들을 끊임없이 마련해주시면서도 인민의 사소한 불편도 무겁게 헤아리시며 바늘방석에 앉은것 같다고 하시니 경애하는 원수님은 정녕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우리는 인민들이 하늘의 별을 따달라고 하면 그 별을 따주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이것은 우리 당의 투쟁강령이라고 하시며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생산에 커다란 심혈을 쏟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때로는 일군들의 안목도 틔워주시고 때로는 조립중에 있는 무궤도전차에도 오르시여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오늘에로 이끌어주신 원수님이시다.

정녕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는데서 혁명하는 멋, 인생의 가장 큰 희열을 느끼시는 우리 원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헌신이 낳은 또 하나의 금방석인것이다.

어느덧 무궤도전차의 시운전은 끝났다.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다시금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오늘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새형의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를 타보았는데 대단히 만족하다고, 오늘은 년중 기분이 제일 좋은 날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령도자는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으로 인민을 위한 끝없는 헌신의 강행군길을 재촉하시고 인민은 어버이의 정과 사랑에 떠받들려 만복의 금방석에 앉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 내 조국.

참으로 우리 인민은 얼마나 복받은 인민인가.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에 몸을 싣고 웃음꽃을 활짝 피울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가 그이께서는 수도의 밤거리가 밝아지도록 환히 웃으시였다.

2

어린이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이것은 비단 한 가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해당 나라와 민족, 나아가서 인류의 발전과 미래와 직결되여있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이라 하시며 끝없이 사랑하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어린이들을 그토록 귀여워하시고 그들의 웃음어린 얼굴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 있어서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선차적으로 나서는 제일가는 중대사이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하시며 하나를 주시면 열, 백을 주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넓고 따사로운 품속에서 조국의 미래가 자라고있다.

◎ 어린이식료품에 깃든 사랑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은 이름그대로 어린이들의 식료품들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식료품들은 모두가 명제품으로 되고있으며 특히 애기젖가루와 영양암가루, 콩우유, 콩신젖은 사람들에게서 대단한 호평을 받고있다.

어린이들의 발육과 성장에 필요한 영양성분들이 풍부히 포함되여있으면서 맛에 있어서 세계적수준인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제품들은 그 가지수만 해도 수십가지를 헤아린다.

그 하나하나의 식료품들마다에는 아이들을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며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메고나갈 주인공들로 무럭무럭 키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열화와 같은 미래사랑의 세계가 뜨겁게 어리여있다.

도덕의리에 관한 문제

주체103(2014)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시였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건설을

발기하시고 터전도 잡아주시여 일떠선 공장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콩우유와 애기젖가루, 다시마가루를 비롯한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의 성장발육에 좋은 갖가지 영양식품들을 생산하는 종합적인 어린이식료품생산기지로 강화발전되여온 곳이 바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이다.

하기에 공장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정에 넘쳐계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뜨거운것이 고패쳐올랐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콩우유 하나에도 얼마나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언제인가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 무연한 초원에서 풀을 뜯는 젖소떼를 바라보시며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우유를 마음껏 먹일수 있겠는가를 구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에 돌아오시는 길로 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축산조건이 제한되여있는 나라의 실정에 맞게 콩으로 우유를 만들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조국이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을 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요한 공업기지도 아닌 어린이식료품공장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고 이 공장에만은 원료를 떨구지 말고 보장해주어 생산을 중단없이 진행하도록 온갖 조치를 취해주신 감동깊은 이야기

는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

후대들을 위한 사랑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며 한평생 아이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사적을 감회깊이 회억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안에는 숭엄한 빛이 력력히 비끼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수도의 거리 한복판으로 달리는 콩우유차를 볼 때마다 콩우유를 먹으며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이 안겨와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리는것 같고 그럴수록 수령님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더 잘 받들어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제품견본실, 콩우유가루직장, 영양암가루직장 등을 돌아보시며 그이께서 특별히 중시하신것은 생산정상화와 관련한 문제였다.

사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시기 얼마전에 이 공장에서는 콩우유생산원료가 거의 떨어져가고있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안타까움속에 모대기고있을 때 이러한 실태를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취해주신 은정깊은 조치에 따라 콩우유생산에 필요한 많은 량의 원자재들이 도착하여 공장은 다시 생산의 동음을 기운차게 울릴수 있었다.

하기에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을 단 한순간도

멈추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의 생산정상화문제는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도덕의리에 관한 문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도덕의리에 관한 문제!

누구도 어린이식료품의 생산정상화문제를 두고 이렇게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심을 지니시고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생산정상화문제에 대한 정의였다.

이런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시였기에 그이께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는 자각을 안고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당정책가운데서도 어린이식료품을 생산보장하는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정책이라고, 우리에게 제기되는 문제가 많지만 어린이식료품을 생산보장하는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강조하신것 아니겠는가.

어린이식료품생산문제와 관련하여 그렇듯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마다에 쪼아박으며 일군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이를 우러렀다.

량보다 질을 더 중시한다시며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생산정상화문제는 단순히 생산의 량적장성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였다.

최상의 질이 담보된 여러가지 식료품을 많이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안겨주는것, 바로 이것이 그이의 깊은 의도였다.

이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젖먹이식료품견본대에 이르시여 애기젖가루 한봉지를 손에 드시고 공장일군에게 이것이 좋은가고 물으시였다.

수요도 높고 질도 좋다는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식료공업부문에서 다른 나라의 식료품견본들을 들여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는 식료품들과 영양학적측면에서 대비해보아야 하겠다고, 그래야 식료품발전의 세계적추세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고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세계적인 패권을 쥐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식료품들이 어떤 질적수준에 도달해야 하는가를 명시해주시는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의 가슴은 후더워올랐다.

간막이유리를 통하여 생산현장의 벽체에 붙은 타일을 가리키시며 공장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하여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현장으로 들어서시였다.

자동포장기에서 나오는 애기젖가루 한봉지를 또다시 손에 드신 그이께서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생산한 애기젖가루를 전국의 육아원들에 보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공장일군에게 애기젖가루에 대한 수요가 높은가고 또다시 물으시였다.

그때 공장일군은 공장에서 나오는 젖가루가 좋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저저마다 달라고 한다고 자랑삼아 말씀올리였다.

그의 보고를 들으시며 호탕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짐짓 정색하신 어조로 자화자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제품의 량보다도 질을 더 중시한다고, 제품의 질문제를 가지고 크게 떠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 제일 훌륭한 것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결코 만족을 모르시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미래사랑의 세계이다.

제품의 질에 대한 평가기준

주체104(2015)년 11월 어느날이였다.

현대화의 본보기공장으로 훌륭히 전변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에 돌아본 공장이 옳은가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긍지로 부풀었다.

지난해 한겨울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곳을 찾아주시여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에 절실히 필요한 새로운 식료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내는 어린이식료품공장으로 개건현대화할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그이이시였다.

그때로부터 불과 10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수십여개 대상의 신축 및 증설, 개건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현대적인 식료생산설비들을 그쯘히 갖추어놓은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었다.

이날 공장의 현대화정형과 생산실태를 료해하시며 거듭 만족을 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공장을 현대화해놓았으니 이제는 이 공장이 국산화된 현대화의 기치를 들고나가면서 제품의 맛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식료품공장들과 당당히 경쟁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제품의 질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하여 생동한

실례를 들어 말씀하시였다.

아이들의 입은 속이지 못한다. 아이들의 입만큼 예민한것은 없다. 갓난아이들도 말은 못하지만 맛은 안다. 같은 우유가루라도 아이들이 이 공장의것보다 다른 나라의것을 잘 먹으면 이 공장의것은 맛이 없다는것이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질에 대한 평가기준은 아이들이 즐겨 찾는가 찾지 않는가 하는것이다.

제품의 질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하시는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은 한동안 그린듯이 서있었다.

너무도 단순한 리치였다. 그러나 누구도 생각지 못한것이다.

이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열화와 같은 사랑과 정으로 아이들의 밝은 래일을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어린이들을 위하시는 그이의 끊임없는 사색과 실천은 젖먹이아이들의 식료품에 대한 질적평가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미치고있었다.

일군들은 눈시울을 적시며 마음속으로 진정을 터뜨렸다.

사람들이여, 아이들이 즐겨 먹는 하나하나의 식료품을 무심히 대하지 말라. 그속에는 이 땅에 피여나는 꽃망울들을 싱싱하게 자래워 내 조국의 래일을 아름답게 가꾸어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미래사랑이 깃들어있다고.

◎ 미래사랑의 결정체

평양의 문수지구에는 옥류아동병원이 있다.

지능놀이감으로 탑을 쌓은듯이 재미있게 솟아오른 건축물과 주위에 푸른 주단을 깔아놓은듯 아름답게 펼쳐진 잔디밭이며 동심주제의 각이한 조각상들과 분수들로 황홀경을 이룬 외부환경도 그러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달과 별이 웃는 천정장식, 곱등어들이 반기는 바다세계로 들어가는듯싶은 치료실 등 내부의 모든 곳들이 아이들의 심리에 맞게 꾸려지고 최첨단의료설비들로 그쯘히 갖추어져있는 아동병원.

바로 이곳이 어린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금싸래기처럼 귀히 여기시며 온갖 정과 사랑을 기울이시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미래사랑이 응축된 아이들의 궁전, 행복의 요람이다.

쏟아지는 폭우속에서

며칠째 내리던 비가 세찬 바람까지 동반하면서 억수로 쏟아지던 주체102(2013)년 7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설계부문의 한 일군을 부르시여 아동병원건설장에 나가보자고 하시였다.

험한 날씨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건설장에 모시게 된 일군들의 마음은 송구하기 그지없었지만 그이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건설자들의 수고부터 헤아려주시며 새로 건설될 병원의 설비명세를 보아주시였다.

한 일군이 설비명세와 관련한 문건을 가져다드리였는데 그만 흩날리던 비방울이 그우에 휘뿌려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쓰고계시던 우산으로 문건우를 가리우시면서 설비들의 종수와 개수에 대해 외우시며 그 정형에 대해 일군들에게 물으시였다.

그이께서 허리를 굽히시여 문건을 보실 때였다.

억수로 쏟아지던 비가 갑자기 더 세차지면서 그이의 옷을 순식간에 화락하니 적셔놓았다.

일군들은 너무도 급하여 그이를 에워싸며 주위를 막아나섰건만 비가 너무도 세차게 내려 어쩔수가 없었다.

비물은 벌써 그이께서 신으신 구두의 밑굽까지 차올랐다.

했건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아동병원에 놓을 의료설비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건을 보니 많은 의료설비를 놓을것으로 예견하였는데 그 설비들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무거운 어조로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그제서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런 험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까지 급히 나오신 깊은 뜻이 헤아려져 가슴이 쩌릿해졌다.

아동병원문제를 두고 얼마나 마음을 쓰시였으면…

일군들의 마음은 충격과 죄책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심정을 헤아리신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동병원을 현대적인 병원으로 꾸리자면 의료설비들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과 아동병원일군들, 설계일군들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따뜻이 이르시였다.

그이의 다심한 깨우치심앞에서 일군들은 더욱 크나큰 죄책감을 느끼며 설계에서 병원건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실책을 깨달았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중앙현관쪽으로 걸음을 옮기실 때 앞마당은 억수로 쏟아지는 비물에 잠겨 땅이 거의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한 일군이 몇군데 땅이 드러난쪽으로 그이를 안내해드리려고 하였으나 그이께서는 비물이 출렁이는 진창길을 거침없이

그대로 밟으시며 건물의 중앙현관쪽으로 곧추 들어가시였다.

그런데 거기도 형편은 매한가지였다.

휘틀자리가 그대로인 현관홀천정에서도 역시 비물이 줄줄이 떨어져내렸고 벽체마다 물이 흘러내려 바깥이나 별로 다름없이 어수선하였던것이다.

그이의 옷은 비에 더욱 젖어들고있었다.

하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떨어지는 비방울에 온몸을 다 적시시며 일군들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치심을 주고계시였다.

내리는 비를 다 맞으시며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젖어들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러는 그들에게 아동병원은 자신께서 결심하여 건설하고 설계도 구체적으로 보고 비준하여준 대상인것만큼 자주 나와 지도하여야 건설이 잘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 비내리는 건설장으로 계속 걸음을 옮기시였다.

오랜 시간 건설장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뜨거운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신 다음에야 그이께서는 건물밖으로 나오시였다.

내리는 비속을 헤치며 떠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심장의 웨침이 메아리치였다.

(사람들이여, 머지않아 아동병원이 훌륭히 완공되여 행복

한 아이들을 반겨맞을 때 억수로 쏟아지는 폭우도 다 맞으시며 후대사랑의 길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만로고를 부디 잊지 마시라.)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시며

쏟아지는 폭우속에서 병원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제를 바꾸시였다.

아동병원에 갖추어놓게 될 설비들에 대한 문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얼마전에 해당 부문에서 보고한 문건을 보니 일부 의료설비들이 부족하여 아동병원에서 치료받게 될 어린이들의 병진단을 어떤것은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에 가서 하고 치료는 아동병원에서 하는것으로 예견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이르시였다.

사실 아동병원에 설치하게 되여있는 의료설비들의 값은 대단히 비싼것들이였다.

어느 한 설비는 사람의 인체에서의 수소이온들의 움직임을 화상으로 처리하여 병을 진단하는 치료의료설비이고 CT설비 역시 렌트겐기술과 콤퓨터단층촬영기술을 리용하여 병을 진단하는 의료설비로서 그 값이 엄청난것이였다.

그래서 병원에 새로 갖추어야 할 설비문제에 대해 문건을 작성하는 일군들은 그 설비들에 대해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

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사실 의료설비들을 갖추어놓지 못하고 건물이나 지어놓고 준공식을 하여서는 의의가 없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윽하여 설비들의 가격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일군들로부터 그에 대해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단호한 어조로 아동병원에 그 설비들을 놓아주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설비 한대 값이 너무 비싸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아동병원에는 갖추어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아동병원은 자신께서 마음먹고 건설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종합적인 치료기지인것만큼 자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설비를 무조건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그이의 말씀에 모두 눈시울을 적시였다.

지금이 어느때인가. 강국건설의 크고작은 전구들마다에서 얼마나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고있는 때인가.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고 미래인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것만큼 중대사는 없으시였다.

그러하기에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아이들을 위한 병원건설에 그처럼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것이 아닌가.

병원속의 《미술박물관》

옥류아동병원을 돌아보느라면 미술박물관에 온듯 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다. 그것은 병원내부벽면들이 동화그림들로 꽉 차있기때문이다.

《소년장수》, 《나비와 수닭》, 《령리한 너구리》, 《놀고먹던 꿀꿀이》를 비롯하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들과 세계명작동화집들에서 나오는 그림들이 치료실과 입원실을 포함한 수백여개의 방들과 복도의 벽면을 꽉 채우며 실물처럼 살아움직이는듯 하다.

병원속의 《미술박물관》!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볼수록 병원에 깃든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눈시울을 적신다.

주체102(2013)년 10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 완공을 앞둔 아동병원 건설장을 찾으시였다.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중앙홀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홀에 그려놓은 아크릴화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보시였다.

한동안 그림을 주의깊게 보시던 그이께서는 이것이 진짜 그림인가고 물으시며 그림을 잘 그리는 재간둥이들이 많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종 만족한 표정을 지으시고 그림 하나하나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보아주시였다.

이어 3층에 꾸려진 대수술장을 돌아보시며 수정방향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3층복도에 붙인 그림앞에 멈춰서시였다.

그 그림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미술창작기관들과 미술대학이 동원되여 아동병원에 필요한 그림들을 그릴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아동병원을 어린이들의 동심에 꼭 맞게 꾸려주시기 위해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을 헤아리며 격정에 휩싸였다.

흔히 사람들은 동심을 호기심많은 아이들의 꿈의 세계에 비교한다.

그래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동화들에서 많이 그려진것도 아이들의 꿈세계이다.

하지만 그 어디에 한 나라의 령도자가 아동병원건설을 직접 발기하고 건설 전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신것만도 전례없는 일인데 병원의 요소요소에 어린이들의 동심을 헤아려 미술작품을 그려놓도록 세심하게 지도하여준 사실이 언제 또 있었던가.

이날 건축물을 일떠세우는데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 맑은 물이 구슬처럼 흐르는 문수지구에 자리잡고있는 아동병원의 이름을 《옥류아동병원》으로 친히 명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주신 과업을 받아안고 평양미술대학의 교직원, 학생들과 시안의 창작가들이 아동병원으로 달려오는 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들은 낮과 밤을 모르는 불꽃튀는 창작전투를 벌려 한건 한건의 그림에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이 차고넘치도록 형상하였으며 마침내 아동영화들과 세계명작동화집들에서 나오는 1 700여점의 미술작품들이 병원내부의 벽면들을 꽉 채우게 하였다.

병원속의 《미술박물관》, 이것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품으로 지니신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또 하나의 화폭인것이다.

관리운영에서 사소한 애로라도 있을세라

주체103(2014)년 3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소문도 없이 개원한지 얼마 안된 옥류아동병원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1층홀에 들어

서시자 《원수님께서 오셨다!》는 환성이 터져오르고 치료를 받던 아이들과 부모들이 물밀듯이 달려와 복도며 홀들을 가득 채웠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무한히 기쁘시여 시종 미소를 지으시였고 그이를 둘러싼 인민들은 만나뵈온 감격에 웃고울었다.

장마비내리던 한해전 7월과 그후에도 아동병원을 찾으시여 모든 면에서 최상의 수준으로 완공하도록 지도해주시고 이름도 친히 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린이들이 병원의 덕을 실지로 보고있는가 알아보시기 위해 또다시 찾으신 것이다.

그이께서는 병원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 치료예방사업에서 제일 걸리고있는 약이 무엇인가.

— 어린이들속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병이 무엇인가.

— 운영하는 과정에 고장난 설비들은 없는가.

…

병원관리운영에서 사소한 애로라도 있을세라 각근히 마음쓰시며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하신 보살피심은 일군들의 가슴을 울리였다.

치료실들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해하시였다.

한 일군이 경애하는 그이께 옥류아동병원에서 저저마다 치료를 받겠다고 한다고 말씀올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어린이들이 병을 모르고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하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며 개원전에도 오시고 개원후에도 또다시 찾으시여 사소한 빈틈이라도 있을세라 각별한 정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그 사랑, 그 은정속에 오늘과 같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병원으로 훌륭히 일떠선 옥류아동병원이다.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뇌리에 옥류아동병원을 돌아보고 누군가가 지은 자작시의 한구절이 떠올랐다.

…
새별처럼 반짝이는 맑은 두눈에 깊이깊이 새기거라
먼 후날에도 잊혀지지 않게
철이 드는 그때엔 목청껏 웨치거라
온 나라 수백만 어머니의 사랑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사랑
아이들의 요람－옥류아동병원에서 다시 태여났노라고

◎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된 의정

주체101(2012)년 9월 25일 온 나라는 격정과 환희에 휩싸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이 채택되였던것이다.

사실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를 진행한다는 공시가 발표되였을 때부터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호기심을 금치 못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그해 4월에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가 진행된 때로부터 불과 다섯달만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게 되였기때문이였다.

이날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뜻밖에도 누구나 생각지 못했던 교육문제가 토의되고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이 채택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교육사상을 더욱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뜨겁게 맥박치고있었으며 우리 공화국을 교육강국, 문명강국으로 만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안아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의지가 어려있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는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였다.

아직은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조건에서 소학교학제를 1년 늘이고 6년제중학교를 3년제초급중학교와 3년제고급중학교로 갈라 운영한다는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써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며 경제학적으로 보아도 선뜻 리해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교육발전을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문제로 내세운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인재양성에 유리하게 학제를 늘이는 사업이 중요한 문제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투자가 많이 드는것으로 하여 그것을 어쩔수없이 장기적인 전략적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결정하는것이 응당한 관례로 되고있다.

하지만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고 후대교육사업에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애국열의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굳게 확신하시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2012년 설명절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불을 지펴주시고 평범한 교원가정도 찾아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며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에 교육중시기풍을 확고히 세우고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심혈을 바치시였다.

경상유치원의 어린이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실 때에도, 평범한 로동자가정의 아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실 때에도 경애하는 그이의 심중에는 새 세대들을 앞날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훌륭히 키우기 위한 웅대한 구상이 무르익어가고있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라의 교육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고 새 학년도를 맞으며 평양시의 교육부문 단위들에 현대적인 교육설비와 체육기자재들을 보내주시는것과 같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속에 우리 나라에서는 중등일반교육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지게 된것이 아닌가.

바로 그래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가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이 더 크고 모두의 가슴마다에 그리도 뜨겁게 안겨오는 것이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혜택아래 이 땅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자라날것이며 우리 조국은 또 얼마나 높이 비약할것인가.

◎ 《소나무》책가방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가방공장을 찾아주신것은 주체106(2017)년 1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생산동음이 세차게 울리고있는 공장구내를 돌아보시는 그이의 존안에는 환한 미소가 어리였다.

온 공장안이 가방천지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환희에 넘쳐있는 일군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올해 첫 현지지도로 평양가방공장을 찾아왔는데 올해 자신의 행군길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찾으셔야 할 곳이 많고많으시건만 새해의 첫 현지지도의 길을 가방공장으로 택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보는 일군들은 가방생산을 위해 바쳐오신 그이의 로고를 생각하며 깊은 회억에 잠기였다.

3년전이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한손에는 책가방을 들고 다른 손에는 악기와 다른 소지품들까지 들고 불편하게 학교에 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이윽토록 지켜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였다.

아이들에게 배낭식가방을 만들어주면 활동하는데 아주 편리할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거듭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공업부문의 한 일군에게 전화를 거시고 아이들에게 멋진 배낭식가방을 만들어주자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그때로부터 온 나라 아이들의 가방문제가 국가의 중대사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때로는 도안가들의 안목을 틔워주시려 자신께서 연구하시던 100여페지나 되는 가방생산과 관련한 참고자료들을 해당 부문 전문가들에게 보내주시였고 때로는 몸소 가방도안가가 되시여 무려 450여건의 도안도 보아주시였다.

2016년 1월에는 맵짠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시여 가방용천생산공정을 꾸리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직접 풀어주시였다.

이렇듯 배낭식가방의 발기로부터 시작하여 그를 위한 생산토대는 물론 가방공장건설과 가방의 도안과 제작에 이르기까지에는 경애하는 그이께서 기울이신 심혈과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있었다. …

감회에 잠겨있던 일군들이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는데 그이께서는 여러가지 가방들을 세세히 살펴보시고 손수 메여도 보시며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가방들을 멋있게 만들었다고, 아이들이 우리가 만든 가방들을 보면 아주 좋아할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오늘을 잊지 못할것 같다고, 정말이지 제품견본실을 떠나고싶지 않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얼마나 바라고바라던 문제였으면 그리도 만족해하시랴 하는 생각에 일군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 일군이 그이께 기쁨과 자랑이 한가득 어린 어조로 가방생산정형에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그의 보고를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방생산에서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와 질제고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종업원들이 가방을 하나 만들어도 자식들에게 만들어주는 심정으로 어머니다운 정성을 기울일데 대하여 당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예로부터 자식을 하나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백만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이것은 우리 당의 자식복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억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여도 그것을 고생으로가 아니라 행복으로 생각한다고 자신의 심중을 뜨겁게 터놓으시였다.

억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여도 그것을 고생으로가 아니라 행복으로!

숭고한 후대관이 력력히 비껴있는 그이의 말씀이 일군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면서 내내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보시며 우리가 만든 멋쟁이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며 웃고 떠들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하시면서 태여난 아기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 이름을 달아주려 마음쓰는 부모의 심정으로 새 가방에 몸소 《소나무》라는 이름을 달아주시였다.

《소나무》 책가방!

온 나라의 아이들이 소나무처럼 억세게 자라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응축되여있는 사랑의 책가방이였다.

오늘도 온 나라 아이들이 학교로 오가며 너도나도 메고 다니는 《소나무》 책가방은 바로 이렇게 되여 세상에 생겨나게 되였다.

◎ 무조건 해결해야 할 중대사

주체102(2013)년 10월 어느날이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 제품견본실에도 들리시여 진렬해놓은 천견본을 보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견본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다가 학생교복천진렬대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한 일군이 그이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아주신 학생교복을 만든 천견본을 전시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전시하지 못하였다고 보고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미전부터 온 나라의 학생소년들에게 교복을 새롭게 해입힐 구상을 펼치시고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과업을 주시였으며 여러차례 견본을 보아주시면서 교복의 형태와 색갈, 모양 등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일군의 심정을 헤아리신듯 전시한 교복천을 만져보시며 제품견본실에 있는 교복천이 괜찮다고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온 나라의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복을 만들어 입히려고 하는데 그러자면 이 공장에서 교복

천생산을 잘하여야 한다고, 앞으로 온 나라의 학생들에게 자신께서 보아준 견본대로 교복을 해입히면 사회의 면모가 몰라보게 달라질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날을 그려보시는듯 환하게 웃음지으시였다.

그이의 말씀에서 일군들은 가슴뿌듯함을 느꼈다.

금시 새 교복으로 단장한 새 세대들의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것만 같았다. 그 모습에 의해 온 나라의 거리들이 더 밝아지리라는 확신이 굳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교복을 만드는데 필요한 설비들을 갖추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일군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학생들에게 새 교복을 만들어 입히려면 교복천과 교복을 만드는데 필요한 설비들을 다 갖추어놓아야 할것이라고, 교복생산과 관련한 보장대책을 세워주겠다고 하시며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후인 2014년 12월의 어느날.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찬바람부는 이날에도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교복생산을 위해 마음쓰시였다.

공장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일군들에게 특히 학생교복천생산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학생교복생산과 공급문제를 대단히 중시하시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죽으나사나 무조건 해결해야 할 문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해오고있으며 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 학생교복문제를 푸는데서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죽으나사나 무조건 해결해야 할 중대사.

생사를 내건 중요하고도 큰 문제라는 그이의 이 말씀에는 조국의 미래를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따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 그 전도가 좌우된다는 심오한 뜻이 깃들어있었다.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교복문제는 죽으나사나 무조건 해야 할 나라의 중대사로 된것이 아닌가.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뼈속에 쪼아박듯 새기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러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학생교복을 만들어줘도 온 도시가 환하게 만들어주자고 하시며 남녀학생들의 기호에 맞게 그 천색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새롭고 이채로운 학생교복이 전국의 학생들에게 입혀졌다.

세월이 갈수록 뜨겁게 전해져내려오는 학생교복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에 의해 나날이 더욱 감동깊이 전해지고있다.

◎ 사연깊은 민들레학습장

나서자란 고향과 조국에 대한 못 잊을 추억을 불러오는 민들레.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류다른 정서를 안겨주는 민들레를 바라볼 때면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좋아하는 《민들레》 상표를 새긴 학습장들이 떠오른다.

훌륭히 일떠선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생산되여 전국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공급되고있는 학습장 하나하나에도 절세위인의 다심한 손길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노래가사를 읊으시며

주체105(2016)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일떠서 생산을 시작한 민들레학습장공장을 찾으시였다.

그이를 맞이한 일군들은 학습장생산을 얼마나 중히 여기시였으면 당대회를 앞두고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을 찾으셨으랴 하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이께서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생산한 학습장을 보며 정말 기뻤다고, 질좋은 학습장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춤이라도 추고싶은 심정이였다고 말씀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절절한 어조로 민들레학습장공장을 일떠세움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또 하나 관철했다고, 현대적으로 일떠선 공장에서 질좋은 학습장들이 생산되는것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보시였으면 정말로 기뻐하시였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질좋은 학용품들을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주는것은 그들의 가슴마다에 우리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민들레라는 명칭을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의 가사를 읊으면서 지었다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민들레!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순간 일군들모두의 입에서 이 말이 튀여나왔다.

이 말들을 조용히 불러보니 숭엄한 조국애를 불러일으키는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의 선률이 들려왔다.

민들레 곱게 피는 고향의 언덕에
하얀 연을 띄우며 뛰놀던 그 시절
…

애국심은 자기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데서부터 움터나는 사상감정이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자기의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는것은 조국의 미래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바로 그러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나날 어느 한 지방공장에서 학습장생산을 위해 만든 종이에 《내 나라》라는 친필을 남기시였다.

바로 그러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학습장공장을 발기하시고 그 형성안을 지도해주신데 이어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부르시며 공장이름을 《민들레학습장공장》으로 명명해주신것이 아니랴.

민들레학습장공장.

무심히 불러볼수 없는 뜻깊은 이름이였다.

일군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들의 귀가에 민들레라는 말과 함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의 노래선률이 은근히 들려오는듯싶었다.

생산정상화의 동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학습장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생산공정이 모두 자동화, 흐름선화된 현장을 일일이 살펴보시던 그이께서는 민들레학습장공장의 생산능력이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공장이 일떠선 결과 학습장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유치원어린이들과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의 학생들을 위한 수십종에 달하는 학습장들을 생산하고있는데 모두 마음에 든다고, 종이의 질도 좋고 제책도 흠잡을데 없으며 도안도 학생들의 년령심리에 맞게, 과목별특성에 맞게 잘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일군들은 그이의 치하의 말씀에 몸둘바를 몰라했다.

오늘의 이처럼 훌륭한 결실이 경애하는 그이께서 바치신 로고와 심혈에 의해 이루어진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군들모두의 뇌리에 차고넘쳤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뒤따르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며 당의 교육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민들레학습장공장

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전망적인 한해 생산목표를 정해주시였다.

그러시며 민들레학습장공장은 당에서 제일 관심하는 공장이라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책을 꿰매주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안고 질좋은 학습장을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강조하시였다.

사르릉- 사르릉-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들리시는 곳마다에서 기계들의 고르로운 동음이 울려나왔다.

그 동음을 들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울려퍼지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소리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나 같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을 위해 공장의 생산을 한순간이라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공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모두 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생산정상화의 동음소리!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 소리에서 온 나라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부르는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들으신것이다.

그 생산정상화의 동음에서 그이께서는 내 조국의 푸른 하늘아래 울려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시였고 세상에

부럼없는 후대들의 미래, 창창한 래일을 그려보시였다.

진정 생산정상화의 동음속에 울려오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제일 큰 행복이고 기쁨이다.

◎ 자신의 심정이라고 하시며

주체103(2014)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한해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자기의 모습을 일신하고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이때로 말하면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나라의 정세가 다시금 최악의 지경으로 번져가고있던 시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최전연으로 나가던 길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개건공사가 끝났다는 보고를 받고 그 정형을 알아보려고 들렸다고, 자신께서는 적들과 첨예한 대결전을 벌리면서도 언제나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한 래일을 그려보군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하루빨리 안겨주고싶은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불쑥 뜨거운것이 솟아올

랐다.

적들의 악랄한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준엄한 전선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시며 야영소에 거룩한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어린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하루빨리 안겨주시려는 심정이 얼마나 불같으시였으면 최전연으로 가시던 길에 여기 야영소를 먼저 찾아주시였으랴.

그이의 그 불같은 후대사랑에 떠받들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드디여 준공의 날을 눈앞에 두게 된것이였다.

그이께서는 격정을 금치 못하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평양에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까지 직통렬차를 운행하여야 하겠다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겨울철야영을 시작하게 되면 겨울철에도 평양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 있는 아이들과 다른 나라 아이들이 다 이 소년단야영소로 수많이 오고가겠는데 그들을 뻐스에 태우고 다니다가 눈덮인 령길에서 사고를 내면 큰일이라고 친어버이심정으로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도 아직 부족되신듯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무난방온실을 실습기지로 꾸려주어 야영생들이 야영생활기간에 원예상식과 식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무난방온실까지 꾸려주면 아이들에게 필요한것은 다 갖추어주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야영소를 보고 또 보시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당의 의도가 철저히 구현된 기념비적창조물이라고, 모든 조건이 완전히 구비되였고 건축미학적으로 손색이 없게 꾸려졌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이자 야영소정문으로 들어오면서 보니 문주우에 3개의 원형장식띠를 만들어놓았는데 하필이면 왜 3개만 만들어놓았는가, 더 만들어놓고 거기에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써넣으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에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관이 집대성되여있다고 말씀하시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수령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절절히 이르시였다.

인류력사 수백만년에 그 류례가 없는 후대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온 지구를 뒤흔드는듯싶은 숭엄한 시각이였다.

정녕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고 이 세상 모든 행복을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다 안겨주고싶은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정이시였다.

◎ 기다려주신 시간

주체102(2013)년 5월의 어느 일요일.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휴식도 마다하시고 묘향산에 자리잡고있는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를 찾아주시였다.

소문도 없이 조용히 이곳 야영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며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다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사랑이 어려있는 령도의 자욱을 따라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시며 야영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그러시다가 원수님께서는 문득 아이들이 어디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지금 한창 등산중이라는 야영소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 내려오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내고있는 아이들이 보고싶으시여 몇번이고 거듭 물어주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를 아는지라 안타까워 바재이였다.

그러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여기

까지 왔다가 야영생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기념사진도 찍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몹시 섭섭해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동행한 일군들이 격정에 휩싸여 아무 말도 못하고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다시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야영생들을 만나보고 가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등산했던 아이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다. 자기들에게 어떤 행복의 시각이 다가왔는지 사연도 모르고 즐거운 등산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은 깜짝 놀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30분을 기다리고 계시였던것이다.

야영생들은 아버지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게 된것이 꿈을 꾸는것만 같아 행복에 겨워 울고웃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한한 행복에 겨워 눈물로 두볼을 적시는 아이들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울지 말고 찍어야 사진이 잘된다고, 어서 눈물을 그치고 사진을 찍자고 달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젖어올랐다.

이 숭엄한 모습을 우러르는 한 일군의 뇌리에는 언제인가 보았던 책의 글줄이 떠올랐다.

…호지명은 생전에 아이들을 무척 고와하고 사랑하였다.

그러기에 그는 하노이의 한 유치원에서 자기 품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아이를 위해 5분간을 지체했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한초한초의 시간은 얼마나 귀중한것인가.

나라일의 크고작은 중대사가 매일 매 시각, 아니 분분초초를 다투며 그이앞에 나섰고 새로 일떠선 공장과 거리,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금옥과도 같은 그이의 가르치심을 손꼽아 기다리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이들,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바쳐가시며 아이들을 기다려주시였다.

그이께서 기다려주신 30분.

실로 천금같은 사랑의 시간이였다.

◎ 온 나라는 격전장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함경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가 한창이던 때였다.

온 나라가 북부피해지역을 향해 최대급행으로 달려갔다.

그때 유독 북변땅을 떠나는 행렬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송도원행 야영렬차에 오른 피해지역 아이들이였다.

세상에 자연재해로 한지에 나앉고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은 많아도 재해지역의 평범한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 령도자의 크나큰 관심과 사랑속에 즐거운 야영소로 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적이 없었고 있을래야 있을수도 없는 일이였다.

피해복구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지던 주체105(2016)년 9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긴장상태에 있는 자재보장문제며 수송보장문제를 비롯하여 기본전투와 관련한 작전과 지휘만으로도 바쁘시던 그때 재난을 당한 조국의 북변땅 학생소년들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야영을 조직할데 대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리고 그를 위한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예로부터 집안에 불행이 생기면 제일먼저 어두워지는것이

아이들의 얼굴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대재난의 그 시각 북부지역 수많은 어머니들의 마음을 무엇보다 아프게 한것은 어린 자식들의 얼굴에 질 그늘이였다. 어머니들의 그 마음속생각까지 헤아려 피해지역 아이들을 념려하시여 유치원과 학교부터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민들레학습장이며 학용품, 교구비품들을 실은 렬차부터 북부전선으로 떠나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러시고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린 마음들에 새겨진 마음속 상처를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동해의 명승지에로의 행복의 야영길을 열어주신것이다.

북부피해지역 아이들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보낸 야영생활은 온 나라를 울리였다.

자기 자식들이 받아안은 행복이런듯 이 나라 어머니들이 격정으로 눈시울을 적시였고 온 나라 인민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였다.

북변땅에서 울려퍼지게 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이렇게 송도원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로 먼저 터져올랐다.

재난이 깃든 어린 마음에 제일 큰 행복이 깃들어야 하고 온 나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운데서도 그애들의 웃음소리가 제일 높아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이시였다.

◎ 원아들의 친부모가 되시여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위치도 명당자리이지만 건물의 모습 또한 희한하여 구내에 들어서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흥그러워진다.

겉 볼 안이라고 내부 또한 황홀하다.

특히 사람들이 눈길을 떼지 못하는것은 재롱스럽게 춤추며 노래부르는 원아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이다. 하나같이 명랑하고 튼튼한 저애들을 과연 누가 부모없는 아이들이라고 하겠는가.

궁궐같은 애육원에서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마음껏 뛰노는 어린이들을 보느라면 원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안겨와 눈굽이 뜨거워진다.

이른새벽에 울린 전화종소리

주체103(2014)년 2월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여 원아들에게 친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신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하지만 그날의 사랑의 이야기는 아직 먼동이 트기 전 이른새벽부터 시작되였다.

단잠에 들었던 한 일군이 전화종소리에 깨여났다.

뜻밖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걸어오시는 전화였다.

《아니, 이른새벽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은 놀라움이 컸으나 정중히 인사를 드렸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새벽에 잠을 깨워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량해부터 구하시였다.

일군은 가슴이 뭉클하여 목메인 소리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밤늦도록 집무를 보시는데 이렇게 집에서 전화를 받아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일없다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자신께서 지금 애육원과 육아원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생각하던 중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일군은 또다시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때로 말하면 당과 국가, 군대의 실로 긴박하고 중대한 일들이 그이의 사색을 기다리고있었다. 안팎의 정세도 매우 긴장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해 정초부터 여러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여 군인들의 훈련을 지도하시고 국가과학원, 마두산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며 2014년을 과학기술성과의 해, 과학기술승리의 해로 빛내일 구상과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심화

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해주시였다.

그런데 이밤에도 또 애육원, 육아원의 원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시며 마음을 쓰시는것이 아닌가.

가슴을 치는 격정을 안고 일군은 그이께 원수님의 뜻을 잘 받들어나가겠다는 결의를 절절히 아뢰였다.

그이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그리고 양로원들의 실태를 알아볼데 대해 이르시고 전화를 마치시였다.

받아안은 충격이 너무 커서 일군은 한동안 송수화기를 손에 든채 서있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새벽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사위여가고있었다.

이른새벽에 울린 전화종소리.

그 소리는 부모없는 아이들이 만시름을 모르고 세상에 부러움없이 행복하게 자라게 하시려 낮이나 밤이나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송가였다. 그 사랑의 전화종소리에 이 나라의 밝은 미래가 밝아오고있었다.

물고기와 곶감에도

한밤을 육아원과 애육원 원아들에 대한 생각으로 꼬박 지새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날이 밝자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였다.

자식들을 잘 먹여 튼튼하게 키우는것은 부모의 첫째가는 의무이며 사랑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하기에 이날 그이께서 특별히 관심을 돌리신것은 원아들의 성장발육과 관련한 문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애육원 원아들이 부르는 노래를 다 듣고나시였을 때였다.

한동안 아이들의 재롱스러운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얼마나 먹이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에 대한 대답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얼마전에 어느 한 인민군부대 수산사업소에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원아들과 양로원 보양생들에게 올해 가을부터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먹일수 있게 잡을데 대한 명령을 주었다고 하시면서 올해 가을부터는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원아들과 양로원 보양생들에게 물고기를 무조건 하루에 300g씩 먹이겠다고 확언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식사칸을 돌아보실 때에도 벽에 게시하여놓은 《하루영양공급기준표》를 보시며 원아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100g 먹이게 되여있는데 자신께서는 원아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 먹이자고 한다고, 원아들이 칼시움을 제대로 섭취하게 하자면 그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먹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새겨안으며 한 일군이 아이들에게 공급할 하루 물고기량이 엄청난것이라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친아버지의 정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어린 말씀은 일군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었다.

그이께서는 원아들의 잠자는 시간에 대하여서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아이들을 먹이는것도 잘 먹여야 하지만 잠을 충분히 재워야 한다고, 그래야 그들이 앓지 않고 빨리 자란다고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애육원 원아들에게 곶감도 먹이자고 한다고, 곶감을 육아원 원아들은 먹지 못하지만 애육원 원아들은 잘 먹을것이라고, 애육원 원아들에게 곶감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감은 안변의 감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감이 많이 나는 곳에 주둔하고있는 인민군부대들에서 애육원 원아들에게 먹일 감과 곶감을 마련하여 보장하도록 최고사령관명령을 하달하려고 한다고 하시였다.

이것은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여 지극한 은정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사랑의 명령이였다.

일군들은 원아들의 성장발육문제에 그토록 관심하시며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다시한번 뜨겁게 절감하며 그이를 따라섰다.

정확히 알고계신 수자

주체103(2014)년 6월 1일 국제아동절에 있은 이야기이다.

이날 오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전화를 걸어주시면서 오늘이 국제아동절인데 평양애육원에서 무엇을 하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오전에 일군이 평양애육원에 나갔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하시는 물음이시였다.

그이께 일군은 자기가 애육원에 나가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그날 아침부터 원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갖가지 식료품들로 풍성하게 차린 명절음식상을 받아안게 되였다.

광명성절에도 희귀한 식료품들과 함께 유명한 료리사들을 보내주시여 원아들에게 명절특식을 차려주게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제아동절을 맞으며 또다시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시였던것이다.

평양시안의 여러 단위 일군들이 원아들에게 줄 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찾아오고 주변의 많은 주민들도 모여와 원아들의 예술공연을 보고 체육유희오락도 하면서 명절을 즐겁게 쇠였다.

일군은 이에 대해 보고드리고나서 그사이 원아들이 키도 크고 몸도 좋아졌으며 얼굴색도 상당히 밝아졌다는것과 원아들이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고 대단히 좋아하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만족하신 어조로 이번에 껌도 보내주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원아들이 껌을 대단히 좋아한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점심에 원아들에게 무엇을 먹였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옥류관에서 국수를 해가지고 오고 해당 구역의 식당, 봉사망들에서도 료리사들이 와서 원아들에게 료리를 해준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보고드리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걱정어린 어조로 아이들이 국수를 좋아

하겠는지 모르겠다고 하시였다.

순간 친어머니의 걱정인들 이보다야 더하겠는가 하는 뜨거운 격정이 일군의 가슴에 흘러들었다.

원수님께서는 이어 저녁에는 무엇을 먹이는가고 또 물으시였다.

원아들의 점심식탁이 하도 풍성하여 그에 감탄한 나머지 저녁식사까지는 미처 관심하지 못했던 일군은 송구스럽게 그에 대해서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고,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화제를 바꾸시여 이번에는 평양애육원 원아들과 교양원수가 얼마나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이번에도 일군은 정확한 대답을 드릴수 없었다.

그러자 원수님께서는 원아들과 교양원들이 몇명정도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평양애육원 원아들과 교양원수를 알아보고 보고하여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한 죄책감을 안고 일군은 즉시 평양애육원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그러던 일군은 그만 무릎을 치지 않을수 없었다.

평양애육원 원아들과 교양원수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기때문이였다.

(아, 원수님께서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하여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애육원실태를 그렇듯 환히 꿰뚫고계시겠는가.)

이날 오후 일군은 경애하는 그이께서 또다시 평양애육원을 찾으시였다는 소식을 들으며 너무도 큰 충격에 설레이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애육원이 생겨 있어본적이 없는 풍성한 명절음식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점심에 원아들에게 국수를 먹였다는것이 종시 마음에 걸리시여 정확히 아신 수자대로 저녁식사까지 준비해가지고 찾아가시였던것이다.

제일 훌륭한 집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전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처음으로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이날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의 보육 및 교양조건과 생활환경에 대하여 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새로 지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모두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나라의 형편이 아직 넉넉치 못하였지만 당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의 생활조건과 교육조건은 그만하면 괜찮게 보장되고 있었던것이다.

게다가 국가적으로 다그치고있는 중요건설대상들이 얼마나 많으며 새로 건설해야 할 중요대상들은 또 얼마인가.

일군들의 속생각을 헤아리신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결연한 어조로 육아원과 애육원의 생활환경과 교육교양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올해에 진행하여야 할 중요대상건설이 많지만 육아원, 애육원을 세계적수준에서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마디마디에 친어버이의 뜨거운 정이 넘쳐나는 그이의 말씀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금사정이 아무리 긴장하다고 하여도 육아원과 애육원은 반드시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새로 꾸려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시였다.

그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요람으로 꾸려주시기 위해 몸소 설계도 지도해주시고 자재보장대책도 세워주시였으며 나라의 힘있는 건설력량도 투입해주시였다. 대동강기슭의 명당자리에 아이들의 행복의 요람을 꾸려주시려 건설중에 찾아오시기를 몇번, 부모없는 아이들이 가장 훌륭한 조건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시려 직접 설계가, 건축가가 되신 그이의 로고와 심혈이 그대로 층층이 되고 층계와 벽체가 되여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은 넉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서 완공의 날을 맞이하게 되였다.

주체103(2014)년 10월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완공된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돌아보시였다.

안팎으로 훌륭한 행복의 요람을 원아들에게 안겨주게 되신것이 그리도 기쁘신듯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던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부모없는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남부럽지 않게 내세워 그들모두를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야 한다고, 그렇게 하여야 부모없는 아이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하여 늘 마음쓰시던 수령님과 장군님의 소원을 풀어드릴수 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절세위인들의 사랑까지 합친 열화같은 정으로 이 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내세워 온 나라 강산을 더 밝게 해주시려는 위대한 어버이의 정.

이렇듯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이 세상 누구도 흉내낼수도 없고 지어낼 수도 없는 원아들의 삶의 요람, 행복의 보금자리로 솟아오른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이다.

행복한 설날

주체104(2015)년 1월 1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를 하신 후 온 나라의 민심과 세계의 초점은 그이께서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 어디를 찾으실것인가에 대해 모아졌다.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 및 국방분야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경제건설분야 등 국가의 중대사로 되고있는 모든 분야에서 경애하는 그이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의 손길을 고대하고있었다.

참으로 그이께서 꼭 찾으셔야 할 곳, 그이의 손길을 이제나 저제나 손꼽아 기다리고있는 곳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는 설을 맞는 원아들이 제일 앞자리에 자리잡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5년의 설날에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 도착하시자 귀여운 어린이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면서 삼가 설인사를 올리였다.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볼을 다정히 쓸어주시면서 새해에 복많이 받고 몸도 마음도 튼튼히 무럭무럭 자라나거라 하시며 따뜻이 축복해주시였다.

육아원, 애육원의 일군들이 그이께 새해 정초에 이렇게 찾아주시여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번에 왔을 때 설날에 오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 약속을 지켜 오늘 이렇게 나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어 식당, 보육실, 교양실, 잠방,

물놀이장, 지능놀이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원아들이 설을 어떻게 쇠고있는가를 알아보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식탁마다에 맛있고 영양가높은 특색있는 음식들을 풍성하게 차려놓은것을 보니 원아들을 위해 설준비를 성의껏 한것이 알린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에서 육아원과 애육원들에 물고기와 고기, 남새, 과일을 비롯한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떨구지 않고 보장해주는 체계를 그쯘하게 세워주었는데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맞게 영양관리를 위생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들리신 곳마다에서 원아들이 저저마다 달려나와 그이 품에 안기였다.

《아버지원수님!》, 《아버지!》

원수님의 품을 파고들며 동동 매달리는 모습은 감동의 눈물없이는 볼수 없었다.

원아들은 저저마다 아버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고운 옷을 입고 원수님앞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꿈이야기도 하였으며 고기, 사탕, 과자, 빵, 사과, 복숭아, 꿀을 먹는다는 자랑도 신바람이 나서 하였다.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원아들에게 이런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설을 함께 쇠니 얼마나 좋은가고, 힘들어도 보람있는 길을 걸어왔다는 자부심이

생긴다고, 이애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에 대하여 더 굳게 확신하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애육원 원아들의 설맞이공연을 보실 때였다.

원아들이 노래와 춤으로 자기들의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펼쳐보이는 속에 어느덧 마지막 공연순서인 합창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시작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을 담아 노래를 부르는 원아들의 두볼로는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원수님 보고싶었다고, 원수님이 지어주신 궁전같은 우리들의 새 집이 정말 좋다고 소리높이 자랑하며 원아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인사를 드리였다.

《아버지원수님! 고맙습니다.》

장내는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다.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눈가에도 뜨거운 것이 고여올랐다.

2015년의 설날.

정녕 그날은 원아들의 친아버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보낸 뜻깊은 설날, 원아들의 한생에 길이 새겨질 행복한 설날이였다.

거듭 찾아보신 지능교육도서

설을 맞는 원아들이 보고싶으시여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육아원에 먼저 들리셨을 때의 일이다.

육아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능놀이실에 이르시였다.

그곳에서는 육아원 원아들이 수자맞추기와 쪼각그림맞추기를 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수자맞추기와 쪼각그림맞추기를 하는 어린이들이 모두 맞추기놀이를 잘한다고 칭찬하시였다. 아이들이 모두 똘똘하다고 못내 기뻐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능놀이실의 책꽂이앞으로 다가서시여 《우리 말을 배워요》를 손수 꺼내드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기에 어린이들의 지능을 계발시키는데 필요한 책들도 있다고 하시면서 육아원일군에게 아이들이 몇살부터 글을 읽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을 곁으로 부르시여 어린이지능교육도서들을 많이 만들어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에는 물론 전국의 모든 육아원과 애육원들에 보내줄데 대한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어린이지능교육도서들을 잘 만드는것과 함께 다른 나라에서 만든 좋은 어린이지능교육도서들을 들여다 출판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어린이지능교육도서들의 실례까지 들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것을 다 우리 어린이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잘 번역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는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일군들은 수첩에 자자구구 적어넣었다.

하면서도 그들은 그이께서 어린이들의 지능교육용그림책을 찾아보시고 크나큰 심혈을 쏟으시는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있었다.

그때로부터 시간이 흘러 평양육아원을 다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애육원의 지능놀이실에 들어서시였을 때 그이께서는 거기에 지능교육용그림책들이 있는가에 대하여 또다시 알아보시였다.

애육원일군이 어린이지능교육용그림책들이 많다고 말씀드리며 한 책꽂이에서 그림책을 뽑아 그이께 드리였다.

원수님께서는 반갑게 받아드시고 주의깊게 보시였다. 그러신 후 이번에는 자신께서 손수 다른 책꽂이에서 그림책을 고르시여 한장한장 번져보시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쁘신 어조로 지능놀이실에 도서들이 많다고, 이 도서들은 어린이들의 지능을 계발시키는데 좋은 도서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림책을 손에 드신채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그런 책들을 더 많이 만들어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들에 보내줄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당부하시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많은 나라들에서 고아는 불행과 설음의 대명사이다. 그들이 잠시나마 배불리 먹고 뜨뜻이 지낼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행운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우리 원아들의 식탁에 매일같이 오르는것은 갖가지 영양식료품들과 신선한 물고기, 알알이 무르익은 과일들이고 날마다 곱게 차려입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옷들이다. 잠을 자도 엄마품마냥 포근한 침대에서 자고 뛰여놀아도 갖가지 놀이감들과 특색있는 유희기재들이 꽉 들어찬 놀이장과 원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알맞춤한 온도의 맑은 물이 찰랑이는 물놀이장에서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린다.

하지만 원아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키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과 포부는 정녕 잘 먹이고 곱게 입히고 즐겁게 뛰여놀게 하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였다.

일군들의 뇌리에 문득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몇해전 창전거리에 입사한 근로자들의 집을 찾으시였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마련해가지고 가시였던 뜻깊은 새집들이축하기념품중의 하나인 세계명작동화집이였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림책은 세계이고 력사이다.

더우기 최첨단문명에로 돌진하는 오늘의 시대에 지능교육용 그림책이야말로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창조적인 두뇌와 인재의 싹을 틔워주고 가꿔주는 훌륭한 스승이며 친근한 길동무인것이다.

일군들이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정책의 요구대로 보육교양사업을 짜고들어 당의 사랑과 배려가 원아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하여 그들속에서 훌륭한 과학자, 영웅, 군인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바로 나라의 꽃봉오리들인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사업에서부터 높이 발휘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거듭 찾아보신 그림책!

거기에는 원아들뿐아니라 온 나라 아이들을 지구를 한눈에 굽어보는 높은 지성과 고상한 문명의 날개를 지닌 세계적인 인재로 키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뜻이 깃들어있다.

일군들의 눈앞에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재대군이 무성한 숲을 이룬 우리 조국의 눈부신 래일이 파도쳐오고있었다.

◎ 아버지의 병문안

주체103(2014)년 5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일요일의 휴식도 미루시고 대성산종합병원을 찾으시였다.

그때 종합병원에는 많은 원아들이 입원하여 치료도 받고 보양도 하고있었는데 거기에는 깊은 사연이 있었다.

그해 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들의 실태를 료해하시였다.

실태료해자료에서 어느 한 도의 육아원과 애육원에 몸이 허약한 아이들이 있다는것을 아신 그이께서는 그들을 즉시 대성산종합병원에 입원시켜 보양시킬데 대한 과업을 인민군대에 주시였다.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총포탄이 울부짖고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전시에 민간인이 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한 사실은 많이 전해져오고있다.

그러나 전쟁때도 아닌 평화적시기에 아이들이 보양을 위해 군대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에 들어보기 힘들다.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분, 아이들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원아들을 위해 취해주실수 있는 사랑의 조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과 함께 입원실에 들어서시자 애육원 원아들이 저저마다 두팔을 힘껏 벌리며 엎어질듯 달려왔다.

《아버지!—》

《원수님, 안아주세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리광을 부리는 아이들을 사랑의 한품에 꼭 안아주시며 혈색이 좋고 영양상태도 좋다고, 하나같이 보동보동한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몇살이냐, 밥은 잘 먹느냐, 무엇을 하며 놀고있었느냐 다정히 물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물음에 꿈결에도 그리운 친어버이정을 느낀 아이들은 TV에서 아버지원수님을 뵈웠다고 씩씩하게 말씀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앞에서 원아들은 활기에 넘쳐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불렀으며 《아버지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였다.

헤여지기 아쉬워 또다시 동동 매여달리는 원아들을 달래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젖어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육아원 원아들의 입원실들에도 들리시였다.

아직은 말도 제대로 번지지 못하는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들을 반짝이며 아장아장 걸어와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이께서는 한명한명 다정히 품에 안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보육원들과 간호원들의 품에 안겨있는 애기들의 볼을 다정히 쓸어주시며 병원에 입원하기 전 애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한시름 놓인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몸무게관찰표를 주의깊게 보시며 아이들의 몸상태가 나이에 맞게 정상상태에 이르렀다고, 3개월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그럴수록 마음을 놓지 말고 더 잘 돌봐주라고 당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원아들이 퇴원한 후에도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하자면 육아원과 애육원의 보육원, 교양원들이 그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의 품속에서는 허약한 아이들이 단 한명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떠날 시간이 되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보시며 오늘 대성산종합병원에 찾아와 몸이 튼튼해진 원아들을 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친부모의 심정으로 온갖 지성을 다하여 아이들을 보양한 병원의 일군들과 군의, 간호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떠나가시였어도 군의들과 간호원들은

북받치는 격정으로 오래도록 움직일줄 몰랐다.

그이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스스럼없이 안겨드는 원아들의 응석과 어리광을 보면서 그리고 원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원수님의 자애깊은 모습을 우러르면서 받아안은 충격이 너무도 컸던것이다.

격정으로 설레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는 그들의 심장에서 무언의 웨침이 터져나왔다.

(원아들은 우리가 보살피는것이 아닙니다. 원수님의 사랑으로 원아들이, 온 나라 아이들이 튼튼히 자랍니다.)

◎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 심정이라시며

주체104(2015)년 4월 화창한 봄날의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이 완공을 앞두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이곳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를 또다시 모신 기쁨으로 하여 건설현장은 크나큰 감격으로 설레이였다.

그이께서는 완공을 앞둔 육아원, 애육원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건물외부만 보아도 멋있다고, 두달전에 이곳을 돌아볼 때는 먼지가 풀썩이고 골조만 서있었는데 벌써 완공을 앞두었다고, 이 일대가 천지개벽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마음껏 뛰여놀며 좋아할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그려보시는가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곳곳의 시공상태를 세세히 살펴보시며 걸음을 옮기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원산육아원, 애육원은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전진한다는 당중앙의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투쟁하고있는 인민군대의 숭고한 혁명관, 미래관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원아들을 위해 바치신 자신의 로고는 다 잊으신듯 건설자들의 수고를 값높이 평가해주시는 그이의 웅심깊은 믿음에 일군들의 눈굽은 쩌릿이 젖어들었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시였던가.

평양에 이어 각 도들에서 육아원과 애육원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 건설할것을 직접 발기하시고 그와 관련한 필요한 모든 대책을 다 세워주시였으며 지난 2월에는 한겨울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여기 원산육아원, 애육원건설장을 찾으시여 건설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그이이시였다.

보육실과 교양실, 아동도서실, 자연관찰실, 지능놀이실, 오락실, 종합놀이장, 물놀이장, 목욕실, 리발실, 치료실을 비롯한 육아원, 애육원의 모든 방들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한없이 기뻐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원아들의 보육과 교육교양, 성장발육, 지능계발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모든 시설들을 구색이 맞게 합리적으로 배치하였을뿐아니라 요소요소들을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그들의 창발성, 자립성을 키워줄수 있게 잘 꾸렸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밖으로 나오신 그이께서는 육아원, 애육원의 전경을 보고

또 보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에게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흠잡을데 없다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아이들의 희한한 궁전이 일떠섰다고, 근심걱정없이 마음껏 뛰여놀게 될 원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 심정이라고 자신의 심중을 절절히 터놓으시였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 심정.

무릇 사람들은 자기의 평생소원이 풀릴 때를 가리켜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 심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럴진대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원아들에게 제일 좋은 멋쟁이집을 안겨주게 된것이 너무도 만족하시여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 심정이라고 토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미래사랑의 세계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그것은 원아들의 아버지,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 진정이다.

그 마음속 진정에 원아들을 위해서라면, 온 나라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시려는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위인세계가 그대로 비껴있었다.

◎ 먼저 찾으신 탁아소

평양기초식품공장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미래관을 뜨겁게 새겨주는 이야기가 있다.

주체102(2013)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개건된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생산현장에 앞서 먼저 찾으신 곳은 공장구내에 있는 탁아소였다.

사실 공장일군들은 공장을 현대화하면서 공장구내에 있는 탁아소도 같이 개건하였지만 경애하는 그이께서 먼저 탁아소부터 들리실줄은 몰랐다.

일군들의 마음은 감동으로 설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자라나는 어린이들, 조국의 미래가 더 크게 자리잡고있었던것이다.

그이께서 마당에 들어서시자 놀고있던 아이들이 왁 달려와 안기였다.

새별같은 눈동자를 반짝이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귀여운 어린이들의 볼을 하나하나 어루만져주시고 등도 다독여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한 미소속에 아이들과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탁아소안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1층에 있는 방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식사칸의 이름도 바로잡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크릴미장벽체를 쓸어보시며 벽색갈을 미색으로 처리하였는데 벽색갈도 좋고 무늬도 멋있다고 만족해하시였다.

이어 지능놀이실을 찾으시여서는 품을 들여 꾸린것이 알린다고 하시며 일군들은 무엇을 하나 꾸려도 요구성을 높이고 빈틈이 없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2층에도 오르시여 아이들의 잠자는 방이며 놀이방, 학습실 등 모든 방들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였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탁아소를 다 돌아보시고 밖으로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학교교육사업과 함께 탁아소교육도 중요하다는 뜻깊은 말씀을 주시였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시였던 그날 왜 탁아소부터 찾으시였는지 그때에야 비로소 알게 되였다.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이날 생산현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요람부터 먼저 찾으시여 누구도 생각 못한 문제까지 일일이 바로잡아주신것이 아니겠는가.

먼저 찾으신 아이들의 요람.

오늘도 이 이야기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미래사랑을 뜨겁게 새겨주며 평양기초식품공장과 더불어 전해지고있다.

◎ 글소리 랑랑한 평양초등학원에서

뜨거운 사랑과 정이 넘쳐흐르는 평양초등학원.

다른 나라에서라면 부모없는 설음으로 눈물을 흘릴 아이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에 안겨 마음속 그늘 한점 없이 마음껏 배우며 행복하게 자라고있거니 원아들의 배움의 글소리 랑랑히 울리는 평양초등학원에 깃든 전설같은 이야기는 그 위대한 사랑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자 식 부 자

주체106(2017)년 2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새로 일떠선 평양초등학원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주변환경을 둘러보시며 새로 건설된 평양초등학원이 정말 보기 좋다고, 이 지구가 천지개벽되였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주변에 나무를 심은 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시에서 짧은 기간에 평양초등학원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아이들의 멋쟁이궁전, 먼 후날에도 손색없는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웠다고 하시면서 평양초등학원을 평양중등학원과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건설하였는데 구색이 잘 맞는다고 높은 평가의 말씀을 하여주시였다.

그이의 치하의 말씀을 받아안은 일군들은 한없는 기쁨으로 설레였다. 그러면서도 초등학원을 오늘과 같이 아이들의 멋쟁이궁전으로 일떠세우는데 바쳐진 그이의 로고와 심혈이 가슴뜨겁게 어려와 눈시울을 적시였다.

그날 오랜 시간을 바쳐 평양초등학원의 건설정형에 대하여 세심히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일군들에게 누가 몇년동안 원아들이 불었는가 줄었는가 장악해본 사람이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학원의 일군이 지난해에 초등학원 원아들이 12명 불어났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왜 불어났는가고 또 물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일군이 육아원, 애육원 원아들의 수는 늘지 않았는데 량부모가 병으로 사망한 아이들을 삼촌과 고모, 할머니들이 데리고있다가 원아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속에 부모있는 아이들도 부러워하게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학원에 보내여 불어났다고 보고드렸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의 말을 들으시고 긍정해주시면

서 환하게 웃으시였다.

계속하시여 학원에 홈페지를 개설한 정형과 그에 대한 리용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원아들의 학부형이 되여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사업을 적극 밀어주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원아들은 모두 자신의 아들딸들이라고, 부자중에서도 제일 가는 부자가 자식부자라고 하는데 자신께서는 자식이 제일 많은 자식부자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자식이 제일 많은 자식부자!

그이의 말씀을 접하는 일군들의 가슴은 무한한 격정으로 설레였다.

예로부터 어머니가 자식 하나를 키우는데는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했다. 그래서 《오마니》라고 부른다는 우스개소리도 있듯이 사실 친자식이라도 제대로 키운다는것은 헐한 일이 아니다.

하물며 부모없는 원아들만이 아닌 온 나라 아이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키워주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자식이 제일 많은 자식부자!

정녕 그것은 아이들의 밝고 행복한 모습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는분, 아이들을 위한 일에서 고생을 락으로 여기

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누리실수 있는 최상의 기쁨이고 락인것이다.

늘 따져보아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초등학원의 식료품창고에 들리셨을 때이다.

한 일군이 당반에 놓인 리진이 들어있는 봉지를 그이께 보여드리며 평양기초식품공장에서 만든 리진이라고 말씀올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에게서 리진봉지를 받아드시며 그것을 어떻게 먹이는가고 물으시였다.

국에 치거나 빵을 만드는데도 섞어 급식시키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맛이 어떤가고, 무맛인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며 영양기준에 맞게 국에 1g씩 풀어먹이고있다는것도 보고드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창고에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좋은 리진도 있는데 리진은 아이들의 키크기에 아주 좋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식료공장들에서 리진을 넣은 과자를 만들어 그것을 아이들에게 먹이면 그들의 키크기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좋은 콩우유와 같은 영양식품들을 많이 만들어 그들에게 먹이는것을 장려하

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다른 식료품창고로 가시여 쌓여있는 무우시래기, 미역도 보아주시고 간장, 된장을 비롯한 기초식품탕크도 하나하나 열어보시였다.

기초식품공장의 생산정형과 원아들에게 콩음식을 많이 먹일데 대한 문제, 학원들에 띄운콩을 보내주기 위한 준비사업과 온 나라 원아들의 교육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잘 돌봐줄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해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일창고에 들어서시여 원아들에게 먹일 하루급식 규정량에 대해서도 알아보시였다.

일군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으시며 그이께서는 당반에 놓인 빵 한봉지를 손에 드시고 정상적으로 공급되는가고 물으시였다.

정상적으로 공급된다는 일군의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며 원아들에게 간식을 정상적으로 먹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부모없는 아이들일수록 더 왼심을 쓰고 그 어느 부모도 줄수 없는 뜨거운 진정을 기울여가시며 어머니의 심정으로 원아들의 영양관리에 그토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말씀은 커다란 감동으로 일군들의 가슴에 와닿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전번에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돌아볼 때 보니 원아들이 영양상태가 많이 좋아지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완전한 기준수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원아들도 있었다고 하시며 원아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과학적으로 잘하여야 한다고, 원아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원아들이 균형적으로 성장할수 있다고, 학원일군들이 수첩에 영양공급기준표를 써가지고 다니면서 그대로 공급하도록 장악통제할뿐아니라 원아들의 영양상태가 기준수치에 도달하였는가 못하였는가 하는것을 늘 따져보아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늘 따져보아야 한다!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진 가르치심이였다.

오늘 하다 못하면 래일 하는 오분열도식으로가 아니라 평생토록 자식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어머니처럼 원아들의 성장발육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뛰여야 한다는 그이의 말씀의 뜻을 새겨안으며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갔다.

(언제면 경애하는 그이의 위대한 후대사랑의 높은 뜻을 제대로 받들수 있을가.)

◎ 랭기 한점 스며들세라

주체104(2015)년 11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훌륭히 개건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너무도 기쁘시여 이곳을 찾아오시였다.

궁전개건과 관련하여서만도 180여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250여건의 형성도안을 몸소 지도해주시였을뿐아니라 강력한 설계력량과 건설력량까지 파견해주시여 궁전을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하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나라일에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건설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시기 위해 궁전에 나오신 그이를 맞이한 궁전일군들과 소조원들은 커다란 환희에 휩싸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예술체조소조실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소조원들을 가르치고있던 지도교원이 《경애하는 원수님, 안녕하십니까. 뵙고싶었습니다.》라고 말씀올리며 허리숙여 인사를 드리였다.

소조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아버지원수님께로 달려왔다.

그이께서는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런데 소조실안을 둘러보시던 그이의 시선이 창문에 가닿으며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의 눈길도 거기로 쏠리였다.

창문들이 덩지가 큰 궁전의 위용에 어울리게 큼직하고 시원하게 나있었다.

일군들은 영문을 알수 없어 다시금 그이를 우러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창문들을 가리키시며 예술체조소조실 벽면이 거의다 창문으로 되여있는데 이렇게 하면 겨울철에 랭기가 많이 스며들어 온도를 보장하기 힘들다고, 소조원들이 겨울철에 이런데서 훈련하면 추워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한번 불을 켜보라고 이르시였다.

한 일군이 조명스위치를 눌렀다.

대낮인데도 불이 켜지자 실내가 더 환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라고, 일없다고 하시면서 소조실에 자연채광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것 같은데 조명시설이 다 갖추어진것만큼 창문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창문은 결정적으로 막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때 동행한 한 일군이 건식공법으로 창문을 막겠다고 보고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창문을 건식으로도 막을수 있지만 습식으로 막아야 바깥에서 스며드는 랭기를 완전히 차단할수 있다고 이르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공감한 일군들의 격정은 자못 컸다.

궁전이 개건된 후 지금껏 이곳을 찾는 일군들은 많았어도, 여기 예술체조소조실만 해도 여러 궁전 일군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어도 경애하는 그이처럼 그렇듯 다심하게 아이들을 걱정해본적이 있었던가.

이윽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창문들의 아래부분은 막고 거기에 국제경기자료나 예술체조기술동작 같은것을 보여주는 직관판들을 게시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창문들에 브론즈유리를 끼웠기때문에 창문안쪽을 막아도 밖에서 보면 알리지 않을것이라고 구체적인 대책적방도에 대해서까지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심장은 세찬 격정으로 달아올랐다.

(얼마나 다심하시고 세심하신분이신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우리 원수님의 후대사랑은 그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궁전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되시여 바람 한점 스며들세라, 랭기 한점 배여들세라 뜨거운 정을 기울여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는 진정 온 나라 어린이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 달라진 운동장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정을 그대로 이어가시며 온 나라 아이들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에 대한 이야기속에는 경상유치원의 운동장에 깃든 가슴뜨거운 사연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창전거리에 새로 건설된 경상유치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던 때에 있은 일이다.

자애로운 어버이의 거룩한 발자취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경상유치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사람들은 뜻밖의 광경에 모두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군인건설자들이 달라붙어 갓 포장한 유치원의 멋진 운동장을 다시 파헤치고있었기때문이였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운동장을 왜?)

유치원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넓고 환하게 잘 꾸려졌던 운동장을 다시 파헤치는 리유를 알길없어 한동안 어리둥절해졌던 사람들은 그곳 일군들이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의혹을 풀수 있었다.

그 전날인 주체101(2012)년 5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초여름을 앞둔 평양지방의 날씨는 몹시 무더웠다.

그리하여 일군들은 뜨거운 해볕이 쏟아져내리는 유치원 운동장에 서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시바삐 서늘한 방안으로 모시려고 하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운동장을 살펴보시며 심중한 안색을 지으시는것이였다.

(무엇때문에 그러실가?)

일군들은 영문을 알수 없었다. 피치로 산뜻하게 포장한 유치원마당에는 몇개의 놀이기재가 서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경상유치원 앞마당을 모두 피치로 포장하였는데 놀이터에까지 포장을 하는것은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놀이터에는 모래를 깔아주거나 풀판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어린이들이 저렇게 바닥을 피치로 포장한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떨어지면 상할수 있다고 걱정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유치원건설을 책임진 일군들에게 경상유치원 놀이터에 모래를 깔아주든지 록지를 조성해주어 어린이들이 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는것이였다.

그제서야 일군들은 자기들의 실책을 깨달았다.

장난세찬 어린이들이 승벽을 부리며 뛰여놀 유치원운동장을 돌처럼 굳고 딴딴하게 포장해놓고도 미끈하다고 만족해하고있던 자기들의 생각이 짧았다는것을 알게 되였던것이다.

오히려 아이들이 비오는 날에도 신발에 흙 한점 묻히지

않게 되였다고 좋아한 그들이였다.

그러나 한없이 다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유치원에 들어서시는 첫 순간에 벌써 운동장의 사소한 흠까지 놓침없이 헤아려보신것이였다. 아무리 숱한 자재와 로력을 들인것이라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새로 포장한것이라고 해도 아이들이 뛰노는데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준다면 다시 고쳐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숭고한 뜻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어린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군인건설자들은 그밤으로 피치포장을 들어내고 탄성좋은 고무깔판을 깔았으며 놀이터에는 록지를 조성함으로써 운동장을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수 있게 훌륭히 변모시키였다.

달라진것은 운동장의 바닥뿐이 아니였다. 운동장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보내주신 배그네, 비행기미끄럼대, 로케트비행기를 비롯한 각종 유희기구들도 그쯘히 설치되였다.

그늘 한점 없는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이 있기에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는 밝고 창창한것이다.

3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고많지만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이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일로 중시하시고 천문학적인 경제적실리보다 인민의 건강을 우선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열화와 같은 인민사랑과 헌신에 의해 이 땅에는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현대적인 병원들과 의료시설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인민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다.

◎ 밝은 눈을 안겨주는 류경안과종합병원

공화국에는 곳곳마다에 인민을 위한 병원들이 있다.

그중에는 특색있는 겉모습으로 길손들의 눈길을 끄는 류경안과종합병원도 있다.

건물의 정면벽에 사람의 눈을 생동하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외형만 보고서도 안과전문병원이라는것을 대번에 알수 있게 독특하게 건설된 류경안과종합병원은 외래병동과 입원실병동 등으로 이루어져있고 여러가지 안경을 교정, 제작하여 봉사해주는 안경상점까지 갖춘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이다.

백내장과, 록내장과, 소아안과를 비롯한 치료실들과 각막굴절검사실, 눈초음파검사실 등 여러 검사실에는 첨단의료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인민의 병원, 후대들에게 물려줄 손색이 없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은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꼭 하고싶으셨던 일

주체105(2016)년 5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건설장에 나오시였다.

차에서 내리시여 일군들과 다정히 인사를 나누신 그이께서는 륜곽이 확연히 드러난 병원건물들을 만족하신 시선으로 이윽토록 바라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현대적인 안과종합병원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것은 자신께서 오래전부터 구상해온것이며 꼭 하고싶었던 일이였다고,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것을 보니 정말 마음이 즐겁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해 꼭 하고싶으셨던 일.

그이의 말씀에 접하는 순간 동행한 일군들의 가슴속에는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정녕 어떻게 시작된 류경안과종합병원건설이던가.

예로부터 사람의 몸값이 천냥이면 눈은 팔백냥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눈은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불철주야의 초강도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시력문제를 걱정하시며 현대적인 안과종합병원건설을 발기하시고 병원의 위치와 규모는 물론 안과치료와 안경제작봉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형성안도 몸소 지도해주시고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시였으며 자재보장대책까지 일일이 세워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병원을 다기능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로서의 특성이 살아나게 내외부시공을 최상의 수준에서 함으로써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인민의 병원, 후대들에게 물려줄 손색이 없는 병원으로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안겨주자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아직은 공사중이여서 현장의 여기저기에 건설용휘틀과 발대목들이 그대로 설치되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험한 건설장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시며 공사추진정형을 알아보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그이께 강재가 미처 도착하지 못하여 공사속도가 처지고있다고 솔직히 말씀올렸다.

일군의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런가고 하시며 한동안 생각에 잠겨계시더니 즉석에서 중요대상건설장의 강재를 먼저 돌려쓰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병원건설이 순간이나마 지연되는것이 념려되시여 취해주신 긴급조치였다.

그로부터 몇달후.

완공된 류경안과종합병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훌륭히 꾸려진 병원의 여러곳을 커다란 만족속에 돌아보시며 인민들을 위해 꼭 하고싶었던 일을 해놓았다고 자신의 심정을 피력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불같으시였으면, 인민들의 시력문제를 두고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건설중에 오시여서도, 완공의 날에 찾아오시여서도 하고싶었던 일이라고 거듭 외우시였으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을 위해 꼭 하고싶으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실현되여 인민들이 누려가는 행복은 나날이 커만 가는것이다.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시며

안과전문치료기능과 안경봉사기능을 갖춘 종합적이고 다기능적인 의료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류경안과종합병원을 찾으시였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수 있는 희한한 안과종합병원이 건설됨으로써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은 우리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는 인민의 병원이라고,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면서 좋아할 모습을 그려보니 정말 기쁘다고 못내 만족해 하시였다.

이날 병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는 원수님의 존안에는 시종 기쁨의 미소가 떠날줄 몰랐다.

산뜻하게 꾸려진 휴식홀과 관통홀은 물론 모든 치료실들과 입원실들이 분위기가 좋다고, 안과전문병원으로서의 특성이 살아나게 가구제작과 가구배치도 잘하였다고, 류경안과종합병원에는 눈수술을 비롯하여 안과전문치료를 할수 있는 조건이 다 구비되여있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돌이켜보면 병원외부와 내부로부터 의료설비와 가구에 이르기까지 그이의 사랑의 손길이 깃들지 않은것이란 없다.

몇달전 병원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건설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병원운영을 잘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지금부터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류경안과종합병원을 우리 나라의 가장 발전된 안과전문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병원운영에 필요한 현대적인 의료설비들과 각종 비품들을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해결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뿐만아니라 류경안과종합병원의 안경상점에 과학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안경을 제작할뿐만아니라 사람들의 기호와 성별, 년령별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안경들을

만들어 봉사해줄수 있는 물질기술적수단들도 그쯘히 갖추어 주시겠다고 하시였다.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인민병원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류경안과종합병원은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을 그쯘히 갖춘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종합적이고 다기능적인 의료봉사기지로 일떠설수 있었던것이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 어느덧 떠나실 시간이 되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병원에 꾸려놓은 안경상점을 또다시 돌아보시였다.

원수님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을 돌아보니 대단히 만족하다고,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이 땅에 생을 둔 수천만사람들의 맑은 눈동자에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남다른 긍지와 행복만이 비끼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말이 있다.

허나 한사람만이 아닌 이 땅에 생을 둔 수천만사람들의 밝은 눈동자에서 자애로운 어버이를 우러르는 인민의 진정을 읽어본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인민을 위한 천만가지 소원을 안고 사시는분, 그 하나하나의 소원을 이루시였을 때 이 세상 더 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위대한 어버이이시라는것을.

◎ 녀성들을 위한 사랑의 궁전

어서 오라 두팔 벌려 부르는 어머니의 정깊은 모습으로 안겨드는 평양산원에 녀성들을 위한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인 유선종양연구소가 훌륭히 일떠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아마도 궁궐같은 산원에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귀여운 아이들을 낳고 온갖 부인과질병을 제때에 진단 및 치료받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녀성들처럼 복받은 녀인들은 세상에 없을것이다.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절세위인의 한량없는 사랑속에 일떠선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가 안고있는 가슴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는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자신께서도 주인이라시며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건설이 한창이던 주체101(2012)년 6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건설시공과 설비문제 등 연구소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

였다.

건물의 4층을 돌아보신 그이께서 계단을 내리실 때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문득 허리를 굽히시고 설치중인 불수강으로 된 계단란주와 나무로 된 계단란간을 만져보시였다.

《?…》

설계부문의 한 일군이 의아한 눈길로 그이의 손을 따르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손으로 바닥돌을 두드리시며 계단의 란주는 불수강으로 하고 란간대는 나무로 하였는데 같은 색갈의 돌로 설치하여야 하겠다고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구소계단에 설치할 란주와 란간대를 돌로 가공하여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돌문제는 자신께서 직접 파업을 주겠다고 하시며 걸음을 옮기시였다.

건설장의 곳곳을 다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숙연한 안색으로 건물을 다시 살펴보시며 젖은 음성으로 장군님께서 평양산원에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인 유선종양연구소가 건설되고있는것을 보시였더라면 대단히 기뻐하시였을것이라고 거듭 되뇌이시였다.

일군들은 그만 목이 메여와 고개를 떨구었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누구에게라 없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유선종양연구소를 건설할데 대한 말씀을 주신 날자가 언제인가고 또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그에 대하여 말씀드렸다.

벌써 몇번째나 물으신것이였건만 그이께서는 새삼스러운 어조로 그것 보라고, 당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이면 장군님께서 유선종양연구소를 건설할데 대해 교시를 주신지 1돐과 비슷하게 맞는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날을 맞으며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게 유선종양연구소를 완공하면 더 의의가 있을것이라고, 주인들이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건설물의 질은 올라가게 되여있다고, 유선종양연구소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산원일군들인것만큼 시공하는 사람들이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잔소리를 해야 한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산원일군이 눈물을 머금고 그이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맙기는 뭐가 고맙겠는가고 하시며 자신께서도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건설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동행한 일군들과 산원일군들의 가슴마다에 격정의 파도가 일었다.

사실 유선종양연구소건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깊이 관심하시던 대상이였다.

그런데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다보니 누구도 건설을 시작하자고 선뜻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천만가지 일을 돌보셔야 하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인 유선종양연구소건설과 관련한 여러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녀성들을 위한 사랑의 궁전건설에서 자신께서도 주인이라시며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존안에는 사랑과 정이 넘쳐흐르고있었다.

이날 병원에 놓게 될 설비들에 대해서도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신형의 CT값이 엄청나게 비싸 제기하지 못하고있는 산원일군들의 속마음도 헤아려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힘자라는껏 필요한 설비들을 보장해주겠다고,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설비들을 번듯하게 차려놓고 준공식을 하여야 하겠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자신도 유선종양연구소건설의 주인!

그이의 말씀의 뜻을 되새기는 일군들의 가슴마다에는 어버이장군님의 모습그대로 우리 녀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하신 어버이사랑이 뜨겁게 어려왔다.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의학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찾는 사람들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더듬어보며 심장깊이 새기는 진리가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건설중인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의 렌트겐촬영실에 들리시였을 때의 일이다.

산원일군으로부터 녀성들의 유선암치료에 대하여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녀성들이 유선암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녀성들이 유선암에 걸렸는가 걸리지 않았는가 정확히 검진하려면 촬영설비를 비롯한 설비들을 세계적수준에서 잘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치료설비들을 그쯘하게 갖추어놓아야지 건물이나 번듯하게 꾸려놓아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였다.

녀성들을 위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제일 멋진 유선종양연구소를 안겨주시려는 그이의 육친적사랑에 일군들모두가 감격을 금치 못해하였다.

한동안 일군들을 둘러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유선종양연구소를 운영하면 녀성들이 다 여기에 와서 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회주의의학은 철저히 예방의학이라고 하시

며 사람들이 병에 걸린 다음 수술을 하느라고 하지 말고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의학은 철저히 예방의학이다!

자자구구 새길수록 사회주의보건의 사명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금 새겨주신 그이의 귀중한 말씀이였다.

일찌기 예방의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6년 10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의학이다》에서 사회주의의학의 성격과 사명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예방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의학의 원리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사회주의의학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예방을 치료에 확고히 앞세우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사람들을 온갖 질병의 구속에서 해방시켜주시려 끝없는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신 절세위인들의 정력적이고 세심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보건제도는 병이 날세라 전체 인민에 대한 건강관리를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가장 인민적인 보건제도로 년대와 년대를 이어 빛을 뿌리게 되였다.

인류력사와 더불어 의학이 발생, 발전하여온지도 수천년을 헤아린다.

허나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력사의 갈피에 치료에 앞서 예방을 중시할데 대하여 론한적이 있었는가.

누구나가 병이 나면 무상으로 치료받을수 있는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와 함께 전체 인민에 대한 예방치료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실시하는 가장 인민적인 보건제도.

정녕 그것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인민적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이 땅, 이 하늘아래에서만 꽃펴날수 있는 사회주의보건의 본태이고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이다.

그이의 말씀을 심장속에 쪼아박으며 일군들은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갈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사소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주체101(2012)년 11월 어느날이였다.

나라의 천사만사를 돌보시느라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훌륭히 완공된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찾으시였다.

그이를 맞이하는 일군들의 가슴에는 뜨거운것이 고패쳐올랐다.

자신께서도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건설의 주인이라고 하시며 몸소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여 건설과 운영준비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고 구체적인 대책들도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바치신 모든 심혈과 로고는 다 잊으신듯 원수님께서는 중앙홀에 들어서시여 마치 궁전에 온것 같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건강한 몸으로 만복을 누려갈 녀성들의 모습을 즐겁게 그려보시였다.

유관내시경실, 초음파실, 심전도실, 입원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구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구석구석 료해하시였다.

평양시뿐만아니라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통하여 전국의 녀성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를 할수 있다는 일군들의 아뢰임도 기쁘게 들어주시였고 첨단의료설비들을 그쯘하게 갖추어놓은데 맞게 녀성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유선증과 유선암을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적발하여 치료해주는것이 중요하다는 세심한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입원실의 침대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환자들이 입원해서 며칠동안 있는가를 물어주시고 입원실에 있는 침대의 개수에 대하여서도 헤아려주시였으며 입원실들에 랭동기와 TV를 놓아줄데 대한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종합수술실을 돌아보시면서는 무균화를 철저히 보장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르시였고 귀중한 시간을 바치시며 위생복과 환자복, 신발, 모자, 실내용신발견본들까지 구체적으로 보아주시였다.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뇌리에 문득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이 나라 녀성들이 누리는 복받은 삶에 대한 생각이였다.

온 나라 녀성들이 자기들의 친정집으로 정답게 부르는 평양산원.

온갖 조건이 다 갖추어진 여기에서 귀여운 아기들을 낳고 입원한 첫 순간부터 퇴원할 때까지 산꿀을 비롯한 귀중한 보약재들과 영양제식사를 공급받는다. 그들의 건강을 위해 리용하는 다목적렌트겐을 비롯한 값비싼 진단설비들과 항암제치료 등 무상으로 받는 의료상혜택을 값으로 친다면 그것은 참으로 엄청난것이다.

이렇듯 궁전같은 산원에 오늘은 현대적인 유선종양연구소를 마련해주신것만도 하늘같은 은정이건만 녀성들이 입원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유선종양연구소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손색없이 꾸려진것만큼 설비관리와 운영을 잘하고 예방치료와 과학연구사업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잘하여 당의 사랑과 배려가 우리 녀성들에게 고스란히 가닿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녀성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끝없는 열망에 넘쳐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자자구구 새겨안으며 일군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였다.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피시는 그이의 이렇듯 한량없는 보살핌속에 평양산원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병치료를 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이 나라 녀성들은 얼마나 복받은 녀인들인가.)

◎ 오복과 류경치과병원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건강을 중시한데로부터 이발이 든든한것을 오복의 하나라고 하고 정월대보름날에 이발이 든든해지라고 굳은 음식을 깨무는 풍속도 전해지고있다.

건강과 장수를 바라는 인민들의 소박한 마음이 담긴 속담이고 풍속이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인민의 소원을 현실로 꽃피워주는 류경치과병원에서 우리는 인민들의 건강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과 헌신의 자욱을 더듬어본다.

세상에 둘도 없는 병원으로

류경치과병원건설이 한창이던 주체102(2013)년 7월이였다.

방금전까지 억수로 쏟아진 소낙비로 건설장구내는 온통 흙탕투성이였고 골조공사가 끝난 기본건물의 현관부에는 층막공사

를 하느라고 세워놓은 버팀대들이 촘촘하였다.

바로 이런 험한 곳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찾아오시였다.

신발이 푹푹 빠지는 건설현장을 앞장서 걸으시며 현관앞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버팀대들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헌헌한 안색으로 건물의 내부를 쭉 둘러보시고나서 공사추진정형과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료해하시였다.

일부 자재가 부족하여 건설에 지장을 받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즉석에서 대책을 세워주시였고 병원안에 치과위생용품들과 치료기재들을 팔아주는 상점을 잘 꾸릴데 대하여서와 병원에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을 그쯘히 갖추어줄데 대하여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병원의 설비들을 마련할바에는 제일 좋은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몇번이나 강조하시고나서 아동병원, 치과병원건설장에 앞으로도 자주 나와보겠다고, 이 병원들을 세상에 둘도 없는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일을 더 잘하자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세상에 둘도 없는 병원!

일군들은 크나큰 감동속에 절감하였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세상에서 좋은것이

라면 그 무엇이든 다 안겨주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마음은 이처럼 뜨겁고 열렬한것이였다.

인민을 위한 길에서 비바람, 찬바람도 달게 맞으시고 고생도 락으로 여기시며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사랑과 정을 담아

병원건설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있던 주체102(2013)년 9월 어느날이였다.

한여름의 궂은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건설현장을 찾으시였던 못 잊을 7월의 그날로부터 불과 두달 남짓한 사이에 또다시 이곳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추진정형에 대하여 친어버이심정으로 하나하나 료해하시였다.

이발은 밤에 많이 쏘기때문에 구급과치료실을 꾸려놓은것은 잘하였다고 치하도 해주시고 치과종합치료기의 대수와 그에 따르는 치료인원에 대해서 몸소 가늠도 해보시였다. 치과치료와 입냄새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설비들을 다 설치해주고 소독사업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으며 복도벽면에 붙인 타일을 두드려도 보시고 만져도 보시며 인민들에게 안겨줄 치과병원을 어느모로 보아도 손색이 없게 하시려 깊이 마음쓰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일군들에게 계단앞의 빈 벽을 가리키시며 모르는 사람들은 저기에다 풍경화를 붙이자고 하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벽면의 공간들에는 치과상식과 관련된 자료들을 걸어놓아야 한다고 다정히 이르시였고 어린이놀이장을 보시고서는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마무리를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기를 그 몇번…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는듯 병원운영준비를 지금부터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현대적인 치과병원을 꾸려놓았으면 그것이 은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러자면 의사와 보철사, 간호원들도 잘 꾸려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현대적으로 꾸려진 치과병원에서 마음껏 치과치료를 받으며 복된 삶을 누려갈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동안 미소를 지으시고 서계시였다.

그이께서는 생각깊은 시선으로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치과병원의 이름을 잘 지어야 하겠다고 이르시면서 병원에 평양의 상징적인 표현인 《류경》이라는 이름을 붙이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류경치과병원!

일군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일제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뜻이 깊은 이름을 불러보았다.

누가 듣기에도 인민을 위한 치과병원이 평양에 있다는것이 방불히 안겨왔다.

병원의 이름 하나를 놓고서도 인민들에게 정이 들고 친근하게 안겨들도록 하여주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뜻에 일군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참으로 류경치과병원은 우리 인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가시는 절세위인의 위대한 사랑과 헌신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훌륭하게 일떠선 류경치과병원은 그이께서 몸소 지어주신 이름과 더불어 인민사랑의 기념비적창조물로 길이 빛날것이다.

참관을 위한 병원이 아니다

개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류경치과병원에 대한 소문은 날개돋친듯 온 나라에 퍼지기 시작했다. 누구나 이발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의례히 이 병원에 가보았는가고 묻는것이 인사말처럼 되였다.

주체103(2014)년 3월 어느날.

류경치과병원으로는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치료를 받고있었다.

하지만 평범하게 흘러가던 이날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병원

을 찾아주실줄 어이 알았으랴.

의사, 간호원들과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이 올리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치과진찰실을 찾으시였다.

치료받는 환자들의 모습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의사에게 지금 무슨 치료를 하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환자들의 이돌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고있다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이돌제거때에는 반드시 치태염색제를 써야 한다시며 치과부문 전문가들만이 알수 있는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린이놀이장에서 뛰여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며 병원에 놀이장을 꾸려놓게 하기 잘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고 치료실벽들에 TV를 설치해주어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며 영화도 보고 화면음악도 들을수 있게 할데 대하여 일일이 깨우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보철과치료실에도 들리시였다.

그때 치료를 받고있던 한 할머니가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가가 감사의 큰절을 올리였다.

환하게 웃으시며 할머니를 부축하여 일으켜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할머니가 어디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왔는가고 의사에게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할머니를 아프지

않게 잘 치료해주라고 거듭거듭 당부하시였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병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찾아와 치료를 받고있는것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병원에서 의료봉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류경치과병원을 건설하기 잘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바로 그래서였다.

류경치과병원을 찾아오신데는 의료봉사실태와 관리운영정형을 정확히 료해하여 인민들을 위한 참다운 인민의 병원으로 되게 하시려는 그이의 깊은 의도가 있었다.

이날 병원에서 필요되는 치과재료를 원만히 보장해줄데 대하여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류경치과병원을 참관이나 시키는 병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치료해주는 병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병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병원이 되여야 한다.

바라만 보아도 절로 병이 나을것 같은 훌륭한 병원을 세워주시고도 이렇게 또다시 찾으시여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인민의 건강을 위해 일을 잘할데 대하여 거듭 당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과 의사, 간호원들은 심장의 맹세를 다지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겠습니다.

◎ 경치좋은 곳에 위치한 보건산소공장

보건산소공장은 평양시교외의 경치좋은 곳에 위치하고있다.

울창한 수림과 맑고 청신한 공기, 유리한 교통조건 등 주변의 환경은 의료용산소생산기지로서는 정말 안성맞춤이다.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치료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질좋은 의료용산소들을 생산하여 시안의 병원들에 공급하는 이 의료용산소생산기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하고 정답게 안겨오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들고 오신 형성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건산소공장건설장을 찾으신것은 주체105(2016)년 5월의 어느 일요일이였다.

그이께서 타신 승용차가 수렁판을 메꾸어 림시로 낸 작업도로를 따라 서서히 들어섰는데 차체에는 온통 흙탕물이 튀여있었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을 더욱 놀라게 한것은 그 다음이였다.

몹시 들추는 차안에서도 보고계신듯 공장형성안을 한손에

드신채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리시는것이 아닌가.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가슴은 감동과 흥분으로 젖어들었다.

인민들의 병치료에 이바지할 보건산소공장의 완공을 그 얼마나 고대하시였으면 남들이 다 쉬는 일요일 휴식날마저 바쳐가시며 몸소 형성안을 손에 드시고 건설장을 찾으시였으랴.

활달하신 걸음으로 조감도앞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건산소공장배치계획안과 설계안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공장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벌써 공장의 체모가 안겨온다고, 당에서 직접 파견한 건설자들이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치하해주시며 보건산소공장을 세계에 둘도 없는 공장으로 건설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세상에 둘도 없는 보건산소공장.

일군들은 그이께서 들고 오신 형성안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보건산소공장을 보는것만 같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장을 돌아보시며 일군들에게 의료용산소공장만 건설할것이 아니라 의료용산소를 공급할수 있게 공장가까이에 공급소도 지어주며 산소를 병원마다 실어나르는 차들의 차고도 건설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그리고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하고 공장관리운영에 필요한 통합조종체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구축하며 여러가지

목적에 리용되는 의료용산소병들도 그쯘히 갖추어놓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손에는 형성안이 그대로 들려있었다.

무더운 날씨에 흙먼지가 펄펄 날리는 건설장의 구석구석까지 일일이 돌아보며 가르치심을 주시느라 그이의 구두에는 먼지가 뽀얗게 올랐고 옷깃은 땀에 흠뻑 젖어있었다.

이날 동행한 일군이 그이께 보건산소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인민들이 모두 기뻐하고있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만시름을 놓으신듯 웃으시며 누가 또 좋아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이 의사들도 좋아한다고 말씀드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진정 사랑하는 인민의 기쁨에서 이 세상 더없는 행복을 느끼시는 절세위인의 호방한 웃음이였다.

사람들은 그날의 뜻깊은 화폭을 길이길이 마음속에 새겨안고있다.

형성안을 손에 드시고 보건산소공장건설에 자신의 심신을 바쳐가시던 그이의 열정에 넘치신 모습을.

작고도 큰 공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5(2016)년 9월의 어느날 완공된 보건산소공장을 찾으시였다.

교통조건이 유리하고 청신한 공기가 흐르는 울창한 수림속에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콤퓨터화되였으며 병원들에서 아무런 불편이 없이 산소를 받아갈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의료용산소생산 및 공급기지—보건산소공장이 자기의 자태를 한껏 드러내고있었다.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오는 아담하고 정갈한 보건산소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부지를 잡아주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공장을 멋쟁이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세웠다고, 건설자들이 당에서 정해준 날자에 공장건설을 끝내느라 그동안 수고들이 많았다고 치하하시였다.

그이의 과분한 치하의 말씀은 일군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공장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평양시교외의 명당자리에 공장부지도 잡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공장건설력량을 몸소 파견해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였으며 건설현장에까지 나오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그이의 세심하고 정력적인 령도를 떠나 어찌 멋쟁

이공장으로,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보건산소공장의 오늘에 대하여 생각이나 할수 있으랴.

건설장을 찾으시였던 그날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부문에서 리용하는 의료용산소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산소와는 달리 높은 위생안전성을 요구한다고, 질좋은 의료용산소를 꽝꽝 생산하여 병원들에 보내주자면 보건산소공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그 음성이 금시라도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다 잊으신듯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보건산소공장을 정말 멋들어지게, 주변의 자연풍치와 어울리게 건설하였다고, 의료용산소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는것이 직관적으로 알리게 건물장식을 특색있게 했다고 하시며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였고 공장관리운영에 필요한 통합생산체계를 훌륭히 구축하였으며 산소분리기장, 산소충진장을 비롯한 생산공정들마다에 현대적인 설비들도 그쯘히 갖추어놓았을뿐아니라 의료용산소를 운반하는 전용차까지 마련해놓았는데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그리고 산소공급소를 미학성, 편리성, 실용성의 원칙에서 잘 건설

한데 대하여 치하도 해주시고 산소공급소에 줄지어 세워놓은 산소병들을 보시고는 산소병마다에 그것을 리용할 병원들의 이름까지 새겨넣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건산소공장은 비록 크지 않지만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작고도 큰 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작고도 큰 공장!

일군들의 가슴은 뭉클 젖어들었다.

오늘날 산소의 리용분야는 대단히 넓으며 그중에서도 의료용산소의 생산은 인간의 병치료와 생명보호에서 필수적인 요구로 나서고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들의 병치료에 이바지하는 의료용산소를 생산해서 이 공장이 작고도 큰 공장으로 되는것이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을 바쳐 마련하신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이 영원히 빛나도록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보건산소공장이 작고도 큰 보배공장으로 솟아오르고 우리 인민은 온갖 병과 근심을 다 잊고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는것이다.

◎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투쟁

주체107(2018)년 1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양제약공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맵짠 추위도 무릅쓰시고 평양제약공장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며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평생 마음쓰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접하며 일군들은 인민보건사업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헌신의 자욱자욱을 숭엄한 마음으로 되새겨보았다.

해방후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나라의 첫 제약공업기지로 평양제약공장건설을 직접 발기하신 어버이수령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여 평양제약공장에 현대적인 의약품포장재생산공정을 새로 꾸리도록 하시고 최신형의 의약품포장재생산설비들을 보내주시여 공장의 물질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대중의약품생산에서 개선을 가져오도록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평양제약공장에 현대적인 의약품포장재생산공정이 꾸려졌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너무도 만족하시여 나라의 중대사를 토의하는 회의도 뒤로 미루시고 한달음에 달려오신 잊지 못할 이야기는 오늘도 공장의 연혁사와 함께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신약과 고려약들을 제품견본실에 전시해놓았는데 가지수도 많고 약효도 높다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생산과 품질관리를 엄격히 진행하여 의약품의 질을 담보하고있다고 치하도 해주시고 우리 나라의 제약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기준의 요구에 맞는 통합생산체계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잘 구축해놓은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리고 고려약직장의 여러 생산공정들을 기술개건한데 대해서도 평가해주시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자체로 만든 약초선별기, 세척기, 건조기, 제분기를 비롯한 설비들이 좋다고 기뻐하시였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일군들은 그이의 심중에 자리잡고있는 깊은 뜻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윽하여 우리 나라 인민적보건제도

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물질적기초이며 치료예방사업의 기본수단의 하나인 의약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자면 평양제약공장을 더욱 현대적으로 개건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평양제약공장의 개건현대화는 단순히 의약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 조선로동당의 보건정책이 좋다는것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실지 페부로 느끼도록 하게 하는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투쟁, 보람찬 투쟁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투쟁!

참으로 우리 원수님처럼 인민을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며 크나큰 은정을 끊임없이 돌려주시는 령도자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나라마다 보건정책이 있고 또 제나름의 명성을 자랑하는 수많은 제약공장들이 있다.

하지만 제약공장현대화를 단순히 치료를 위한, 약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지로 인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민이 덕을 보는 성스럽고 보람찬 투쟁으로 여기는 그런 나라, 그런 정책을 세인은 알지 못한다.

진정 그것은 인민의 령도자를 높이 모신 사회주의 이 땅에서만이 불리울수 있고 철저히 실행되고있는 인민에 대한 복무

관점이고 정책인것이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귀한 말씀을 심장에 쪼아박으며 우리 나라 제약공업부문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으로 훌륭히 개건되여 인민의 무병장수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평양제약공장의 새 모습을 그려보았다.

◎ 그림처럼 안겨오는 치과위생용품공장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오는 멋쟁이공장들중에는 치과위생용품공장도 있다.

크지 않은 부지에 생산건물과 사무청사, 편의건물 등이 집약적으로 들어서고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성격에 맞게 붙인 흰색과 록색타일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건축물의 미를 한껏 돋군다.

생산건물벽에 부각된 백학을 형상한 공장마크도 정취있게 눈길을 끌고 앞마당에 조성한 잔디밭이며 푸르싱싱하게 자라는 나무들도 공장의 풍치를 돋구어준다.

하지만 그보다 여기에 깃든 절세위인의 숭고한 인민관,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세계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준다.

자그마한 생산흐름선이 전문공장으로

치과위생용품공장에서 생산된 각종 치과위생용품들이 대단한 호평을 받고있다.

일반치약, 어린이치약과 함께 효소치약, 불소치약, 황경피치약, 소금치약 등을 비롯하여 이발의 위생을 보장하고 여러가지 치과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리용되는 기능성치약, 치료용치약 등 치약만 해도 그 가지수가 많고 약효 또한 좋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며 년간 수천만개의 치약, 함수약, 각종 치과위생도구들을 생산하는 능력이 큰 치과위생용품종합생산기지가 솟아나게 된데는 깊은 사연이 있다.

원래 치약생산은 화장품공장들에서 한개의 공정으로 꾸려져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치과위생과 건강에 절실히 필요한 치과위생용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일떠세울것을 결심하시고 중대한 국사가 겹쌓인 속에서도 공장건설을 발기하시고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서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수시로 건설정형을 료해하시고 공사가 마감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현대적인 치과위생용품생산설비들을 일식으로 마련해

주신것을 비롯하여 공장건설을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낮과 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누구나 례사롭게 생각했던 자그마한 생산흐름선이 전문공장으로 훌륭히 일떠설수 있게 된것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사색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인것이다.

주체106(2017)년 6월 현대적으로 건설된 치과위생용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존안에는 기쁨의 미소가 어려있었다.

공장전경을 한동안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치과위생용품공장을 건설하기 참 잘하였다고, 앞으로 치과위생용품공장에서 좋다고 하는 치과위생용품들을 다 개발생산하게 하자고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해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멋쟁이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워주시고도 인민들에게 질좋은 치과위생용품들을 한가득 안겨주실 열망으로 가슴 불태우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격정으로 눈시울을 적시였다.

대단히 중시하는 공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치과위생용품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구축한 통합생산체계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며 모든 생산공정의 감시 및 자동조종체계를 잘 세워놓았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고 함수약병생산공정의 자동화수준도 대단히 높다고 평가하시였으며 각종 치간실과 솔이 달린 이쑤시개들, 틀이세척솔, 혀긁개, 혀솔 등을 생산하는 치과위생용품생산공정도 아주 잘 꾸려놓았다고 하시면서 제품들의 질도 괜찮다고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그이의 과분한 말씀에 공장일군들은 몸둘바를 몰랐다.

모든 성과를 공장일군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주시는 그이의 웅심깊은 사랑이 목메여올랐던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다 몰랐다.

치과위생용품공장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 어떤 무게로 소중히 자리잡고있는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치과위생용품공장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공장, 자신께서 대단히 중시하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무병장수를 위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

하시였다.

대단히 중시하는 공장!

일군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그이의 심중에 치과위생용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그처럼 거대한 무게로 자리잡고있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치과위생용품공장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질좋은 치과위생용품들을 인민들에게 떨구지 말고 보장해주어 인민들이 그 덕을 단단히 보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자신께서 모두 풀어주시겠다고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은 정녕 끝이 없었다.

◎ 업어주고싶은 심정

주체104(2015)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정성제약종합공장을 찾으시였다.

수액공장을 현대적으로 확장하고 여러가지 수액약품을 생산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너무도 기쁘시여 한달음에 달려오신 원수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종 미소를 지으시고 종합공장의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종합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여러가지 의약품들을 보아주시며 가지수가 많고 효능도 높다고, 공장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반영이 좋다는데 기쁜 일이라고 하시였으며 약품포장에서 새로운 개선을 가져온데 대해서도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현대적으로 확장된 수액공장에 들리시여서는 여러가지 수액약품들이 대량생산되고있는 흐뭇한 광경앞에서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수고를 거듭 치하하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공장일군들의 마음은 긍지로 부풀었다.

전해에 경애하는 그이께서 이곳을 찾아주신 때로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수액공장을 생산능력이 훨씬 큰 수액약품생산기지로 확장하고 수지주머니성형으로부터 주입, 접합,

적재, 멸균, 포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흐름선화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현대화공사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하신 손길은 그들모두에게 있어서 마를줄 모르는 힘의 원천이였고 기적창조의 힘있는 원동력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이 련이어 창조되고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는 속에 정성제약종합공장에서도 대단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정말 만족하다고 하시면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업어주고싶은 심정이며 그들에게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공장일군들의 눈뿌리가 화끈 달아올랐다.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며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의 자그마한 성과를 두고 그토록 대견해 하시며 업어주고싶은 심정이라고 하시니 세상에 이런 믿음과 기대가 또 어디 있겠는가.

그이께서는 일 잘하는 사람을 만나실 때면 업어주고싶은 심정이라고 자주 외우신다.

그이께서 불러주시는 영광의 단상에 오늘은 자신들도 나란히 섰다고 생각하니 받아안은 그 사랑, 그 믿음이 너무도 분

에 넘쳐 공장일군들은 눈시울을 적시며 한생을 인민을 위한 복무자로 살리라 굳게 다짐하였다.

◎ 기능장애자들의 사랑의 집

평양의 문수거리에는 장애자들이 《우리 집》이라고 정답게 부르는 문수기능회복원이 문수물놀이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있다.

기능장애자들에 대한 회복치료와 봉사활동을 전문적으로, 종합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방대한 규모에 손발치료실, 근육강화치료실, 일상생활동작치료실, 작업치료실, 물치료(수중치료)실, 감탕치료실, 파라핀치료실 등 각종 치료실들과 최신식 치료 및 운동기재들, 장애자용뻐스까지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치료실들에 구비되여있는 다목적렌트겐, 심폐기능검사기, 3차원심장초음파진단기, 뇌파기를 비롯한 치료설비들 또한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보기 드문 현대적설비들이다.

이렇듯 훌륭하고 현대적인 기능회복원에서 평범한 근로자들과 기능장애자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의사, 전문가들의 친절하고 적극적인 진단과 방조하에 기능회복치료를 받고있다.

하기에 이곳을 돌아본 많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이런 훌륭한 의료봉사기지를 평범한 근로자들이 무상으로 리용하고

있다니 참으로 놀랍다, 기능장애자들을 위하여 국가가 이렇듯 훌륭한 치료 및 봉사기지를 꾸려주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며 공화국의 인민적보건시책에 찬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흔히 기능장애에 대한 회복치료라고 하면 로력과 자금이 많이 드는 치료로 알려져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기능회복치료비용이 너무 비싸 일반대중은 치료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있다. 물치료실만 놓고보아도 운영비용이 많이 드는것으로 하여 기능회복치료의 력사가 오래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정부급의 높은 인물들만이 리용하고있는것으로 인식되고있다.

하지만 인민이 주인된 이 땅에서는 누리는 복도 응당 인민의것으로 되여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투철한 인민적 복무정신에 의하여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문수기능회복원이 건설되게 되였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지금 우리 병원들에서는 생명이 위험한 구급환자를 소생시키면 그것으로 치료가 다된것처럼 생각하고있는데 환자를 소생시킨 다음에는 해당 질병계통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어버이사랑속에 문수기능회복원이 건설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과 관련하여 형성안과 설계안들을 직접 보아주신것만 해도 백수십여차나 된다. 설계가들과 건설전문가들을 외국에 파견하여 그들이 세계적인 안목과 시야를 넓히도록 하시는 등 그이께서 바치신 헌신의 낮과 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건설과정을 수시로 료해하시고 필요한 조치도 다 취해주시였으며 건물이 완공되였을 때는 최상급의 치료설비들로부터 특수한 기능을 갖춘 뻐스에 이르기까지 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설비와 기재들을 일식으로 마련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는듯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기능장애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치료 및 봉사기지인 문수기능회복원.

정녕 그것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안아온 장애자들을 위한 사랑의 집이다.

오늘도 최첨단치료장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문수기능회복원에서는 유능한 의사들의 지도밑에 평범한 근로자들과 장애자들이 기능회복의 기쁨과 생의 희열을 되찾고있다.

◎ 약수목욕탕

강서약수공장에는 약수목욕탕이 있다.

현대적미감이 나게 일떠세운 건물에 치료실과 운동실 등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는 이곳에서는 강서약수를 가지고 여러가지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고있다.

치료효과가 좋아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것이 이곳 종업원들의 자랑이기도 하다.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명한 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는 약수목욕탕, 여기에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가 있다.

주체106(2017)년 6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서약수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그날 약수터에도 들리시여 그곳의 음천장에서 친히 약수맛도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찾은 원수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원수장에서는 보기에도 정갈하고 시원해보이는 약수가 거침없이 뿜어져나오고있었다.

그 광경을 만족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약수가 자연적으로 용출되는것을 보니 멋있다고 하시며 공장일군에게 얼마나 나오는가고 물으시였다.

공장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다시 얼마나 생산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용출량에 비해 약수생산에 다 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말씀올렸다.

그러자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에 리용하지 못하는 약수도 그대로 흘러보내지 말고 다 리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약수로 목욕을 하면 건강에 좋을것이라고 친히 방도까지 밝혀주시였다.

가책되는바가 컸다.

공장일군들은 그냥 흘러보내는 약수가 아깝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가스가 모자라 어쩔수 없는 일로 여기고있었다. 더구나 약수목욕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있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서약수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약수를 많이 생산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재부가 철두철미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서약수공장에서는 약수를 많이 생산함으로써 인민들이 약수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약수목욕탕은 이렇게 생겨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약수목욕탕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목욕탕형성안도 몸소

지도해주시고 건설력량과 자재들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해주시였다.

약수목욕탕, 정녕 그것은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워주시고 인민이 바라는 모든 꿈을 이 땅우에 현실로 꽃피워주시려 끊임없는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어린 조치에 의하여 솟아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또 하나의 봉사기지이다.

◎ 보석이라도 찾으신듯

예로부터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불러오는 우리 나라에는 인민들의 병치료와 건강보호에 좋은 약수, 샘물들과 함께 온천들도 많다.

솟아나는 곳도 다르고 약효도 각각이지만 하나하나의 온천들마다에는 절세위인들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은정이 뜨겁게 어려있다.

주체107(2018)년 8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안남도 양덕군안의 온천지구를 찾으시였다.

병치료도 하고 관광과 휴식도 할수 있는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본보기 온천관광지구를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그이께서 오르신 현지지도의 길이였다.

마중나온 일군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안의 온천지구에 현재 꾸려져있는 료양소들의 운영실태와 온천리용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양덕군안의 온천들은 류황성분이 많고 라돈이 극히 적은 고온천으로서 용출량이 대단히 많고 약리적작용과 치료효능이 높을뿐아니라 이번에 온천수성분을 분석해본데 의하면 오염성평가지표인 암모니움과 아질산, 질산이온들과 병원성미생물이 전혀 없어 오염되지 않은 온천으로 평가되였다고 하시면서 이 지구에 종합적인 료양 및 문화휴양지를 훌륭하게 개발하려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명한 생활을 위해 온천들의 약리효과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는 원수님의 말씀에 일군들은 모두 감탄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높낮은 산발들과 험한 령길을 헤치시며 양덕군 온정리일대의 온천골들을 돌아보시였다.

하늘에서는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져내렸다.

그런데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온도가 80℃나 되는 뜨거운 물이 더운 김을 피워올리며 콸콸 솟구치는 용출구를 보시면서 그 무슨 보석이라도 찾으신듯, 쌓이신 피로가 다 가셔지신듯 환하게 웃으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격동된 심정을 누를길 없어 일군들모두가 한동안 못박힌 듯 서있는데 그이께서는 산이 높고 숲이 무성하여 공기좋고 풍치수려한 양덕군은 온천휴양소, 료양소들을 꾸리기에 적중하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해방후 첫해 이곳을 찾으시여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첫 휴양소를 꾸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양덕군안의 온천지구를 만년대계로 훌륭하게 변모시킴으로써 참다운 인민의 공화국을 일떠세워주시고 동서고금에 류례없는 인민적시책들부터 실시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세세년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자욱이 그대로 비껴있는 양덕군안의 온천들은 인민들이 온천의 덕을 보게 하시려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을 길이 전해갈것이다.

제일중대사

필 자	김 영 범
장 정	김 영 일
교 정	리 명 찬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8(2019)년 10월 4일
발 행	주체108(2019)년 10월 8일

ㄱ-1455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106-7